해외방송통신조사자료 2011-3호

영국 BBC 제작 가이드라인 및 심의 사례

2011.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해외방송통신조사자료 2011-3호

BBC 제작 가이드라인 및 심의 사례

2011.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역자서문

본 자료집은 영국의 대표적 공영방송 『BBC 제작 가이드라인(Editorial Guidelines)』(2010년 10월 18일자 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요강(Guidance)」, 그리고 관련된 자율 심의 사례를 번역한 것이다. 『제작 가이드라인』은 원래 BBC 종사자들에 대한 권고 사항 및 의무 사항을 담고 있는 자율 규정으로서, 공영방송의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영역이 갖추어야 할 규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의미 또한 갖고 있다.

본 자료집에는 『제작 가이드라인』중 「3절 정확성」, 「4절 불편부당성」, 「5절 유해와 불쾌감 유발」, 「7절 사생활 보호」, 「8절 범죄 및 반사회적 보도」, 「9절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10절 정치와 공공정책, 여론조사」 그리고 「11절 전쟁 및 테러, 재난 보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담았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BBC가 제작 가이드라인과 함께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준수요강」중 '언어', '드라마에서의 폭력' 및 '뉴스와 다큐멘터리에서의 폭력'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번역 범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익하고 편안한 매체로서 방송의 역할을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시청자 복지와 관련된 제작 가이드라인의 영역들을 선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BBC의 자율 심

의에서 제작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심의했던 실제 사례 세 편과 최근 BBC 트러스트에서 발행된 과학보도 관련 불편부당성과 정확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의 일부를 번역하여, 실제로 이와 같은 제작 가이드라인이 보도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적 윤문이 있었지만 되도록 원문에 가깝게 하여 가이드라인이 의도한 바에 가깝게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혹 사례 및 가이드라인 관련 번역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라며, 좋은 번역의 기회를 주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목 차

Ⅰ. BBC 제작 가이드라인 BBC Editorial Guidelines

정확성 Accuracy

1. 서언 ····· 11
2. 원칙 ····· 12
3. 의무적 상의 ····· 13
4. 실천 ····· 14

불편부당성 Impartiality

1. 서론 ····· 30
2. 원칙 ····· 31
3. 의무적 상의 ····· 32
4. 실천 ····· 33

유해와 불쾌감 유발 Harm and Offence

1. 서론 ····· 49
2. 원칙 ····· 52
3. 의무적 상의 ····· 53
4. 실천 ····· 55

프라이버시 Privacy

1. 서론 ····· 81
2. 원칙 ····· 84
3. 의무적 상의 ····· 85
4. 실천 ····· 88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 보도 Reporting Crime and Anti-Social Behaviour

1. 서론 ····· 112
2. 원칙 ····· 112
3. 의무적 상의 ····· 113
4. 실천 ····· 117

어린이 및 청소년 출연자 Children and Young People as Contributors

1. 서론 ····· 134
2. 원칙 ····· 135
3. 의무적 상의 ····· 136
4. 실천 ····· 138

정치와 공공정책, 여론조사 Politics, Public Policy and Polls

1. 서론 ····· 147
2. 원칙 ····· 148
3. 의무적 상의 ····· 149
4. 실천 ····· 151

전쟁, 테러 및 비상사태 War, Terror and Emergencies

1. 서론 ····· 170
2. 원칙 ····· 171
3. 의무적 상의 ····· 172
4. 실천 ····· 174

Ⅱ. BBC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요강

◆ 언어 ····· 187
◆ 드라마에서의 폭력 ····· 199
◆ 뉴스와 다큐멘터리에서의 폭력 ····· 205

Ⅲ. BBC 트러스트 자율 심의 사례

1. BBC 편집기준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1) <BBC News> 웹사이트 기사 ····· 216
2) BBC 1 <파노라마: 석탄이 돌아오다> ····· 221
3) BBC 3 <2008년 우리를 가장 짜증나게 한 사람들> ····· 233

2. BBC 과학보도의 불편부당성과 정확성에 관한
BBC 트러스트 리뷰 ····· 251

번역 자료의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BBC 제작가이드라인

http://www.bbc.co.uk/guidelines/editorialguidelines/guidelines/

BBC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요강

1. 언어

http://downloads.bbc.co.uk/guidelines/editorialguidelines/pdfs/language.pdf

2. 드라마에서의 폭력

http://downloads.bbc.co.uk/guidelines/editorialguidelines/pdfs/violence-in-drama.pdf

3. 뉴스와 다큐멘터리에서의 폭력

http://www.bbc.co.uk/guidelines/editorialguidelines/page/guidance-violence-news

BBC 트러스트 자율 심의 사례

1. BBC 편집기준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1) <BBC News> 웹사이트 기사, "1967년은 중동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How 1967 Defined the Middle East)"의 수정사항에 대한 평가

http://www.bbc.co.uk/bbctrust/assets/files/pdf/appeals/esc_bulletins/2009/dec.pdf

2) BBC 1 <파노라마: 석탄이 돌아오다*Panorama: Comeback Coal*>
http://www.bbc.co.uk/bbctrust/assets/files/pdf/appeals/esc_bulletins/2009/july.pdf

3) BBC 3 <2008년 우리를 가장 짜증나게 한 사람들*The Most Annoying People of 2008*>
http://www.bbc.co.uk/bbctrust/assets/files/pdf/appeals/esc_bulletins /2009/sep.pdf

2.「BBC 과학보도의 불편부당성과 정확성에 관한 BBC 트러스트 리뷰*BBC Trust review of impartiality and accuracy of the BBC's coverage of science*」
http://www.bbc.co.uk/bbctrust/our_work/other/science_impartiality.shtml

I

BBC 제작 가이드라인

정확성 ····· 11
불편부당성 ····· 30
유해와 불쾌감 유발 ····· 49
프라이버시 ····· 81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 보도 ····· 112
어린이 및 청소년 출연자 ····· 134
정치와 공공정책, 여론조사 ····· 147
전쟁, 테러 및 비상사태 ····· 170

정확성 Accuracy

1. 서언

BBC는 적절한 정확성(due accuracy)을 달성할 것을 약속한다. 정확성에 대한 약속은 BBC의 명성과 시청자의 신뢰에 근본적이며, 그것이 BBC의 기반이다. 정확성은 BBC 왕립칙허장(BBC Charter)[1] 부속 협약(Agreement)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여기서 '적절하다'는 용어는 정확성이 콘텐츠의 주제와 속성, 예상되는 시청자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지(signposting)를 고려해 프로그램에 적절하고 적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output)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지만, BBC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정확성을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이를테면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코미디에 요구되는 적절한 정확성은 통상 사실기반 콘텐츠(factual contents)에 요구되는 정확성과 다르다. 심지어 한 장르 내에서도 그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실기반 콘텐츠의 경우에 요구되는

1) 44절 (1)항. 방송: 영국 문화 · 미디어 · 스포츠국 장관과 BBC간 협정, 2006년 7월 (Agreement Between Her Majesty's 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nd the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적절한 정확성은 그것이 사실적 오락인지, 역사 다큐멘터리인지,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성은 단지 사실을 제대로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안이 논쟁의 대상이 될 경우, 관련된 사실과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관련 사실과 정보의 경중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프로그램에 적합한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가능한 한 1차 자료를 사용해서 취재한다.
- 사실을 확인하고 교차 확인한다.
- 문서 증빙 자료와 디지털 자료의 진위를 검증한다.
- 가능한 한 출연자의 주장과 진술을 확증해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뉴스와 시사 관련 콘텐츠에서는 적절한 정확성을 달성하는 것이 신속성보다 더 중요하다.

2. 원칙

2.1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2 BBC의 모든 제작물은 주제와 성격에 적합한 방식으로 출처를 충분히 밝히고, 건실한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로 철저히 검증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BBC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근거 없는 추측은 피해야 한다. 확증하기 어려운 주장이나 논쟁적 주장, 사실 자료와 기타 콘텐츠는 그렇다는 사실을 해당 자료에 기록해야 한다.

2.3 BBC는 고의로(knowingly) 그리고 실질적으로(materially)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왜곡하거나, 만들어낸 자료를 사실로 제시하거나, 또는 기타 BBC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4 심각한 사실 관련 오류가 발생한 경우, 통상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고 적절하게 그 오류를 교정해야 한다.

3. 의무적 상의

의무적 상의란 BBC의 편집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이는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

3.1 심각한 논쟁적 주장을 익명의 단일 출처에 의존하여 보도하거나 주요 출연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Director Editorial Policy and Standards) 및 법무팀(Programme Legal Advice)과 상의해야 한다.

기타 상의

3.2 오락 프로그램 출연자를 포함해서 모든 출연자 모집 광고 문안은 관련부서 대표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3.3 인터넷(채팅룸이나 메시지 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사용해서 출연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부서 대표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4. 실천

자료 취재

4.1 우리는 사건을 직접 확인하고 1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1차 정보원에게 물어보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이 제공한 증거를 확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단일한 정보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단

일 정보원에 의존할 경우 언제나 이름 공개가 가능한 정보원을 우선시한다.

조사 목적으로 인터뷰 수행시 가능한 한 정보원을 함께 녹음/녹화해야 한다. 녹음/녹화로 인해 정보원이 인터뷰를 꺼리는 경우, 인터뷰 당시 혹은 추후 가능한 한 빨리 인터뷰 내용 전체를 노트로 기록해야 한다.

4.2 적절한 정확성의 달성이 요구되는 경우 우리의 모든 콘텐츠에서 정보, 사실, 문서를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만약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정보에 기록해야 한다.

4.3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 UGC[2])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리는 UGC 자료가 당연히 정확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사용 목적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정확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실여부를 입증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토리에 이해계가 있는 로비 그룹이나 기구의 구성원이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사용하는 방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무관심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

2) 한국에서는 통상 UCC(User Created Contents)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

이메일로 제출된 목격자 진술은 방송에서 사용하기 전에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하며, 적절한 정확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목격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UGC는 그것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4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거나 웹 사이트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통상 믿을만한 웹상의 정보원이라 하더라도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가짜 웹사이트일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웹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자료라도 보기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 운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개인이나 조직을 통해 자료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제3자 자료 사용

4.5 제3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다룰 때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보원의 명성을 고려해야 한다.

에이전시 리포트는 통상 그 내용을 BBC 특파원이 입증할 수 있거나, 저명한 뉴스 에이전시가 제공한 것일 때만 사용한다.

제3자가 제공하는 기타 자료는 신용하고 신뢰할 만 것만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기예보, 금융정보 및 음악차트가 포함된다.

사용하는 제3자 자료의 크레딧이 BBC 크레딧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4.6 해당 주제에 개인적, 혹은 전문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 자료는 편집상 명백하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방송할 수 있다. 자료의 출처가 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응급 서비스, 자선단체, 환경운동그룹의 자료가 포함된다.

영상 및 음성 보도자료 또는 기타 유사 자료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직접 자료를 취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 보도자료를 발췌 사용하지 않는다. 보도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단지 자료의 영향력이 아닌 편집상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도자료 사용이 편집상 정당화되면, 그때는 프로그램에서 그 자료의 배경을 설명하고 출처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출연자 물색

4.7 출연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신원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확인 작업의 내용은 출연의 성격과 의미, 콘텐츠와 장르에 적합해야 한다.

프로그램에서 주요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에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출연자를

인터뷰하고 필요하다면 제작팀의 구성원 1명 이상이 다음 사항을 조합해서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 출연자의 신원 및 이야기를 검증해 줄 문서 증빙 자료
- 출연자가 언급한 사람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통한 자료 입증
- 형사상 전과나 특정 정당 소속 여부 등 BBC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자진 신고

일부 정보 제공자에게는 범죄기록정보국(Criminal Records Bureau)의 신원조회에 동의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4.8 자신의 특수한 직업이나 경험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배우나 연기자를 관리하는 에이전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뉴스 에이전시나 기타 전문 에이전시를 접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으나, 에이전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연락처는 모두 적절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출연자 모집 공고

4.9 사실기반 프로그램이나 사실기반 오락 프로그램의 출연자 모집 공고는 다른 적합한 조사 방법을 다 사용하고 난 뒤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광고를 내거나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단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 BBC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문, 전문 출판물, 혹은 인터넷 포스터나 개인 광고를 사용해 출연자 모집광고를 내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다. 모집광고에 응모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선택적으로 '연속 게스트'로 정기적으로 출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적합하거나 부정직한 신청자를 걸러낼 수 있는 적절한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오락 프로그램의 경연 참가자나 방청객을 모집하는 경우 외에는 미디어 출연을 원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외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적절하거나 부정직한 출연자를 걸러내기 위해 모든 적절한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오락 프로그램 출연모집 광고를 포함해 제안된 모든 공고 문안은 관련 부서 대표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출연자를 물색하기 위해 (채팅룸이나 메시지 게시판 혹은 소셜 네트워킹 그룹 같은) 인터넷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부서 대표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출연자나 조사 자료를 찾기 위해 웹사이트에 안내문을 게재할 경우, 통상 우리가 BBC 직원이라는 점을 밝혀야 하며, 상세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때는 BBC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다.

노트작성

4.10 모든 중요한 조사 내용과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해 가능한 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트를, 가능하다면 실시간으로 작성해야 한다. BBC는 서신 기록과 전자우편 기록, 배경 설명 노트와 문서 자료 등의 조사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 자료는 특히 대본 작성 단계에서는 이중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필요 시 팀의 다른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익명의 정보원이 주장한 심각한 논쟁적 주장(serious allegation)을 방송할 경우, 이야기의 토대를 제공하는 인터뷰, 대화 내용, 정보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노트를 보관해야 한다.

시청자 오도 방지

4.11 우리 콘텐츠를 가지고 고의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일부 콘텐츠는 시청자의 오도를 방지하기 위해 라벨링을 해서(텍스트 안에 언어적으로 또는 영상 및 오디오 단서로 표시) 콘텐츠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출처

4.12 우리는 통상 방송과 온라인상의 정보원과 주요 출연자의 신원을 밝히고 그들의 경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가 그들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13 익명의 정보원, 특히 심각한 논쟁적 주장을 제기하는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할 경우 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원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원의 자격에 대해 시청자를 실질적으로 오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BBC에서 처음 만든 스토리에 익명의 정보원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 관련 편집책임자는 정보원의 신원을 알 권리가 있다. 심각한 논쟁적 주장인 경우 익명의 정보원이 자신의 신원을 BBC 상급 편집책임자에게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저항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기자는 비밀스럽게 획득된 정보는 방송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심각한 논쟁적 주장을 익명의 단일 출처에 의존해서 보도하거나 주요 출연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 및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스토리가 공익에 상당히 부합하는지 여부
- 정보원이 신용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보도되는 사건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
- 여하한 법적 사안
- 신변보장문제, 예를 들어 내부고발자의 경우
- 심각한 논쟁적 주장에 대해 관련된 사람이나 조직의 반응을 담으려고 했는가의 여부

- 민감하고 개인적 사안
- 심각한 논쟁적 주장 및 그 주장에 대한 입증이 '비보도 전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4.14 익명의 정보원이 제기하는 주장을 보도할 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도록 주의 깊게 대본을 작성해야 한다.

- 논쟁적 주장의 성격
- 논쟁적 주장의 출처가 BBC가 아니라 익명의 정보원이라는 점

논쟁적 주장이 독자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시청자에게 그 주장을 알리는 것이 적합한지 숙고해야 한다.

논쟁적 주장은 통상 대본 없이 쌍방향 생중계(live unscripted two-ways)로 보도하지 않는다. 쌍방향 생중계 방식으로 이야기를 터뜨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편집자가 결정한다. BBC 직원이 후속 취재를 할 때는 논쟁적 주장이 보도될 수 있는 있는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취재해야 한다.

외부 웹사이트 온라인 연결

4.15 BBC 온라인과 연결되는 외부 웹사이트는 통상 사실관계가 정확한 사이트여야 한다. 시사 뉴스 기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특정 견해를 알려주는 외부사이트와 연결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의 사실 관계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외부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정보, 혹은 홍보내용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제작기법

4.16 녹음/녹화 방송에 제작팀이 일정 정도 개입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러나 제작기법에는 수용 가능한 것과 수용불가능한 것이 있다. 어떤 제작 기법을 사용하든 그 의도와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통상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보완하는 제작기법(이를테면 내용의 명확성과 흐름을 개선하거나, 콘텐츠의 현장성을 높여주는 방법)은 수용가능하다. 인터뷰 대상자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 전환(cutaway shots)이나 셋업 쇼트(set-up shots), 그리고 출연자에게 사소한 동작을 다시 해달라고 하거나 일상생활을 수행할 것을 부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통상 서사나 사건의 실제에 대해서 시청자를 실질적으로 오도할 우려가 있는 제작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뉴스 프로그램과 사실기반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에게 그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거나 재구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다음과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

- 액션이나 서사 전개에 중요한 동작이나 사건의 연출 혹은 재연출

- 쇼트나 시퀀스의 인터컷이 두 장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자료의 병치가 사건에 대해 오도된 인상을 주는 경우

해설과 편집은 해당 사건이나 출연자에 대해 시청자에게 실질적으로 오도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17 디지털로 생성하거나 조작된 자료(여기에는 장면이나 캐릭터를 창조하기 위해 CGI나 기타 제작기법을 사용한 것 포함)가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원본 자료의 영향력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시청자를 실질적으로 오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방송사를 속이기 위해 디지털 조작된 사진, 동영상, 문서가 사용된 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재연

4.18 사실기반 프로그램에서 재연(reconstructions)하는 경우 시청자를 오도하거나 선정적인 방식으로 지나치게 극화해서는 안 된다. 재연이란 사건을 아주 명백하게 재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재연은 통상 실증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 재연 프로그램은 또한 언어적이거나 시각적인 표시(labelling) 혹은 영상이나 오디오 단서를 사용해서(예를 들면 슬로모션이나 등급표시) 그것이 재연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연이 언제 시작해서 끝났는지 시청자가 명백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시청자를 혼동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통상

시사사건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외부의 제3자가 연출한 재연은 보도할 수 있다.

사실기반 드라마

4.19 드라마에서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묘사하는 경우 등장인물 설정, 대화, 분위기 같은 일부 극적 요소를 허구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실제 인물과 사건의 묘사는 언제든지 입증 가능하고 출처가 분명한 증거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며, 알려진 사실(시간 순서 포함)을 부당하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 드라마가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또는 드라마 라이선스를 받았음을) 명확한 공지(signposting)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라마의 중심 목표가 생존 인물이나 가까운 친척이 생존해 있는 사람 혹은 최근의 사건을 묘사하려고 할 때가 가장 민감하다. 적절한 정확성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카이브자료

4.20 아카이브 자료는 어떤 상황, 사건이나 묘사 대상에 대해 시청자를 실질적으로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카이브 자료에는 라벨링이 요구된다.

통계 수치 및 위험 보도

4.21 통계 수치와 위험 보도에서는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건

강이나 범죄와 관련해서 시청자가 부당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추세를 보여주는 통계를 제공할 때 정밀 검증을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비중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통계치의 변화를 보도할 때는 기준 수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를테면 200만 명 중 한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2배수로 처리해도 여전히 100만 명 중 한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통상 통계 수치의 출처, 그리고 때로 오차범위를 보도해서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면이나 개인적 증언이 균형 잡힌 논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때 위험 인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출연자의 견해가 다수의 의견과 모순된다면, 적절한 정확성과 적절한 불편부당성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온라인 콘텐츠 관리

4.22 BBC 콘텐츠가 온라인상에 게시될 때, 온라인 콘텐츠 생산담당 부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일관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할 것인지 혹은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4.23 뉴스 페이지 및 시사성을 중시하는, 혹은 사용자가 시사성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콘텐츠는 계속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시사

성 있는 문제로 보이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분명한 콘텐츠는 수준 높은 편집 기준에 대한 BBC의 명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장기간에 걸쳐 취합된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통상 사용자가 접근하는 콘텐츠가 언제 처음 게재되었고, 필요한 경우, 언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를테면 게재 순간 페이지에 날짜를 표시하거나 혹은 아카이브에 보관된 자료임을 라벨로 표시할 수 있다(이를테면 페이지가 더 이상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음을 눈에 잘 띄는 배너로 표시).

온라인 콘텐츠 아이템의 자료가 변경된 경우(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법적 혹은 편집상의 이유가 없으면) 통상 변경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4.24 콘텐츠가 제한된 기간에만 접근 가능하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온라인상에 게재된 자료는 영구적으로 접근 가능한 아카이브의 한 부분이 될 것이며 통상 삭제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된다.

뉴스 기사의 아카이브는 영구적인 공식기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 아카이브

뉴스 페이지가 시사 화면에 연결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페이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예외적 상황에는 법적 사유, 개인적 안전의 위협, 또는 자료의 삭제 외에는 교정 불가능한 수준의 편집기준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포함된다. 아카이브에서 온라인 뉴스 페이지를 삭제하려고 할 경우 온라인뉴스편집책임자(Editor News Online)와 상의해야 하며, 그는 법무팀이나 편집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기타 영역에서 간혹 일부 오디오-영상 콘텐츠, 특정 프로그램의 한 섹션, 혹은 예외적인 경우 전체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는 개인적 안전, 프라이버시, 공정성, 법적 사유나 편집 기준의 심각한 위반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삭제는 관련 상급 편집책임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문자텍스트이든 음성-영상이든, 짧은 형식이든 긴 형식이든, BBC 사이트에 게재된 것이든 혹은 다른 신디케이트 사이트에 게재된 것이든 막론하고, BBC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의 시스템을 포함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

프로그램 확인

4.25 녹음/녹화된 프로그램은 송출 전에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 출연자의 사망이나, 범죄자의 기소 혹은 심각한 생활 변화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 중에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자료를 변경하거나 삭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오류 교정

4.26 사실과 관련한 심각한 오류는 통상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고 적절하게 실수를 교정해야 한다. 부정확성은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 있다. 실수를 교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실수를 바로잡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부정확한 내용을 방송한 경우 법무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불편부당성 Impartiality

1. 서론

불편부당성은 BBC의 공적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시청자와의 핵심적인 약속이다. 불편부당성은 BBC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전반(텔레비전, 라디오, 온라인, 그리고 국제 서비스와 상업 잡지)에 적용된다. 우리는 포용적인 자세로 광범위한 시각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BBC 왕립칙허장 부속 협약[3]은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혹은 산업적 논란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뉴스나 기타 프로그램에서, 논쟁적 주제가 적절한 불편부당성으로 다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모든 주제에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요구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적절하다(due)는 말은 불편부당성이 프로그램에 적합하고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텐츠의 주제와 속성, 예상되는 시청자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

3) 44절 (1)항. 방송 :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국 장관과 BBC간 협정, 2006년 8월 (Agreement Between Her Majesty's 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nd the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지(signposting)를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불편부당성은 자주 대립하는 관점 간의 단순한 '균형' 문제를 넘어선다. 또한 그것은 모든 사안에 대한 절대적인 중립성 또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와의 거리두기(detachment)를 요구하지 않는다.

협약에 따르면 우리는 방송이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외에는, 시사문제나 공공정책 문제에 대한 BBC의 의견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4].

BBC 직원, 프로그램 진행자 및 기타 우리 프로그램 출연자의 외부 활동 역시 불편부당성에 대한 BBC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은 「15절: 이해관계의 대립」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

2. 원칙

2.1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논쟁적 주제'가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갖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

4) 44절 (3)항과 (4)항. 방송 :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국 장관과 BBC간 협정, 2006년 8월(Agreement Between Her Majesty's 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nd the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2.2 어떠한 형태의 뉴스이든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갖고 다루어야 하며, 사건, 의견, 주요 주장에 적절한 비중을 안배해야 한다.

2.3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적절한 기간을 두고 광범한 주제와 관점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4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그리고 적절한 기간에 걸쳐 광범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어떤 중요한 의견이 고의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덜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2.5 편집상 상당한 사유가 있는 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 스펙트럼 상의 어떤 논점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3. 의무적 상의

(의무적 상의란 BBC의 편집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이는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편집부와 상의

3.1 정부 부처에서 일정 정도 공공정책이나 정치적인 논쟁과 관

련된 공식 메시지나 홍보영화를 방송해줄 것을 요청해 올 때는 정치수석고문(Chief Adviser Politics, CAP)과 상의해야 한다.

3.2 기금 모금과 관련된 BBC 공익서비스 사업은 편집수석고문(Chief Adviser Editorial Policy)과 상의해야 한다.

3.3 정치인을 게스트로 초대하는 것이 관례이기보다는 예외적인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영역에서 정치인 게스트를 초청하려고 할 때는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4. 실천

의견의 폭과 다양성

4.1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우리는 포용적인 자세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 자료의 경중을 따질 때 공정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논쟁의 다양한 수많은 영역에 적절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의견의 폭과 다양성은 단지 정치적이고 문화적 차원 뿐 아니라 때로는 도시와 농촌, 노년층과 청년층, 부유층과 빈곤층, 보수와 진보간의 차이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동체, 이익 집단 및 지역의 시각을 탐구해야 한다.

적절한 비중

4.2 불편부당성이 꼭 제작 전반에 걸쳐 혹은 단일 프로그램이나 웹페이지 또는 보도 내용에서 일련의 시각이나 의견을 동일한 비율로 다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BBC는 대신 '적절한 비중'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테면 소수 견해를 우세한 의견과 꼭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맥락에서 중요한 시각을 누락시키는 것은 BBC의 불편부당성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어떤 시각을 포함하고 제외시킬 것인지 여부는 합리적이고 주의 깊게 결정을 내려야 하며, 편집상의 판단은 적절한 범위의 프로그램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영국에 대한 보도

4.3 BBC는 영국의 서로 다른 지역의 다양한 정치문화와 정치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하나 이상의 민족 권역에서 주로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른 경우, 영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그 주장에 적절한 비중과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

불편부당성과 시청자

4.4 라디오 전화연결에서부터 온라인상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BBC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시청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시청자 의견은 그에 합당한 정도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아서는 안 되며, 표현된 의견의 상대

적 비중을 잘못 재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시청자 의견을 적절히 정밀 검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소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을 미리 접촉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에게 토론 기회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논쟁적 주제

4.5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드라마, 오락, 스포츠를 포함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든 '논쟁적 주제'가 등장할 때는 언제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

'논쟁적 주제'란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란과 관련된 주제이다. 그 밖에 종교, 과학, 금융, 문화, 윤리 및 기타 전적으로 다른 문제에서의 논란도 해당된다.

4.6 논쟁적인 주제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공적이고 정치적인 논쟁과 토론의 수준
- 주제의 시사성 정도
- 관련 시청자의 신념과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사안의 민감성
- 특정 민족권역, 지역 혹은 적어도 시청자의 상당 부분으로 구성된 별도의 구역에서 강도 높은 토론의 대상이 되거나 중요성을 지닌 주제인지 여부

- 심각한 주제인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
- 사실에 근거한 문제와 의견의 문제 간의 구별

주제가 '논쟁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문은 편집부에 구할 수 있다.

4.7 '논쟁적 주제'를 다룰 때는 광범위한 유의미한 견해와 시각에 적절한 비중과 중요성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논쟁이 활발히 진행 중인 동안에는 특히 더욱 그러하다. 의견은 사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4.8 통상 적절한 불편부당성은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타 제작물에서 어떤 사안의 특수한 측면을 탐사보도하거나 어떤 단독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논쟁적 주제'를 다룰 때에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알리고, 일련의 비중 있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그것을 잘못 재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타 시각을 반영하는 데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러한 시각을 연계된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프로그램에 심각한 논쟁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동일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또는 연계된 프로그램에서 반론권을 부여해야 한다.

4.9 또한 논쟁적 주제가 주요 현안으로 간주될 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달성해야 한다. '주요 현안'이란, 보통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있거나 혹은 좀 더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비슷한 중요성을 지닌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란과 관련된 문제이다. '주요 현안'을 다룰 때, 즉 관련 사안이 매우 논쟁적이거나 논쟁의 결정적인 순간이 기대되는 때는 통상 적절하고 다양한 주요 의견이 일련의 명백히 연계된 프로그램, 단일 프로그램, 혹은 때로 심지어 단일 아이템에서도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논쟁적 주제와 온라인 연결

4.10 '논쟁적 주제'를 다루는 BBC 온라인사이트가 외부사이트와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외부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종합하면 그 주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통상 외부사이트가 법을 위반하거나 유해와 불쾌감 유발에 관한 『BBC 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정부 정보

4.11 정부 부처에서 일정 정도 공공정책이나 정치적인 논쟁과 관련된 공식 메시지나 홍보영화를 방송해줄 것을 요청해 올 때는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뉴스, 시사 보도 및 사실기반 프로그램

4.12 어떤 형식의 뉴스든 BBC는 사건, 의견, 주요 주장에 대해 적절한 비중을 두어서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달성해야 한다. 뉴스 기사의 접근 방식과 어조는 항상 불편부당성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BBC의 편집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4.13 프로그램 진행자, 리포터, 특파원 등은 BBC를 공적으로 대표하는 얼굴이자 목소리이기 때문에 적절한 불편부당성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청자는 BBC 프로그램에서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란과 관련된 주제 또는 여하한 다른 영역의 '논쟁적 주제'에 관해 기자 또는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개인적 편견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BBC의 기자 또는 진행자는 증거에 근거한 전문적 판단을 표명할 수 있으나, 온라인을 포함한 BBC 프로그램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혀서는 안 된다.

4.14 BBC는 외부 출연자(학계, 언론계, 연구 종사자, 자선단체 대표 등)가 편향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출연자가 특정한 관점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가 출연한 내용 및 출연 맥락에서 그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시청자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BBC 콘텐츠나 BBC를 스토리 소재로 삼은 경우

4.15 BBC에 관한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 우리의 보도는 정확하고 공정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BBC의 불편부당성이 의심받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진행자나 기자가 잠재적 이해 갈등에 노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BBC를 '우리'라고 언급하거나 BBC 콘텐츠를 '우리 것'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이야기를 보도하는 사람과 BBC 사례를 제시하는 책임자가 편집상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드라마, 오락, 문화

4.16 시청자는 예술가, 작가, 연예인이 드라마, 오락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BBC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란과 관련된 주제 혹은 기타 '논쟁적 주제'를 다룰 때 통상 시간 경과를 두고 광범위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 논쟁의 성격 및 주제를 고려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데 적절한 시간 배분 문제 및 그것을 연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4.17 '논쟁적 주제'에 대한 하나의 시각의 중심이 되는 드라마는 그렇다는 사실을 시청자에게 분명하게 공지해야(signpost) 한다. 드라마의 우수성과 통찰력으로 제공된 플랫폼을 정당화해야 한다.

기타 연계 프로그램에서 대안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편집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논쟁적인 견해와 불쾌감 유발 가능성

4.18 인터뷰나 기타 수단을 통해 논쟁적 견해를 표명하는 출연자는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질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소수 견해가 프로그램에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BBC는 토론을 억압하지 않는다.

많은 시청자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해 보도하거나 그와 인터뷰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상급 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그는 편집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잠재적 불쾌감은 공익 및 BBC의 불편부당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비추어 경중을 따져보아야 한다. 방송 내용은 불쾌감 유발 가능성을 인정하고, 적절하게 건실해야 하며며, 또한 공정하고 냉정해야 한다.

직원이나 진행자가 개인적 불쾌감이나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BBC의 불편부당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의견 일치, 캠페인 그리고 정밀 검증

의견 일치

4.19 논쟁의 여지없이 광범한 의견의 일치 혹은 만장일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안이 BBC의 불편부당성에 심각한 위험을 가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BBC는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계속 보도하고 거기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찾는 것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의 보도는 의견의 일치나 일반적 통념(received wisdom)을 자명한 사실로 보이게 하는 언어나 어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가정이나 경험 그리고 또 일부 시청자가 공통으로 견지하는 가정과 경험에 도전해야 한다. BBC 프로그램은 관련 증거자료가 없는 일반화를 강화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특수한 상황에 그러한 일반화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은 정치, 인종, 자선, 과학, 기술, 의학 혹은 기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과도한 일반화는 자칫 BBC는 자체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명백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영역도 적절히 엄격하게 다루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편집부의 자문을 구한다.

캠페인

4.20 정부, 캠페인 기관, 자선 단체 및 그들이 제시한 의제가 아무

리 대의명분이 명백하고, 또 그 메시지가 논란 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BBC는 그것과 독립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

4.21 시의성 때문에 편성된 콘텐츠가 외부 단체의 캠페인과 일치할 때는 BBC의 불편부당성 이미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히 사고해야 한다.

사회적 행동

4.22 사회적 행동 프로그램은 BBC 공적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BBC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행동 의제를 설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특정 캠페인 그룹의 의제를 단순히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캠페인 그룹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특정 그룹을 편애하지 말아야 한다.
- BBC의 사회적 행동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정부나 로비그룹이 추진하는 캠페인과 목적이 일치할 경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정책의 문제에 대해 로비해서는 안 된다.
- BBC가 수행하는 사회적 행동 캠페인에 대한 뉴스 보도는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지녀야 한다.

기금 모금 성격을 띤 모든 BBC의 공공 서비스 사업은 편집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정밀검증

4.23 정밀검증은 권력과 책임을 지닌 정부 관계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대립하는 캠페인, 로비스트, 야당 등에도 실시되어야 하며, 시청자가 상호작용적으로 표명한 견해도 여기에 포함된다.

선거와 국민투표

4.24 선거 캠페인 및 국민투표 기간에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기간에는 모든 프로그램 장르에서 적절한 불편부당성에 관해 더욱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수석고문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영국 전체를 대상으로 치르는 선거인 경우 각 캠페인 기간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발행한다.

시리즈물의 불편부당성과 시간 경과

4.25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달성하려고 할 때, '프로그램 시리즈'를 하나의 전체로 간주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시리즈’란 다음을 말한다.

- 적절한 기간 내에 명백히 연결된 동일하거나 연관된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

  여기에는 동일한 제목을 가진 일련의 프로그램, 상이한 유형의 연결 프로그램(이를테면 드라마와 거기 이어지는 논쟁 프로그램), 혹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명확하게 정의된 시즌 프로그램이나 아이템, 또는 상호 연결된 웹페이지 등이 포함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이나 웹페이지는 시리즈 전반에 걸쳐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콘텐츠는 다른 온라인 요소로의 링크나 공지(signpost)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편부당성을 달성하려고 할 때는 사전 계획이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경우 첫 번째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시리즈의 다른 프로그램의 방송 일시를 공지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식으로 후속 프로그램을 사전 공지해야 한다.

- 매회 크게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제목이 동일하고 특정 영역을 다루고 있어 명백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

하나로 연결된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불편부당성은 통상 개별 프로그램 내에서 혹은 명백히 편집상 연결되어 있는 특정수의 프로그램 내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시리즈 전반 혹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이러한 연결 프로그램은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이를테면 편집 판단의 일관된 적용 등을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

4.26 장수 프로그램이나 연속 프로그램(이를테면 일반 일일 매거진 프로그램, <뉴스 채널>, <온라인> 등)은 시간이 지나도 관련된 주제 영역에 일관된 편집적 판단을 적용함으로써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테면 반대 의견이 존재할 때마다 매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편파적 시각을 가진 정치인이나 기타 출연자를 등장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론권을 부여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장수 프로그램이나 연속 프로그램 편집자는 다음을 지켜야 한다.

- 모든 주요한 주장을 포함해서 광범한 개인과 견해를 반영한다.
- 상이한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고, 중요성, 취급 방식, 시간 배정에서 공정하게 다룬다.
- 적절한 불편부당성이 달성되었는지 평가해야 하는 적절한 기간이 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기간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한 문제'를 다룰 때 적절한 불편부당성은 통상 단지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혹은 온라인서비스 전반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고 해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4.27 통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야(예를 들어 선호하는 음악이나 도서, 스포츠 선호도나 개인적 전기 등)를 다루는 일부 프로그램에서, 가끔 이미 편파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출연자나 진행자(정치인이나 캠페인 진행자 기타 특정 시각과 동일시하는 사람)를 포함시키려고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일관된 편집 판단을 적용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절한 폭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어떤 대상을 호의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에 상이한 시각을 가진 개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필요한 폭과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기간은 맥락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하나의 프로그램 시리즈나 1년을 넘지 않는다. 선거가 다가오는 기간에는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인을 게스트로 초대하는 것이 관례이기보다는 예외적인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영역에서 정치인 게스트를 초청하려고 할 때는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정치나 공공정책에 관한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프로그램 시리즈 전체에 걸쳐 혹은 시간 경과를 두고 달성하려고 하는 모든 경우, 선거나 국민 투표가 다가오는 기간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수석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28 때때로 시리즈 프로그램이나 장수 프로그램이나 연속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개별 프로그램이나 기타 콘텐츠는 '논쟁적 주제'에 대한 견해 표명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개별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 요구되는 불편부당성을 충족시킨다. 그런 경우 관련 프로그램 감수책임자(controller)와 상의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서비스 전반에 걸쳐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 견해

4.29 BBC는 전통적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매우 광범한 개인, 그룹, 조직이 개인적 의견과 시각을 제공하고, 신념을 표현하고 논쟁적 주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이는 캠페인 진행자가 매우 당파적인 견해를 직접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학자나 과학자를 포함하는 전문가 의견, 시청자가 출연하여 표현하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 이 모든 것이 공적 이해와 논쟁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특히 익숙한 사안에 대한 신선하고 독창적인 관점을 시청자가 들을 수 있게 될 때 그러하다. 그러한 개인적 견해를 담은 콘텐츠는 시청자에게 그 사실이 미리 분명히 공지되어야 한다.

4.30 또한 개인적 견해를 담은 프로그램과 웹사이트(예를 들어 블로그)에서 '논쟁적 주제'를 다룰 때 특히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실 관계의 정확성을 존중해야 한다.
- 상반되는 견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정하게 대변해야 한다.
- 적절한 경우, 이를테면 사전에 준비된 토론 프로그램 같은 경우, 반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충분히 폭넓은 견해와 시각이 유사한 유형과 비중의 프로그램에 적절한 시간차를 두고 포함되도록 한다.

4.31 BBC 직원 또는 뉴스나 공공정책 관련 프로그램을 맡은 BBC 정규 프로그램 진행자는 증거에 근거해서 전문적 판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란과 관련된 주제 또는 여하한 영역에서든 '논쟁적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서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기사로 쓰는 것은 통상 부적절하다.

유해와 불쾌감 유발 Harm and Offence

1. 서론

BBC는 인간의 제반 경험과 자연 세계의 현실을 포함하여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BBC는 각각의 서비스에 적절한 방식으로 혁신적이고 도발적인 콘텐츠를 방송할 권리와 취약층을 보호하고 부당한 불쾌감 유발을 방지할 책임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창의적인 리스크 감수는 BBC 임무의 핵심적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리스크가 클수록 창의적 콘텐츠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각과 관심과 기획이 요구된다. 우리는 우리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특히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는 물론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준(generally accepted standards)에 민감해야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는 보통 콘텐츠가 어느 서비스에서 제공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콘텐츠에 일부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도발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을 고려해서 편집상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

하게 공지해야 한다. 그러한 도발적인 자료에는 거친 언어 표현, 폭력, 섹스, 성폭력, 모욕, 정신적 고통(distress), 인간 존엄성 무시, 차별 대우 혹은 차별적 언어가 포함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반적 수용 기준

BBC 왕립칙허장 부속 협정은 "불쾌감을 유발하고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시청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 수용 기준'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것이고 관련 연구를 통해 계발될 것이다. '일반적 수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이며, 콘텐츠, 콘텐츠가 등장하는 맥락, 그리고 편집상 정당화를 고려해야 한다.

맥락

맥락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주변 편집 자료
-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 콘텐츠를 이용 가능한 시간
- 해당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와 연계해 이용 가능한 기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 잠재 시청자의 규모 및 시청자 구성 그리고 시청자의 기대
- 특정한 콘텐츠를 일반 프로그램 또는 특수한 성격의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것을 묘사하는 프로그램에 포함시킴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유해나 불쾌감

- 공지나 콘텐츠 정보를 통해 잠재 시청자가 콘텐츠 성격에 주목하게 될 정도
- 무심코 콘텐츠를 보게 된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요소에 꼭 동일한 비중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 수용 기준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방송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신규 시리즈(혹은 기존 시리즈가 채널을 옮기는 경우)의 경우 위탁책임자 및 진행자와 연기자를 포함한 제작진이 제작 초기 단계에 논의를 통해 플랫폼, 맥락, 편성시간대에 적합한 어조와 콘텐츠를 정해야 한다. 거친 언어와 콘텐츠일 것으로 시청자 기대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시리즈를 다시 시작할 때도 방송(run)이 시작되기 전에 매번 유사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는 경우 일반적 수용 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콘텐츠가 상당수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기를 얻을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 적절한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제작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어린이는 15세 미만을 말한다. 청소년은 15, 16, 17세를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법적 정의는 아니다.

2. 원칙

2.1 BBC는 유해하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방송내용으로부터 공중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2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혹은 도덕적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2.3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9시 텔레비전 제한시청시간대(watershed)를 준수해야 한다.

2.4 어린이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와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우리의 책임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2.5 콘텐츠가 자신과 자녀에게 적합한지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분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6 어떤 경우든 거친 언어의 사용은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거친 언어가 등장할 때는 언제나 적절한 공지를 통해 수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의무적 상의

(의무적 상의란 BBC의 편집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이는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3.1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시청자에게 적합해야 한다. 오후 9시 이전의 늦은 저녁 시간대 프로그램은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시청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를 요청한 경우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3.2 가장 거친 표현(여성 음부를 지칭하는 속어, F-word와 그 변형어 등)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 프로그램 감수책임자와 상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편집수석고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3 드물지만 투우, 투계 및 기타 유사한 행위를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을 방송할 때는, 비록 그러한 행위가 합법적인 나라에서 녹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방송하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3.4 교수형 장면, 자살의 묘사, 자살 기도나 자해 장면을 방송하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편집수석고문의 자문도 구할 수 있다.

3.5 최면술 시연을 방송에 내보내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3.6 송출 심사부(Transmission Review)의 기술적 확인 사항을 통과하지 못한 녹화 프로그램에서 플래싱 이미지(flashing image)나 스트로빙 시퀀스(strobing sequence)를 포함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 프로그램 감수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시청자나 청취자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혹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또 달리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법을 사용하는(예를 들어 지속 시간이 아주 짧은 영상 이미지의 사용) 콘텐츠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그는 편집수석고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 실천

시청자의 기대

4.1 시청자의 기대와 관련해서 콘텐츠가 어린이를 포함한 시청자에게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 콘텐츠가 방영되는 시간과 날짜, 서비스의 성격 및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의 질문은 해당 콘텐츠가 시청자 기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학교 시간과 주말 및 휴일을 고려할 때, 예상 어린이 시청자 수와 연령층을 포함해서 시청자의 구성이 어떠할 것인가? (영국은 지역별로 학교 휴일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탤런트, 편성시간(slot), 제목, 장르나 서비스가 이미 시청자 기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해당 콘텐츠에 의해 그 기대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가?
- 곤란하거나 도발적 내용이 있음이 분명히 공지되었는가?
- 방송시간 근처에 이를테면 종교 축제나 연례적 행사 같은 특별히 민감한 사항이 있는가?
- 선행 프로그램에서 넘어올 시청자층(pull-through audience)이 누구인가(즉 선행 콘텐츠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콘텐츠가 끌어들이는 시청자층은 누구인가)?

콘텐츠 정보

4.2 우리의 모든 서비스에서 적절한 편성 및 분명하고 일관되며 사실적인 콘텐츠 정보를 단독으로 혹은 결합해서 사용함으로써 도발적인 콘텐츠를 분명하게 공지해야 한다. 이것은 시청자가 콘텐츠에 대해 적절한 기대를 갖고 자신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4.3 관련이 있는 경우, 제한시청시간대 이전 프로그램,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에 시작해서 그 이후까지 계속되는 프로그램, 제한시청시간대 이후 프로그램에서도 (적절하다면) 콘텐츠에 대해 분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텔레비전에서 제한시청시간대 이후에 방송되는 온디맨드 콘텐츠는 적절한 경우 콘텐츠 등급표시가 되어야 한다.

라디오에서, 어린이가 청취할 가능성이 특히 높거나 통상적인 청취자 기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콘텐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도발적이거나 예상 못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는 방송 및 온라인을 통한 공지, 콘텐츠 등급표시, 전자프로그램안내, 예고편, 전단, 문자다중방송(Ceefax), 보도 자료 및 기타 홍보 자료가 포함된다.

온디맨드 콘텐츠 분류표기

4.4 BBC 플랫폼에서 온디맨드 오디오/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때, 사용자가 콘텐츠의 맥락을 이해하고, 콘텐츠에 접근하기 전에 그것이 자신과 자녀에게 적합한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5 더 거칠거나 더 도발적인 콘텐츠는 프로그램에 '등급분류체계(G for Guidance)'에 따른 등급표시(labelling)를 요구할 수 있다. 등급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한다.

- 사용자가 등급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BBC의 'G' 아이콘
- 거칠거나 도발적인 콘텐츠를 표시하는 콘텐츠 등급분류체계
- 부모가 콘텐츠 등급표시가 된 더 도전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해주는 PIN/암호 보호 시스템

제한시청시간대와 TV · 라디오 · 온라인 편성

텔레비전 편성과 제한시청시간대

4.6 텔레비전 편성의 결정은 청소년, 특히 어린이 보호와 (어린이가 없는 사람을 포함해서) 하루 종일 모든 범위의 주제를 볼 수 있는 모든 시청자(어린이 없는 가구 포함)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한시청시간대의 요구사항에 비추어서도 판단해야 한다.

오후 9시 텔레비전 제한시청시간대는 일반 시청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성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부모와 보호자 역시 콘텐츠에 대한 기대에 근거해서 프로그램 콘텐츠가 어린이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책임이 있다.

오후 9시는 제한시청시간대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 변화가 급격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 제작자와 편성책임자는 채널 성격과 시청자 기대를 고려해야 한다. 가장 수위 높은 프로그램은 더 늦은 시간대에 편성되어야 한다. 톤의 갑작스런 변화가 불가피한 경우 성적인 장면, 폭력 혹은 거친 언어의 사용에 관한 분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실을 분명히 공지해야 한다.

4.7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시청자에게 적합해야 한다. 이른 저녁 시간대 프로그램일수록 어린이가 어른 없이 혼자 시청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오후 9시 이전의 늦은 저녁 시간대 프로그램은 유아가 어른 없이 혼자 시청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을 벗어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 명확한 콘텐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연사(history) 프로그램이나 9시 이전 뉴스 프로그램의 아이템에서 어린이가 고통스럽다고(distressing) 여길 수 있는 이미지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며,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예외를 원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4.8 제한시청시간대에 걸쳐 있는 프로그램, 즉 오후 9시 이전에 시작해 9시 이후 시간대에 끝나는 프로그램은 통상 제한시청시간대 이전 콘텐츠 기준을 따라야 한다.

4.9 콘텐츠의 적합성에 대해 필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어느 채널로 방송할 것인지, 그리고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에 방송할 것인지 이후에 방송할 것인지를 제작과정에서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당초 예정된 채널이나 송출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특히 제한시청시간대 이후가 아닌 이전에 방송하기로 하는 경우, 유해와 불쾌감 유발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 특히 거친 언어와 전반적 어조와 관련하여 상당 분량 재편집이 요구될 수 있다.

감수책임자, 위탁책임자 및 제작팀은 채널과 송출 시간(제한시청시간대 이전이든 이후이든)에 따라 시청자 기대가 이미 상당히 정해져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작 과정에서 가능한 한 빨리 프로그램 편성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0 BBC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상호작용 콘텐츠(interactive contents)는 제한시청시간대를 준수해야 하며, 연관 프로그램의 시청자에게도 적합해야 한다.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며 제한시청시간대 이전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는 상호작용 콘텐츠는 항상 제한시청시간대 이전 콘텐츠 기준을 따라야 한다.

텔레비전 뉴스

4.11 뉴스의 속성상 오후 9시 이전에 일부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BBC의 국제뉴스 채널은 통상 제한시청시간대 규정을 따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국제뉴스는 세계도처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생방송되기 때문이다. 적절한 경우, 곤란한 이미지, 특히 어린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이미지가 있음을 알려주는 분명하고 시기적절한 콘텐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라디오 편성

4.12 라디오에는 제한시청시간대가 없다. 라디오 편성 각각의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 기대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어린이의 청취 가능성이 특히 높은 시간이 언제인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청취하는 시간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은 통상 아침 등교 시간과 오후 하교 시간 또는 학교 휴일이다. 예상 밖의 혹은 도발적 내용은 부당한 불쾌감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4.13 낮 시간대 주류 시청자에게 부적절할 수도 있는 거친 언어나 폭력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음악은 통상 편집해서 방송해야 한다. 밤 시간대와 전문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원곡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편집상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치를(예를 들어 공지 및 콘텐츠 정보 제공) 취해야 한다.

4.14 라디오4, 라디오5 라이브, 월드 서비스를 비롯한 민족 권역 및 지역 방송국 같은 스피치 서비스에서가 아니면 듣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곤란하거나 논쟁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방송공지를 사용해 제공할 것이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것들은 주로 성인 청취자 대상 서비스이며 그 청취자들은 편성 전체에 걸쳐 모든 범위의 이슈와 사건에 대한 심층 내용을 듣게 되기를 기대한다.

온라인

4.15 온라인에는 제한시청시간대에 직접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

BBC 홈페이지에서 즉각 접근 가능한 콘텐츠는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시청자에 적합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즉각 접근 가능한 콘텐츠는 통상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시청자에게 적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BBC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성격은 특정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에 근거해야 하고, 상당수의 어린이가 선호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사용자 제작 콘텐츠, 외부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 외부 웹사이트와의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상 못한 도발적인 콘텐츠, 특히 어린이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콘텐츠는 부당한 불쾌감 유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라벨로 표시되어야 한다. 콘텐츠 라벨링은 명확하고 사실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적절하게 노골적이어서는 안 된다. 시청자가 BBC 홈페이지나 기타 연결된 페이지를 경유하는 외부 웹사이트를 따라가다가 도전적인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

4.16 수용자의 기대는 콘텐츠가 등장하는 플랫폼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연결된 온라인 콘텐츠는, BBC가 제작한 것이든 사용자가 제작한 것이든 관계없이, 해당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 예상 시청자에게 적합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기반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대한 기대는, 동일 콘텐츠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방송될 때는 달라질 수 있다.

4.17 BBC 사이트에서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할 때, 링크를 설치하기 전에 외부사이트의 콘텐츠를 확인해야 한다. 방문을 추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 분명한 외부사이트와는 링크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논쟁적인 자료와 링크되어 있는 경우 BBC가 그 자료에 책임이 없음을 밝히거나, 부가적 정보를 덧붙이는 것이 적절하다.

어린이 대상 BBC 웹페이지는 일반 시청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가진 외부 페이지하고만 연결되어야 한다.

어린이 대상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연계된 BBC 웹사이트는,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결된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상호작용 서비스 담당 책임자들은 링크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프로그램 예고방송의 편성

4.18 어린이 포함 일반 시청자에게 부적합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예고 방송은 주의 깊게 편성되어야 한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바로 이어서 혹은 어린이 시청 가능성이 특히 높은 시간대 또는 상당수 어린이가 좋아할 것 같은 온라인 콘텐츠에 편성된 예고 방송은 어린이 시청자에게 적합해야 한다.

제한시청시간대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 방송이 오후 9시 이전에 나가는 경우 어린이 포함 일반 시청자에게 적합해야 한다.

생방송 프로그램

4.19 프로그램 생방송의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그리고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

언어

4.20 거친 언어 표현의 영향은 단어의 선택, 화자 그리고 맥락에 따라 다르다. 세계 지역이나 지역 공동체 별로 서로 다른 단어가 서로 다른 정도의 불쾌감을 야기한다. 개인의 나이, 성별, 교육, 고용상태, 신념, 국적, 거주지 이 모든 것이 그가 불쾌감을 느낄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거친 언어 표현은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어디서 방송되든지 시청자 기대에 맞도록 적절하게 공지되어야 한다.

거친 언어가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는 편집상의 목적 없이 사용될 때이며, 그리고 다음의 경우도 포함된다.

- 성적 욕설
- 인종차별적이거나 민족차별적인 말
- 성적이거나 성차별적인 혹은 성정체성(sexuality)에 관한 욕설
-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경멸적인 말
- 성스러운 이름이나 종교적 단어를 부주의하게 또는 경멸적으로 그리고 특히 다른 거친 언어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

4.21 프로그램 감수책임자와 프로그램 혹은 콘텐츠 제작자는 거친 언어, 특히 매우 거친 언어(strongest language)는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전에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숙고하고 적절한 상의

를 거쳐야 한다.

거친 언어가 수용 가능할지 아니면 부당하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일지를 결정하는 핵심은 프로그램의 맥락과 어조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어떤 언어가 사용되었으며, 누가 사용했으며, 누구에게 말한 것이며 왜 그 말을 했는가.
-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어조가 화가 났거나 공격적이었는가 아니면 매력적이고 재미있었는가? 같은 표현이라도 전달되는 톤이나 그 말을 사용하는 캐릭터나 인물에 따라 불쾌감 유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 콘텐츠가 텔레비전과 라디오 편성 혹은 온라인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는가.
- 거친 언어 표현을 담은 도발적인 콘텐츠의 질은 시청자의 수용가능성과 수용불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거친 언어라도 진정성 있거나 프로그램 내에서 명백한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경우 수용 가능할 수 있지만, 편집상의 정당한 목적 없이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은 시청자가 싫어한다.

4.22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이나 어린이가 청취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라디오 시간대, 혹은 상당수의 어린이가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 매우 거친 언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4.23 또한 제한시청시간대 이후의 매우 거친 언어 사용에 대해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하며 그것을 분명하게 공지해야 한다. 매우 거친 언어표현(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속어, F-word 및 그 변형어)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할 경우 관련 프로그램 감수책임자와 상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수책임자는 편집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편집수석고문의 자문도 구할 수 있다.

4.24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이나 어린이가 청취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라디오 시간대, 혹은 상당수의 어린이가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서 맥락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친 언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빈번한 사용은 피해야 한다.

4.25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불쾌감을 유발하는 거친 언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취학 전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4세 이하)
- 어린이용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거친 언어의 삐 소리 처리

4.26 일반적으로 거친 언어가 콘텐츠의 일부로 통합되어 있고 편성 시간과 채널 관련 문제가 해결된 경우, 그것을 위장해서는 안 된다. 콘텐츠의 한 부분(a section)이 편집상 정당하지만 방송시간, 채널 또는 맥락이 거친 언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심지어 제한시청시간대 이후라도 언어를 편집하거나 삐 소리 처리할 수 있다.

제한시청시간대 이전 콘텐츠에서 삐 소리 처리되는 언어는 완전히 알아들을 수 없어야 한다. 또한 삐 소리 처리된 언어가 무엇인지 입모양으로 알아볼 수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폭력

4.27 시청자, 특히 어린이는 실제 폭력 장면 및 가상의 폭력 장면 묘사에 놀라거나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 프로그램에 폭력을 포함하려고 할 때는 매우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 사회 일반에서의 폭력 및 미디어에서(사실기반 콘텐츠와 픽션 콘텐츠 모두) 묘사된 폭력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폭력의 묘사에는 편집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폭력적인 내용의 콘텐츠는 통상 명백하게 공지되어야 한다. 실생활의 폭력이나 그 여파가 텔레비전에 방송되거나 라디오나 온라인에 보도될 때, 정확성에 대한 요구와 [폭력에 대한] 둔감화(desensitisation) 또는 부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위험 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죽음의 순간을 방송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편집상의 판단을 할 때는 사실기반 콘텐츠든 픽션 콘텐츠든 폭력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수많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사실적이고 개인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폭력. 예를 들어 가정 폭력, 술집의 싸움, 축구 경기장의 난동, 길거리 난투극, 노상강도 등
- 통상 안전한 장소로 생각되는 곳에서의 폭력, 이를테면 가정이나 병원에서의 폭력
- 특이하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거나 죽이는 것
- 여성과 어린이, 취약계층이 피해자가 되는 사고
-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가해자가 겪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폭력
- 성폭력
- 언어폭력과 어조, 특히 매우 거친 언어 및 차별적이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어의 사용
- 자살, 자살시도 또는 자해
- 폭력에 대한 타인의 반응, 특히 어린이의 반응을 방송하는 것
- 분위기 있는 음악, 슬로 모션, 생생한 클로즈업과 사운드 효과 같은 후반작업 기법들
- 지속적인 위협 또는 가차 없이 어두운 톤

4.28 개별 프로그램 또는 편성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에서 명백한 편집상의 사유가 없는 한, 폭력, 위험하거나 심각하게 반사회적인 행동, 또는 그러한 행동을 모방하도록 부추기는 자료를 묵인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폭력과 어린이 보호

4.29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이나 어린이가 청취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라디오 시간대, 혹은 상당수의 어린이가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서 방송되는 폭력, 폭력의 후유증, 폭력 관련 묘사는 예상 시청자에게 적합해야 하고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4.30 강력한 편집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이나 어린이가 청취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라디오 시간대, 혹은 상당수의 어린이가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서 어린이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방식으로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동물에 대한 폭력

4.31 시청자, 특히 어린이는 인간이 동물에 폭력을 가하는 영상이나 장면에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장면이 생생하지만 그 동물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방송이나 온라인 공지 또는 화면 설명을 통해 그렇다고 고지해야 한다.

드물지만 투우, 투계 및 기타 유사한 행위를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을 방송할 때는, 비록 그러한 행위가 합법적인 나라에서 녹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방송하려고 할 때는 근관치료(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위협이나 모욕적 언사

4.32 BBC 콘텐츠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위협, 모욕, 침해, 공격, 비하적 표현은 모두 인간 행동의 한 측면으로, BBC 프로그램에서 토론되거나 포함될 수 있다. 어떤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잔인할 수 있다. 그러나 (허구적 인물이나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을 향한 부당하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이고 거슬리며, 공격적이거나 비하적인 언사를 오락 목적으로 찬양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표현과 그 표현이 전달되는 어조가 그 대상(target)에 비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알몸 노출

4.33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이나 상당수의 어린이가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서 알몸을 노출하거나, 어린이가 청취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라디오 시간대에 알몸 노출을 암시하는 것은 맥락상 정당화 되어야 한다. 실제이든 암시된 것이든 알몸 노출은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한시청시간대 이전, 특히 콘텐츠 정보를 담지 않은 홍보성 자료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행위

4.34 모든 BBC 프로그램에서 성행위 장면의 묘사나 성 관련 이슈는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적절하고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한시청시간대 이후 콘텐츠에서 우리는 솔직하고 사실적인 성관계 묘사나 일부 사람이 불쾌하다고 여길 수 있는 주제와 사안에 대한 탐구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4.35 16세 미만의 어린이 혹은 청소년과 성인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BBC의 어느 서비스, 어느 시간대에도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4.36 제한시청시간대 이전 프로그램이나 어린이가 청취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라디오 시간대, 혹은 상당수의 어린이가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서 성행위 묘사나 성적 대화는 편집상 명백하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예상 시청자에게 적합해야 하고 노골적이어서는 안 된다. 명백한 콘텐츠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제한시청시간대 이전 프로그램이나 어린이가 청취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라디오 시간대, 혹은 상당수의 어린이가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진지한 교육적 목적이 없는 한 성교행위를 묘사하거나 재현해서는 안 된다.

4.37 시청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시청자가 우리 콘텐츠에서 자신의 고민을 논의하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 지원 자료(support material)가 요구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지원 자료에는 다양한 관련 웹사이트 주소와 권위 있는 전화상담서비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다.

인물 묘사

4.38 우리는 BBC 서비스 내에서 영국 사람과 영국 문화의 모든 것을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콘텐츠에 따라서 영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편견과 단점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영속화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 장애, 연령, 성적 정체성, 신념, 인종 등에 대한 언급이 인물 묘사에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BBC는 고정관념적인 가정을 피해야 하며, 편집상 정당화될 때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묘사할 수 있다.

4.39 시청자 기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코믹한 효과를 위해 스테레오타입을 과장하여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BBC는 부주의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스테레오타입에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음주, 흡연, 본드 흡입 및 불법 마약

4.40 BBC는 사람들의 다양한 태도와 행동을 사실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과 그것이 잠재적으로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특히 어린이 사이에 장려할 수 있는 위험 간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

4.41 불법 마약의 사용, 약물 남용, 흡연, 본드 흡입 및 음주 과다는

- 강력한 편집상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에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 일반적으로 다루지 말아야하며, 제한시청시간대 이전 프로그램 혹은 어린이가 청취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라디오 시간대, 또는 상당수의 어린이가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서 편집상 정당한 이유 없이 묵인, 권장 혹은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보거나 듣거나 사용하기 쉬운 기타 콘텐츠에서 편집상 정당한 이유 없이 묵인, 권장 혹은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4.42 우리는 또한

- 스튜디오 토론이나 채팅 쇼 프로그램 출연자가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불법 마약 사용, 본드 흡입 및 약물 남용, 흡연 및 음주 과다의 모든 측면은 적절한 정확성을 갖고 다루어야 한다. 적절한 정확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기에는 이를테면 불법 마약의 사용과 폭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반사회적 측면이 포함된다.
- 보도의 법적, 사회적 맥락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 편집상 명백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본드 흡입 및 마약 사용 방법을 노골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4.43 아카이브 콘텐츠가 흡연, 음주, 약물 남용, 불법 마약 사용에 대한 현재의 기준이나 태도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역

사적 맥락과 진실성(integrity)이 충분히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콘텐츠는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이 공지되어야 하고, 그것이 현재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살, 자살 기도, 자해 및 식이 장애

4.44 드라마에서든 사실기반 프로그램에서든 자살, 자살기도 및 자해를 묘사할 때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살, 자살기도, 자해에 대한 사실적 보도나 허구적 묘사는 취약층(the vulnerable)에게 그런 행위가 가능이 가능하고 심지어 적절한 것으로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4.45 교수형 장면, 자살 묘사, 자살기도나 자해 장면을 방송하고자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편집수석고문과도 상의해야 한다.

명백한 편집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자살이나 자해 방법을 사용 방법을 노골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46 언어의 신중한 사용 역시 중요하다. 자살은 1961년에 범죄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자살을 '범하다(commit)'라고 말하면 일부 사람은 불쾌하게 여긴다. '목숨을 버리다(take one's life)' 혹은 '자신을 죽이다(kill oneself)'라는 표현이 대안으로 선호된다. 프로

그램이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전화상담서비스나 지원 자료를 링크로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자선단체인 <사마리아인>은 프로그램 제작자 및 기타 콘텐츠 제작자에게 자살의 묘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며, 방송사 대상으로 자체 안내책자를 발행한 바 있다.

4.47 사실기반 콘텐츠나 픽션 콘텐츠에서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상태를 묘사할 때도 주의가 요구된다. 제작진은 취약층 특히 어린이가 묘사된 행위와 기법을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콘텐츠가 예상 시청자에게 책임감 있고 적절한 것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서비스나 지원 자료가 링크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방 행동

어린이와 위험한 모방

4.48 어린이는 보고 듣고 읽은 것의 영향을 받는다. 어린이가 위험한 방식으로 쉽게 모방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이나 어린이가 청취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라디오 시간대, 혹은 상당수의 어린이가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서 다루지 말아야 한다.

4.49 위험한 모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 특히 폭력적 행위에서 가정 내 도구(이를테면 주방용 칼, 망치, 가위 등)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콘텐츠는 편집상

강력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 대상 사실기반 프로그램은 기법이나 실험 등을 어린이가 모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50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이나 어린이가 청취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라디오 시간대, 혹은 상당수의 어린이가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서 암벽 등반, 스노우보딩, 급류 타기와 같은 위험한 활동을 묘사할 때, 전문가의 지도 없이 모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가 시각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관련이 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편집상 이유가 없는 한, 제한시청시간대 이전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혹은 상당수의 어린이가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온라인 콘텐츠에서 통상 이러한 활동을 묘사할 때는 정확한 안전 절차를 보여주어야 한다.

안전

4.51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편집상 이유가 없는 한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진행자, 배우, 출연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어린이용 카시트를 정확히 고정하며, 충돌 방지 헬멧과 올바른 모바일 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4.52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편집상 이유가 없는 한 가능하다면 언제나 안전 장비의 상식적 사용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DIY 활동시 시력 보호 장비 사용, 스포츠나 레저 활동(특히

사이클, 스케이트보드, 수상 스포츠와 같이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 활동)에서 적절한 복장 및 보호모 착용이 포함된다.

비극적 참사

4.53 비극적 참사의 여파로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편성 변경 또는 웹페이지의 변경 내지 삭제가 요구될 수 있다. BBC는 해당 사건에 비추어 일반적 수용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정당화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없는지 프로그램을 계속 살펴보아야 한다. 열차 충돌, 폭탄 테러, 어린이 유괴 사건과 같은 비극적 참사의 기념 방송 역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유사한 세심함을 요구한다.

최면술, 악령 퇴치, 비술 및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최면술

4.54 1952년 <최면술 법>은 공중의 오락을 위해 최면술을 실시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동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최면술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공중이 참가한 오락 프로그램에서 또는 오락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실시되는 최면술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최면술을 사용하는 것에 관련하여 유해나 잠재적 유해의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BBC는 예민한 시청자, 청

취자 혹은 온라인 사용자가 최면에 유도되거나 부정적인 반응 보일 위험성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최면술사가 최면을 유도하는 말 전체를 방송하거나 직접 카메라를 바라보며 최면술을 실시하는 것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누군가를 놀리기 위한 최면술 행위는 오락 프로그램에서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것은 시청자에게 유해하면서 동시에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최면술을 실시하는 모습을 방송하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 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악령퇴치, 비술 및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4.55 악령 퇴치, 비술, 초과학적 현상, 점술 혹은 유사한 행위의 어떤 측면을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우리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악령퇴치나 비술의] 시연은 제한시청시간대 이전 프로그램이나 어린이가 청취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라디오 시간대, 혹은 상당수의 어린이가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서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상당수 어린이가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라디오를 청취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가능성이 특히 높을 때 오락적 목적으로(드라마, 영화, 코미디는 제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위(practice)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

4.56 악령 퇴치, 비술, 초과학적 현상, 점술 혹은 관련된 행위를 사실기반 프로그램에서 보여줄 때는 언제든지 프로그램에 적절한 객관성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오락 프로그램에서 그것은 분명하게 라벨로 표시되어야 한다. BBC의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시연은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을 내릴 것을 권하는 건강, 재정, 고용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플래시 이미지, 스트로빙 그리고 지속시간이 매우 짧은 이미지

플래시 이미지, 스트로빙 그리고 광감수성 간질

4.57 광감수성 간질 증세가 있는 시청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콤 방송규정> 2.12에 언급된 오프콤 가이던스를 따라야 한다. 이 가이던스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를테면 프레스 이벤트나 생방송 뉴스보도에서처럼 플래싱 콘텐츠를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이 편집상 정당화될 때는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이 시작될 때 구두로, 그리고 적절하다면 텍스트로 경고해야 한다.

송출 심사부의 기술적 확인 사항을 통과하지 못한 녹화 프로그램에서 플래싱 이미지(flashing image)나 스트로빙 시퀀스(strobing sequence)를 포함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 프로그램 감수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속시간이 매우 짧은 이미지

4.58 시청자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혹은 완전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시청자나 청취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정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기법에는 지속시간이 매우 짧은 영상 이미지가 포함된다.

자신의 콘텐츠에 그러한 기법을 포함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 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그는 편집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외부조달 프로그램

4.59 외부에서 조달된 프로그램은 「피해와 불쾌감 유발」에 관한 BBC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BBC는 방송하기 전에 해당 콘텐츠가 예상되는 시청자에게 적합한지 점검해 야 한다. 영화 등급은 단지 가이드일 뿐이고 '18세 등급'으로 분류된 영화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어떤 서비스에서든 오후 9시 이전에는 방영되지 말아야 한다.

4.60 우리는 통상 영국 영화등급위원회(BBFC)가 등급 부여를 하지 않은 영화나 프로그램은 방송하지 않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오프콤 방송규정> 제1절을 참고하라.

BBC는 영화등급위원회가 등급 부여를 하지 않은 영화나 프로그램의 클립을 정당한 편집상 이유 없이 방송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 Privacy

1. 서론

BBC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프라이버시가 작동하고 있는 세계 어디서든, 상당한 이유 없이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다. 1998년 <인권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에 대한 사적 정보를 보호하지만 그것이 방송사의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오프콤 방송규정>은 "프로그램에서 혹은 프로그램에 포함된 자료 획득과 관련해서 어떤 프라이버시의 침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8.1)"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윤리적, 규범적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와 공익을 위한 정보를 방송할 권리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BBC는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정당한 이유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두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법적인 기대가 있는 곳에서 자료의 **취재**와 **방송** 두 단계에서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법적 기대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합법적 기대는 장소와 정보와 행동의 성격, 그리고 해당 정보가 이미 공적영역에 속해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공인은 어떤 상황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법적 기대가 낮을 수 있다.

장소: 공공장소나 준-공공장소(semi-public places)에서는 자신의 거주지나 기타 민감한 장소에서와 동일한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준-공공장소란 공항, 기차역, 쇼핑몰처럼 사유재산이지만 대중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그러나 장소는 행위와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공공장소나 준공공장소라 하더라도, 특히 노출되고 있는 행위나 정보가 본질적으로 사적인 것일 경우 합리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공장소나 반-공공장소에서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통상 공적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가 낮은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상품 판매(sales pitch)나 공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BBC는 통상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의 없이 개인의 집이나 가족이 있는 정확한 장소를 노출시키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행동: 개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이거나 심각하게 반사회적 행위인 경우 프라이버시 권리는 약화된다.

공익

사적인 행위, 정보, 통신 및 대화는 프라이버시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공익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적영역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공익에 대한 단일한 정의는 없다. 공익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범죄를 폭로하거나 탐지하기
- 심각하게 반사회적 행동을 폭로하기
- 부패나 부정을 폭로하기
- 심각한 무능이나 태만을 드러내기
-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 어느 개인이나 조직의 특정 언술이나 행위로 인해 대중이 오도되지 않도록 하기
- 공적 중요성을 갖는 문제를 대중이 더 잘 이해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를 폭로하기

표현의 자유 자체도 역시 공익이다.

공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는 이미 공적영역에 속하는 정보나 조만간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공익을 사용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정당화할 때는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즉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가 클수록 그것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공익 역시 커야 한다.

데이터보호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은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을 규제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데이터보호법 하에서 BBC의 의무는 제작 가이드라인 본 7절 및 BBC가 공지한 기타 가이드라인(데이터 보안 실무 가이드라인과 『데이터보호 핸드북*Data Protection Handbook*』)에 적절하게 담겨 있다.

2. 원칙

2.1 BBC는 표현의 자유를 통한 공익과 개인의 합법적 프라이버시 보호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비밀 녹음이나 불시방문(doorstepping) 등 취재 과정에서 프라이버시의 합법적 기대를 침해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그에 비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2 인간적 고통이나 슬픔과 관련된 스토리를 완전하고 상세하게 보도할 때의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간 존엄성의 보호라는 측면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3 동의 없는 개인의 사생활 침범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생활에 비해 공익이 명백히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2.4 통상 공인들의 사적 법률 행위로 인해 공적 이슈가 제기되거나 행위 결과가 널리 알려진 경우에만 해당 사적 법률 행위를 보도한다. 타매체가 공표한 사실 자체는 BBC 보도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2.5 출연자, 시청자 및 기타 대중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는 IPC (Information Policy and Compliance)에서 공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3. 의무적 상의

(의무적 상의란 BBC의 편집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이는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편집정책/기준국장과의 상의

3.1 영국 이외의 나라에서 프라이버시나 기타 유사한 법률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려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법무팀의 자문도 구할 수 있다.

3.2 사유재산인 장소 내에서 소유자, 점유자 혹은 대리인의 동의 없이 눈에 안 띄는 녹음/녹화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법무팀의 자문도 구할 수 있다.

3.3 코미디나 오락 목적의 생방송에서, 대면 접촉이든 전화든 상대방의 사전 인지 없이 사람들을 방송에 담으려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3.4 당초 노트 기록 목적으로 제작된 제반 녹음/녹화(전화 기록 포함)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려고 하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사전에 인터뷰 약속을 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 접촉이든 전화를 통해서든 개인이나 단체를 불시에 취재(doorstepping)하려고 할 때('사전 접촉 없는 불시 취재')는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일 뉴스 취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편집부와의 상의

3.6 비밀 녹음/녹화하려는 경우 부서의 관련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의 승인에 앞서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3.7 타인이 수행한 비밀 녹음/녹화 내용을 방송하려는 경우 부서의 관련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의 승인

에 앞서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만약 유사한 상황 하에서 BBC가 자료를 취재하는 것이 정당치 못하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3.8 BBC 웹사이트 혹은 플랫폼에 이벤트 스폰서가 제공한 라이브 웹캠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는 편집부 및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3.9 출연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요청하려는 경우 편집부 및 프로그램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기타상의

3.10 비밀녹음이나 녹화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만(녹음이나 녹화 장치의 은닉 이상인 경우)은 관련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3.11 비밀 녹음이나 녹화의 내용을 재사용하려는 경우 관련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그 결정에 대한 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3.12 BBC 사이트나 플랫폼에 외부의 웹캠 전송 자료를 게재하려면 관련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그는 편집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13 인터뷰 약속을 정하기 위한 사전접촉이 있었던 경우 대면접촉 혹은 전화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를 불시에 취재하려고 할 때('사전 접촉이 있는 불시취재')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3.14 코미디와 오락 목적으로 대면 접촉 혹은 전화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를 현관 방문 하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BBC의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로 제3자(BBC 월드와이드 포함)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때에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고, 이들은 정보정책실(IPC, Information Policy and Compliance)과 BBC 공정거래실(BBC Fair Trading)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 실천

프라이버시와 동의

4.1 출연자가 사전설명을 듣고 BBC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경우, 협의된 조건에 따라 출연과 관련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일정 정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2 비밀 녹음/녹화 행위를 승인받지 못한 경우 어느 장소에서든 공개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이 점은 특히 소형 영상 카메라, 모바일 폰 카메라는 물론 고정된 웹캠의 경우처럼 눈에 잘 띄지 않을 때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가 녹음/녹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피할 수도 있도록 공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4.3 공공장소와 준-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촬영할 때 일반적 장면의 일부로 어떤 개인이 카메라에 우연히 찍힌 경우,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프라이버시의 기대가 그들을 보여주는 공익의 측면보다 적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BBC 제작진은 통상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이유로 촬영이나 녹음/녹화(생방송이건 아니건 관계없이)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 편집상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중지해야 한다.

4.4 민감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 구급차, 병원, 학교 및 교도소에서는 통상 별도로 두 가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나는 자료 수집에 대한 동의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에 대한 동의이다. 동의를 얻지 않아도 정당화되는 이유가 있다면 예외이다.

4.5 BBC는 통상 사유지에서 녹음/녹화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다. 그러나 공중이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장소(이를테면

쇼핑몰, 철도역, 공항 등)이거나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의 노출이 예상되는 장소인 경우 사전 동의 없이도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 사유지나 준-공유지의 소유자, 법적 점유자 혹은 당국자가 촬영 중단을 요청하면 편집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통상 그렇게 해야 한다.

만약 사유지의 법적 소유자가 그 장소를 떠나 줄 것을 요청하면 통상 그렇게 해야 한다. 제작자는 불법침입에 관한 법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접근하면 민사상 권리침해에 해당될 수 있지만, 통상 경찰이 개입할 사안(police matter)은 아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를 경우는 법무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어린이와 취약층

4.6 우리는 16세 이하와 취약층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합법적 프라이버시 기대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때, 통상 가급적 그들에게 사전설명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한 부모, 법적 후견인 혹은 18세 이상의 부모 역할 대리인에게 사전설명을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3자(외부인)

4.7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적 정보를 폭로하는 콘텐츠에 의해 언제든

침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가 아직 공적영역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혹은 단지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로 인해 공적영역에 노출된 경우) 관련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보다 더 큰 공익이 없는 한 관련 개인에게 사전 설명을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 자료

4.8 대중이 이미 접근 가능한 외부 소셜 미디어와 기타 웹사이트 자료(특히 사진과 영상)는 공적영역에 속한다고 간주될 수 있지만, 그 자료를 BBC가 재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다. 우리는 재사용이 미치는 영향을(특히 비극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사건의 경우)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비밀녹음/녹화

4.9 BBC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밀 녹음/녹화의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몰래 카메라와 마이크로폰 사용
- 망원렌즈, 소형 비디오카메라, 모바일 폰 카메라, 웹캠, 무선 마이크로폰 등 촬영 대상자가 녹음/녹화된다는 사실을 통상 알기 어려운 장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망원렌즈, 소형 비디오카메라, 모바일 폰 카메라, 웹캠, 무선 마이크로폰 등의 녹음/녹화 장비를 의도적으로 사용하

면서 그 대상에게 장비를 노출시키지 않거나 방송이 아닌 다른 목적(예를 들어 휴가 비디오)으로 녹음/녹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

- 허락 없이 방송 목적으로 전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 상대방은 녹음/녹화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의도적으로 녹음/녹화를 계속하는 경우.

4.10 통상 BBC가 비밀 녹음/녹화를 하는 것은 다음의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조사 도구의 목적으로
  - ○ 폭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행동 또는 그러한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 ○ 녹음/녹화가 그 행동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
  - ○ 그 행동을 증명해줄 증거를 확보할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는 경우
- 영국 이외의 나라에서 그 나라 법률상으로 정상적으로 책임 있는 자료 수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 공익을 위한 과학적 혹은 사회적 연구를 위해 소비자 관련 조사를 수행할 때 기타 방법으로는 소비자의 태도와 행위를 자연스럽게 포착하기 힘든 경우
- 비밀 녹음/녹화 및 기만 자체가 프로그램의 일부인 코미디와 오락물

비밀녹음/녹화의 승인

4.11 비밀 녹음/녹화를 하려고 할 때는 각 부서의 해단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의 승인에 앞서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비밀 녹음/녹화 자료의 수집 및 방송은 언제나 두 단계의 과정이며, 각 단계에서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료수집 결정은 언제나 방송 송출 여부 결정과는 별도로 내려진다.

비밀 녹음/녹화 요청이 거부되거나 수집된 자료가 방송되지 않더라도 승인 과정은 기록해두어야 한다. 각 부서는 부서별 비밀 녹음/녹화 기록을 BBC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모니터하고 그 사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관할 책임이 있다.

비밀 녹음/녹화 자료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녹음/녹화 장치를 감추는 것 이상의) 속임수는 필요한 최소에 그쳐야 하며, 주제에 비례해야 하고 관련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영국 외부에서 비밀 녹음/녹화를 하려고 할 경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률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영국 외부에서 해당 국가의 프라이버시법 및 기타 법률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재하려고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법무팀의 자문도 구할 수 있다.

4.12 비밀 녹음이나 녹화의 내용을 재사용 하려는 경우 관련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그 결정에 대한 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뉴스 및 사실기반 프로그램 제작용 비밀 녹음/녹화

4.13 비밀 녹음/녹화는 명백한 공익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비밀 녹음/녹화는 다른 방법으로는 시청자가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증거나 행동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BBC의 입장에서 가치 있는 도구이다. 그러나 비밀 녹음/녹화는 통상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비밀 녹음/녹화의 취재 및 송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프라이버시 침해는 공익에 비례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법적 기대가 높은 경우 비밀 녹음/녹화를 하기 전에 BBC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대중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적 장소에서의 비밀 녹음/녹화
- 의학적 치료의 비밀 녹음/녹화
- 공공장소나 준-공공장소에서 슬픔에 빠져 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신원확인 가능한 사람의 비밀 녹음/녹화

4.14 신원 확인이 가능한 개인이나 집단의 범죄 혹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그러한 행동을 찾기 위해 사

유지에서 비밀 녹음/녹화(이것을 '낚시원정(fishing expedition)'이라고 부른다)를 해서는 안 된다.

4.15 심각한 범죄의 증거를 취재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유지에서 소유자, 점유자 혹은 대리인의 동의 없이 비밀 녹음/녹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법무팀의 자문도 구해야 한다.

4.16 비밀 녹음/녹화는 공익을 위한 과학적 혹은 사회적 연구를 위해 소비자 관련 조사를 수행하면서 기타 방법으로는 소비자의 태도나 행위를 자연스럽게 포착하기 힘들 때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개개인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통상 연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조사 결과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편집해야 한다. 우리 콘텐츠에 포함되게 될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통상 차후에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을 밝히고자 할 때는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코미디 및 오락 프로그램을 위한 비밀 녹음/녹화

4.17 비밀 녹음/녹화 자료로 인해 당사자가 심한 조롱을 받거나 부당하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비밀 녹음/녹화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중단을 요청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또한 녹음/녹화 자료의 폐기를 요청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4.18 녹음/녹화에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사람은 자료가 방송되기 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 해야 한다.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에 잡힌 개인의 모습이 방송되어 당사자가 당황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위장 처리를 해야 한다.

4.19 코미디와 오락 목적으로 전화 통화 내용이 비밀 녹음된 당사자의 경우 그 내용이 방송으로 나가기 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4.20 직접이든 전화를 통해서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방송에 등장시키려고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 출처 제공 비밀 녹음/녹화

4.21 타사가 제작한 비밀 녹음/녹화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BBC가 그 녹음/녹화를 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했을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 취재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자료라면 통상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 타사가 제작한 비밀 녹음/녹화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전에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BBC라면 유사한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경우라면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자료를 방송하는 데 있어 공익이 그 획득 방법보다 중요할 때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전자노트 기록

4.22 노트 기록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녹화하는 것이 가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통상 공개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해야 한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노트를 기록하기 어렵고 그것이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비밀 녹음/녹화에 대한 동의나 승인 없이 오디오나 비디오로(이를테면 소형 카메라나 전화 녹음기)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할 수 있다. 그러한 녹음/녹화의 목적은 노트 기록 및 조사이지 방송이 아니다. 편집상 정당한 이유에는 이를테면 보도의 정확성과 프로그램 제작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BBC에 대해 제기될지도 모르는 법적 행위나 불만 사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녹화할 때는 가능하다면 직속 상사와 미리 논의해야 한다.

4.23 BBC는 통상 본래 노트기록 목적으로 만든 녹음/녹화(전화 통화 포함) 내용은 방송하지 않는다. 원래 노트기록 목적으로 만든 녹음/녹화 내용을 동의 없이 방송하려고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취재된 자료를 방송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락된다.

웹캠

4.24 BBC는 명백한 편집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웹캠을

운영해야 한다.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는 웹캠을 제거해야 한다. 웹캠은 소유주의 서면허락 없이 가옥, 정원 혹은 사무실 같은 사적인 공간의 클로즈-업 화면을 잡기 위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서면 허락을 획득하지 못했는데도 그러한 용도로 웹캠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비밀 녹음/녹화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1998년 <데이터 보호법> 및 CCTV에 관한 정보국행동강령(Information Code of Practice)은 웹캠의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정보정책실(IPC)에서 구할 수 있다.

스튜디오 내 웹캠 사용

4.25 스튜디오 내에 웹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프로그램 제작자는 초청손님에게 미리 스튜디오 웹캠이 작동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 영상 녹화를 예상 못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초대 손님에게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 만약 라디오 초대 손님이 웹캠 녹화를 거부하면 BBC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방문객과 직원도 스튜디오 내에 웹캠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작자는 웹캠에서 웹사이트로 곧바로 생방송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마스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BBC 스튜디오가 아닌 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웹캠 피드에 대해서는 동일한 정책이 적용된다. BBC 구내에서의 웹캠 사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정보보안국(IS, Information Security)에서 구할 수 있다.

공공장소 및 준-공공장소에서의 웹캠

4.26 BBC가 공공장소나 준-공공장소(대중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웹캠을 설치하고, 웹캠이 해상도가 충분히 높은 수준의 세부사항을 전송해주어서 웹캠에 찍힌 개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때는 공중에게 웹캠이 작동 중임을 경고하는 적절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생방송 행사(외부 방송이든 혹은 이와 유사한 방송이든) 개최 장소의 외부에서 웹캠에 관한 일련의 정보를 포스터나 티켓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웹캠이 공공장소(길거리나 공원 같은)에 있다면 웹캠 근처에 분명한 경고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웹캠 자료에서 개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면 카메라로 촬영될 수 있다고 경고할 필요가 없다.

CCTV, 웹캠 그리고 기타 외부 자료

4.27 외부인이 제공한 녹음/녹화 자료 및 생방송 피드는 프라이버시, 정확성, 익명성, 명예훼손, 법정 모독이나 데이터 보호 등과 관련된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한 자료에는 긴급구호 서비스 기관(긴급전화 999 포함), 관세청(Customs and Excise) 및 기타 공적 기관, 단체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CCTV 자료나 웹캠, 녹음/녹화 자료가 포함된다.

외부 정보원과 이미 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자료를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해당 자료

의 방송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료의 출처를 파악하고 관련 프라이버시 이슈(그것을 비밀 녹음/녹화로 볼 수 있을 것인지 포함해서)를 검토해야 한다.

4.28 제3자의 웹캠 피드를 BBC 사이트나 플랫폼에 게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고, 그는 편집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BBC 웹사이트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모든 웹캠에 대해 우리는 편집권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편집 독립성을 보호하고 우리 웹 사이트에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유해하거나, 공격적이거나 혹은 부적절한 판촉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제 3자의 라이브 콘텐츠가 BBC 사이트에 등장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사전에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BBC는 웹캠, 촬영, 주제 및 포맷 등의 출처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시민 단체에서 받은 자료나 도시 스카이라인의 스틸 촬영 등은 적절한 보호 장치만 갖추면 허용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벤트 후원자에게 받은 라이브 영상 스트립을 방송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적으며, 그렇게 하려고 할 경우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4.29 그 소유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웹캠이나 피드의 결과물을 모니터하는 편집상의 책임은 BBC에게 있다. 모니터링의 수준은 카메라의 콘텐츠에 적절해야 한다. 제작자는 통상 필요한 경우 라이

브 웹캠의 전송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통상 교통 웹캠이 보내온 화면은 경찰이나 기타 책임 있는 당국자가 적절한 기준에 맞추어 영상을 모니터링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모니터하지 않고도 전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불시취재

4.30 불시취재(doorstepping)란 방송을 위한 인터뷰를 하기로 합의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인터뷰 내용이 방송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터뷰 대상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녹음/녹화하거나 녹음/녹화하려고 하는 것 또는 전화 통화가 방송을 위해 녹음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통상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불시취재는 직접 혹은 전화나 인터콤 등으로 이루어지며, 공공장소나 사적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다. 코미디와 오락 뿐 아니라 뉴스와 사실기반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다.

불시취재에 거리 인터뷰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제시하는 불시취재 관련 가이드라인은 일일 뉴스 의제나 조사 목적 혹은 코미디나 오락 프로그램을 위한 정당한 자료 수집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기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전접근 후 불시취재

4.31 관련된 개인 혹은 조직과 인터뷰 약속을 정하려고 시도했을 때, 직접이든 전화로든 불시취재를 하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승인은 범죄나 중요한 범법행위의 증거가 있거나 다음 이유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 해당될 때만 가능하다.

- 인터뷰 대상자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범법행위와 관련된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인터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거부하고, 범법행위에 대한 상당한 혐의를 회피한 경우
- 과거에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인터뷰를 거절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불시취재는 범법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작 스태프의 안전 및 인터뷰 대상자의 가족이나 부하 직원 등 어떤 범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책임이 없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기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전접근 없는 불시취재

4.32 인터뷰 약속을 정하려고 미리 시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나 조직을 직접이든 전화로든 불시에 취재하려고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일일 뉴스 취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승인은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 범죄나 심각한 범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사전 접근할 경우 조사가 좌절되거나 혐의를 회피할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를테면 사전 접근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코미디 및 오락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불시인터뷰

4.33 코미디와 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직접이든 전화로든 불시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터뷰 당사자의 신원을 위장하지 못한 경우 관련 자료가 방송되기 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일 뉴스 취재를 위한 불시인터뷰

4.34 공인을 비롯한 기타 사람들이 뉴스에 등장할 때, 그들은 미디어의 주목 대상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들이 건물이나 공항 등을 출입할 때 사전약속 없이 방송을 위해 질문하고 그들의 답변을 녹음/녹화할 수 있다.

4.35 그러나 뉴스 취재를 위해 미디어 취재진이 다수 집결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미디어 스크럼으로 인한 위협적 상황이 연출되거나 부당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때로타 미디어와 취재 풀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취재진을 철수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

불시취재와 조사

4.36 불시취재에 관한 BBC 가이드라인은 조사요원이 (방송 목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든 직접이든(적절한 경우는 자택에서) 사람들에게 임의 전화(cold call)를 걸거나 임의로(이를테면 길거리 인터뷰)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불시단속 동행(Tag-Along Raids)

4.37 불시단속 동행이란 경찰, 세관, 이민국, 이민국, 환경보건 당국 및 기타 공적 당국의 작전 상황에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 이익이 있고 프라이버시, 동의 및 불법침입 같은 편집 및 법적 이슈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만 불시단속에 동행해야 한다.

사유지에서 불시단속에 동행할 때는 통상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우리가 BBC를 위해 녹음/녹화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주지시킨다.
- 법적 점유자의 동의를 구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녹화를 중단한다.
- 소유자, 법적 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철수한다.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장소이거나 불시단속에 계속 동행해서 녹음/녹화를 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다른 공익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죽음,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도

4.38 사고, 재난, 소요, 개인에 대한 폭력이나 전쟁을 보도할 때 완전하고 정확한 보도의 공익과 피해자의 처지를 배려하고 부당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사이에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세히 묘사할 때는 항상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난이나 긴급구호 현장에 도착한 촬영 스태프는 업무상의 압박감으로 인해 녹음/녹화가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제대로 판단할 겨를도 없이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찍으려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방송 전에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이브 콘텐츠가 필요하고 속보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4.39 방송에서 죽음의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 편집상 정당한 경우는 거의 없다. 언제나 사망자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망자를 불필요하게 보여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 사망했거나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나 심각한 부상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 불필요한 장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40 사망,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통상 사건의 끔찍함을 설명하기 위해 좀 더 생생한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비극의 실상을 전달하고 그 자료에 맥락을 부여해주는 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나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그러한 생생한 자료화면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사건을 현재의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가 되거나 또는 이를테면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화면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편집상 정당화될 수 있다.

BBC의 여러 뉴스 채널에서 생생한 자료화면을 계속 되풀이 사용하는 데 따르는 누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41 어떤 사고나 재난으로 상해를 당했거나 고통을 겪는 사람과의 인터뷰는 통상 당사자의 친구, 친척, 상담사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 당사자에게 인터뷰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 반복적 전화, 전자 우편, 문자 전송, 또는 방문으로 괴롭히는 행위
- 떠날 것을 요청받았는데도 사유지에 계속 머무는 행위
- 당사자가 이동하면 따라다니는 행위

4.42 그러나 보도 내용을 부주의하게 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슬픔에 빠진 표정을 공개하는 것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는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무엇을 방송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사항은 우리가 녹음/녹화하는 사람과 시청자이다. 녹음/녹화에 동의한 경우라면 슬픔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그 희생자나 친척에게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줄 가능성이 적지만, 그러한 장면에 일부 시청자가 당황하거나 분노할 수 있다. 극도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 고통을 보여주는 장면 도입부에 그 장면을 취재한 정황에 대한 설명을 짧게 덧붙이면 시청자의 오해나 불필요한 불쾌감 유발을 방지할 수 있다.

4.43 통상 사적인 장례식에서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만 녹음/녹화가 가능하다. 프라이버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녹음/녹화하는 경우 강력한 공익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사건을 다시 다루는 경우

4.44 육체적 고통 및 외상을 수반한 과거 사건을 조사하려고 할 때는 생존 피해자와 친척에게 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는 그 사건이나 사용하려는 자료가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를 달성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원 사건의 규모와 장소 그리고 사건 발생 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다면 생존 피해자나 프로그램에서 다루려고 하는 사망자의 친인척에게

통상 우리의 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관련자들의 합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작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그들의 반대보다 큰 공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개인정보

4.45 사람들은 BBC를 신뢰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투명해야 한다. IP주소,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단순한 정보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인정보는 이를테면 사람들이 BBC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상호작용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프로그램 출연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때 수집된다.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정보정책실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출연자의 세부 인적사항

4.46 제작부서는 출연자와 출연 예상자의 개인정보를 웹사이트를 경유해 수집해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한다. 이러한 정보는 통상 그 정보를 수집한 제작분야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예외를 두고자 하는 경우 IPC에 상의해야 한다.

4.47 출연자의 세부 인적사항, 논평 혹은 개인정보는 통상 출연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고, 그는 정보정책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동의를 구한 경우라도 제3자는 출연자와 BBC 사이에 합의한 내용 용도로만 정보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4.48 BBC의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며 제3자(BBC 월드와이드 포함)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고 이들은 정보정책실 및 BBC 공정거래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49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때는 확인 가능한 '부모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4.50 경찰 쪽에서 출연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올 경우 편집부 및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쿠키 정보

4.51 쿠키는 컴퓨터 및 기타 장치 사용자의 선호에 대한 기록이다. 사용자 장치의 쿠키 정보를 심을 때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그것을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보다 상세한 조언은 정보정책실에서 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쿠키 정보가 들어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코드를 사용하기 전에 정보정책실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전자우편 전송과 바이러스성 마케팅(viral marketing)

4.52 BBC는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내서는 안 된다(요컨대 스팸 메일을 보내면 안 된다).

홍보, 마케팅, 조사 혹은 기타 2차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려 한다면, 우리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opt-in)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경연에 참여하기 위해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우리 프로그램 홍보 이메일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청자에게 BBC 온라인 콘텐츠를 이메일로 친구에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4.53 가입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가입자의 전자우편 주소가 수신자 목록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54 바이러스성 마케팅[전자우편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옮긴이]은, 특히 개인추천의 방식일 때, BBC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데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마케팅 캠페인을 수행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사용자가 BBC나 BBC 대행사가 발송하는 마케팅 메시지 수신에 명확한 동의를 표시했는지
- 상호작용 온라인 공간(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블로그나 메시지 게시판 등)에서 BBC 콘텐츠를 만들거나 배급하는 마

케팅 담당자는 일반인인척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출처미상 콘텐츠(mystery content)를 배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가 콘텐츠 수용자에게 분명하게 '표시(reveal)'되기만 하면 된다.

- 콘텐츠는 바이러스성 마케팅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일단 전송된 후에는 수신자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실종자

4.55 BBC는 실종자의 친척이나 친구가 제공한 세부 인적사항을 방송함으로써 실종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모든 실종자가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실종자의 입장에서 사적이거나 당혹스럽거나 심리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 보도
Reporting Crime and Anti-Social Behaviour

1. 서론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보도는 BBC의 공익 목적의 일부이며 사실을 맥락 내에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우리 보도에서 우리가 보도하는 방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공익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적절한 행동 기준을 준수하고, 우리 행위가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고, 당국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매우 낮음에도 우리의 보도를 통해 범죄의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2. 원칙

2.1 BBC는 범죄를 고무 또는 유발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명백한 공적 이익이 있는 콘텐츠의 방송을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다.

2.2 범죄 수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나 시연은 불법 행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편집상 명백히 정당화되지 않는 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3 범죄 사실을 보도할 때 희생자 및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의 존중이라는 측면과 범죄 보도에 따르는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2.4 사기 및 무단 침입을 포함해서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탐사보도는 편집상 명백히 정당화되어야 하며, 탐사보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범법행위에 비례하는 공익이 있어야 한다.

3. 의무적 상의

(의무적 상의란 BBC의 편집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이는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편집정책/기준국장

3.1 범죄 행위를 고무 또는 유발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우리 서비스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이 명백한 공익이 있는 콘텐츠의 방송을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다. 해

당 콘텐츠를 방송하는 데 명백한 공익이 있는 경우, 기회가 되는 대로 빨리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심각한 범죄 행위를 목격하거나 특수한 범죄를 기록하는 것이 범죄자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낳을 수 있는 때는 미리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편집정책/기준국장 및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3.3 영국내의 현행범이나 수배자를 인터뷰하려고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3.4 탈옥자나 경찰에 수배중인 사람을 접촉 혹은 인터뷰하려고 할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 및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3.5 범죄자나 전과자,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범죄 관련 (직접 혹은 간접) 인터뷰나 출연의 대가로 비용이나 유사 비용을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3.6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반사회적인 행동를 한 사람 또는 심히 악명 높은 행위를 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에 관한 인터뷰나 기타 출연의 대가로 비용 혹은 유사 비용을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3.7 허가 없이 영국 교도소에 들어가려는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3.8 경찰이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아동 성범죄자나 기타 성범죄자의 이름을 밝히거나 사진을 방송하려고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3.9 영국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사람을 익명으로 다루고자 할 때는 미리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3.10 재판의 증인 또는 증인 출석이 예상되는 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려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 및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3.11 B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전과나 불법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제작팀의 편집 담당자와 위장잠입요원이 포함된다.

3.12 BBC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일하려는 위장잠입요원의 지원 신청은 편집정책/기준국장이 승인해야 한다.

편집부와 상의

3.13 소송이 일단 시작된 후에 증거와 관련해 증인을 인터뷰하려고 할 때는 법무팀 및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3.14 범죄나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위장잠입요원을 투입하려고 할 때는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기타 상의

3.15 제3자의 불법적 동물 학대를 녹음/녹화하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3.16 온라인상 아동유혹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은 어린이 BBC 상호작용서비스 운영관리팀(혹은 상업서비스의 경우 관련 편집책임자)와 즉각 상의해야 하고, 운영관리팀은 그것을 적절한 당국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3.17 해외 교도소에 허가 없이 들어가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그는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할 수 있다.

3.18 방송을 목적으로 수감자가 교도소 내에서 전화를 걸게 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상의를 거치지 않은 수감자가 걸어온 전화를 방송하거나 또는 수감자가 걸어온 전화를 생방송하는 것은 편집책임자와(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그는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19 일단 형사 소송이 시작되고 나면, 18세 미만의 피고 혐의자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방송하기 전에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3.20 범죄 또는 심각하게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탐사에 착수하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편집부나 법무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3.21 위장 감시를 통해 범죄를 탐사하거나 또는 테러리스트, 중범죄자 혹은 극단적이거나 폭력적인 정치 집단과의 대면을 녹음/녹화하기 전에 미리 BBC 고위험안전팀(Safety's High Risk Team)과 상의해야 한다.

4. 실천

범죄 관련 보도

범죄를 고무 혹은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4.1 범죄 행위를 고무 혹은 유발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자료는 BBC 서비스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이 명백한 공익이 있는 콘텐츠의 방송을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한 콘텐츠를 방송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되는 한 빨리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4.2 잠재적 위법 행위나 시민 불복종이 시사뉴스 기사나 공공정책 토론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 편집자는 토론이나 사건을 충분

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책임과 범죄를 고무 혹은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방송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맥락과 설명이 중요하다.

범죄 행위를 단순히 녹음/녹화해서 방송하는 경우, 모방 가능한 세부사항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다면 통상 고무 또는 유발하는 데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 행위를 찬양하거나 미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청자에게 범죄 행위를 직접 요구하거나 도발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마약 사용이나 [훔친 차량으로] 폭주(暴走)하는 것과 같은 불법 행위를 아무 문제가 없거나 멋진 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은 물론 덧붙여 그러한 행위의 부정적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불법 행위의 목격과 묘사

4.3 범죄 행위를 탐사할 때,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특정한 범죄 행위를 녹음/녹화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것이 범죄자와 BBC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또는 심각한 범죄 행위의 목격을 포함하는 경우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편집정책/기준국장 및 법무팀과도 상의해야 한다.

심각한 불법 행위 현장에 있거나 혹은 그 행위를 녹음/녹화하는 것은 명백히 공익에 부합할 때에만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다음 사항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 범죄 행동을 묵과 혹은 방조하는 것
- 그렇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행동을 고무 또는 자극하는 것
- 어떤 방식으로든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

불법 행위를 승인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누구든 기소당할 수 있다. 방송되지 않은 미편집본(rushes)은 물론 우리의 조사 노트, 일지, 전자 우편과 기타 서류는 법원 명령에 의해 경찰에 제출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법정이나 조사위원회 또는 심리조사에 증거로 제시될 수도 있다. 비밀정보원의 신원을 보호하고 법원 명령에 따라 제출될 수 있는 어떤 서류에도 신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4 통상 범죄 수법(이를테면 철사를 사용해서 자동차에 불법으로 시동을 거는 법)은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연하거나 묘사해서는 안 된다.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범할 수 있게 해주는 세부사항을 드러내거나 불법행위를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저지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4.5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위법행위나 잔인하고 반사회적이거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동물학대를 녹음/녹화하는 것이 공익상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4.6 자유 게시판 및 기타 상호작용적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적절한 곳에서 신속하고 견고한 단계적 확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일시적으로 BBC 공간에서 축출해서 '읽기만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거나,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거나 또는 불법 행위가 계획 또는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해당 온라인 공간 편집책임자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4.7 온라인 아동유혹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은 즉각 어린이 BBC 상호작용서비스 운영관리팀(Interactive Executive Management Team)(혹은 상업 서비스의 경우 관련 편집책임자)과 상의해야 하고, 이들은 그 사실을 적절한 관계 당국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4.8 우리는 범죄 보도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보도는 시청자에게 사실을 맥락 내에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매우 낮음에도, 우리의 보도를 통해 범죄의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4.9 범죄/반사회적 행동의 책임자를 인터뷰하거나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극화하는 경우, 이것이 피해 당사자나 그 친척에게 정신적 고통(distress)을 야기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존해있는 희생자, 그리고/또는 사망자의 친척과 접촉해서 제작진의 계획을 알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찰이나 사회복지단체 매개자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해자 그리고/혹은 그의 친척이 관련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와 접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정보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4.10 범죄자에 대한 사실 보도에 자세한 가족사항이 포함될 수 있지만, 가족에게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보도는 피해야 한다. 또한 증거 없이 연상을 통해 유죄를 암시해서는 안 된다.

4.11 과거에 일어난 범죄를 보도할 때, 일부 관련자 - 범법자, 용의자, 증인, 친척이나 피해자 등-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경우 그들의 신원이나 새로운 소재를 어느 정도 밝힐 것인지에 관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카이브 자료

4.12 범죄 및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아카이브 자료의 사용은 주의 깊은 편집상 판단을 요구한다.

재연(reconstruction)

4.13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경찰이 증거 수집 목적으로 연출한 범죄 재연을 보도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은 재판의 판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범죄의 재연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범죄 현장을 다시 방문하거나 피해자나 증인을 인터뷰하는 것 자체는 재연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4.14 사실기반 프로그램은 재연의 사용을 사실정보 전달에만 한정해야 한다. 단지 시청자의 시선을 끌거나 오락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범죄자 및 반사회범을 다룰 때

인터뷰

4.15 영국 내의 현행범이나 수배자를 인터뷰하려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인터뷰는 편집상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를 들어 중요한 정보나 통찰력을 제공할 때만 진행해야 한다.

4.16 범죄자를 인터뷰할 때에는 이것이 범죄의 피해자나 친척에게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4.17 현행범이나 기결수와 인터뷰하는 경우 범죄 행위를 미화하거나, 법정모독 행위를 찬양하거나, 모방범죄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세부사항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4.18 탈옥수나 경찰 수배자를 접촉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을 인터뷰하거나 접촉하려고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 및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4.19 국제적으로 범죄 및 범죄자에 관한 정의는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반체제 인사나 활동가가 범죄자로 정의되지만, 그들과의 인터뷰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영국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출연료 지급

4.20 범죄자나 전과자가 단순히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BBC는 통상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이를테면 해결사나 중개인을 통해) 비용을 지급하거나, 비용 및 유사 비용의 지급을 약속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범죄자와 전과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은 BBC의 명성 및 인터뷰 대상자와 정보원의 신뢰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서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

범죄자, 전과자 그 가족 혹은 동료에게 범죄와 관련한 인터뷰나 기타 출연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 비용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명백히 공익에 부합하는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는 출연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실비 지급이 인정된다. 그런 경우 통상 출연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제 비용이나 수입 손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한다. 이것이 범죄자의 재활을 막거나 기결수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경우의 비용 지급을 막는다는 뜻은 아니다.

4.21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한 자에게 그가 한 행동에 대한 인터뷰나 기타 출연의 대가로 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심히 악명 높은 행위를 한 자로서 비용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통상 출연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유사 비용을 포함해서 비용을 지급하려고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수감자 인터뷰

4.22 영국의 교도소를 방문하여 방송 목적으로 수감자를 인터뷰하려고 할 경우 제작진은 통상 사전에 영국 교도소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 없이 영국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4.23 해외의 교도소를 방문하여 방송 목적으로 수감자를 인터뷰하려고 할 때 제작진은 통상 사전에 교도소 당국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해외 교도소에 허가 없이 들어가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이들은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승인이 나면, 관련 월드서비스 지역부서장(World Service Head of Region)과 뉴스취재부서장(Head of Newsgathering)에게도 알려야 한다.

해외의 수감자를 인터뷰하려고 할 때는, 나라마다 적용되는 법체계가 다르므로 언제나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4.24 비록 교도소 규칙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수감자는 공중전화와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전화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그는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방송을 목적으로 수감자로 하여금 교도소 내에서 공중전화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도록 요청하는 것
- 요청하지 않았는데 수감자가 걸어온 전화를 상의를 거치지 않고 녹음한 것을 방송하는 것
- 수감자의 전화 내용을 생방송하는 것

4.25 중범죄, 특히 폭행죄를 저지른 기결수를 인터뷰하는 경우 인터뷰가 희생자나 희생자 가족에게 야기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방법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 그리고 기타 성범죄자

4.26 아동 성범죄자나 기타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어 다시 지역 사회로 돌아오면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강력한 항의가 제기될 수 있다. 명백히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그러한 문제를 보도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감시 행위를 유발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
- 신원 오인
- 범죄자를 재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감시의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것
- 범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당한 침해
- 피해자와 그 가족 혹은 성범죄자의 가족에 대한 부정적 영향

4.27 BBC는 통상 아동 성범죄자나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감한 경우 경찰이 상세 자료를 공중에 공개한 경우에만 그들의 이름이나 사진의 방송 여부를 검토한다. 타 매체에 공개되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경찰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아동 성범죄자 및 기타 성범죄자의 이름을 밝히거나 사진을 공개하려고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4.28 아동 성범죄자나 기타 성범죄자 관련 보도를 하거나 잠재적 아동 성범죄자나 기타 성범죄자를 폭로할 때는 통상 그들이 사는 마을이나 도시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들의 위치를 노출하거나 사진을 공개해서 경찰이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성범

죄자 및 성범죄자의 가족과 관련된 관리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려고 할 때는, 관련 경찰부서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4.29 아동 성범죄자나 기타 성범죄자와의 인터뷰는 편집상 명백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인터뷰가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도소에서 중범죄로 복역 중인 아동 성범죄자나 기타 성범죄자 혹은 출소자를 인터뷰하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그는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신원 위장

4.30 프로그램 출연자가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에 명백히 연루되어 있을 때 BBC는 통상 그들의 신원을 밝힌다. 그러나 신원을 위장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된다.

- 법정 모독이나 명예훼손 가능성 같은 법적 이유
- 정보원 보호
- 영국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안전 문제
- 신원 확인이 범법행위와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 반사회적이거나 범죄적인 관행을 폭로하는 것이지만 관련된 개인은 단지 그러한 행위를 보여주는 예에 불과한 경우, 예를 들어 소비자 조사나 사회조사를 목적으로 비밀

촬영을 하는 경우

- 반사회적이거나 범죄적인 관행을 폭로하는 것이지만 관련된 개인이 그 행위에 대해 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지 경우

4.31 영국법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익명으로 다루려고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

4.32 법정 소송이 개시되기 전에 잠재적 피고로서 재판에 관련되어 있는 18세 미만인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할 때는 편집상 명백하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법적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4.33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된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원 공개 여부를 고려할 때는 그들의 장기적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연령,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그리고 신원을 밝힘으로써 예상되는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행위를 어떤 잘못된 관행의 예시로 사용할 때에는 통상 편집상 명백히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확신이 없으면 언제나 상급 편집책임자(혹은 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반사회적행동명령(ASBO:Anti-Social Behaviour Order)을 받았거나 재판 과정에 연루된 어린이나 청소년의 신원 확인에 관한 조언은 법무팀에서 받을 수 있다.

증인이나 범죄 피해자를 다룰 때

인터뷰

4.34 영국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증인과 인터뷰할 때는 소송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범죄 장면을 최근에 목격한 사람을 뉴스에서 인터뷰할 때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정 모독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통상 평결이 날 때까지는 증거에 대해 증인을 인터뷰해서는 안 된다. 인터뷰를 추진하려고 할 때는 법무팀 및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증인은 때로 기자가 시킨 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BBC를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휴지, 중단, 재촉, 질문 반복, 재촬영 등을 포함한 인터뷰 전체를 기록/녹음/녹화하고 그 사실을 인터뷰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비용 지급

4.35 증인, 혹은 진행 중인 형사 소송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사람은 그의 이야기의 대가로 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직접 혹은 간접으로(예를 들어 해결사나 중개인을 통해) 비용 지급을 약속해서도 안 된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른 어떤 비

용도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 출연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경비나 수입 손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4.36 형사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증인이 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사람에게는 명백한 공익(예를 들면 범죄나 심각한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이 있거나 그 정보를 끌어내는 데 비용이 드는 경우가 아니면 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사람이 이후 어떤 재판에서 증인이 된다면 피고 측과 검찰 측 양쪽에 모두 비용 지급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적절하다.

4.37 재판의 증인 혹은 잠재적 증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 및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신원 위장

4.38 재판에 연루된 자의 신원을 보도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법적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와 증인의 신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익명 보도란 통상 성명, 주소, 사진 혹은 신원에 관한 기타 단서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또한 소위 '직소 퍼즐 효과'로 인해 간접적으로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소 퍼즐 효과란 다른 매체에 실린 별개의 기사가 어떤 사례에 대해 서로 다른 세부사항을

제공해서,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면 관련된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위험은 가족 내 성범죄를 보도할 때 가장 높다. 근친상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희생자가 누구인지 신원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경우 근친상간은 '심각한 성범죄'라고 표현해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

4.39 영국 국내 형사 범죄에 대한 탐사보도에서 사건에 연루된 18세 미만의 증인이나 희생자를 다룰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이름, 주소,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 직장, 스틸 사진이나 동영상을 노출시키기 전에 그들의 취약성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형사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 18세 미만의 증인이나 피해자의 신원과 연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법적 제한이 있다. 상세한 정보는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에는 별도의 법적 고려사항이 있다. 스코틀랜드 법무관(Principal Solicitor Scotland)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의 탐사

4.40 탐사보도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를 파헤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편집상 명백하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범죄나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을 탐사보도하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편집부 및 법무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4.41 범죄나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BBC의 탐사 프로그램을 위해 위장잠입요원을 파견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4.42 탐사 취재를 위탁하거나 편집부의 승인이나 법적 자문을 구하기 전에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 심층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속임수, 위장 잠입 혹은 비밀 녹음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이것이 유일한 진행 방식인가?
- 기존에 존재하는 명백한 증거는 무엇인가?
- 정보원의 배경 및 정보 제공의 동기는 무엇인가?
- 비밀정보원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그들의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 취재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4.43 범죄 전과나 불법행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BBC 탐사 취재 작업에 고용하려고 할 때는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제작팀의 편집자나 위장잠입요원이 포함된다.

4.44 BBC 탐사취재에 참여할 위장잠입요원의 지원신청서도 편집정책/기준국장이 승인해야 한다. 지원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4.45 테러리스트나 흉악범 혹은 극단적이거나 폭력적인 정치 단체를 비밀 감시하거나 촬영하거나 직접 대면하는 범죄 탐사취재는 '고위험 활동'으로 간주된다.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문제에 대해 BBC 고위험보안관리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4.46 탐사취재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비밀 녹음/녹화, 위장잠입, 기타 속임수)은 그것이 적절하고 정당한지 계속 검토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4.47 탐사보도가 성공적인 경우 BBC는 본방송 이후에도 계속 관여하게 될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은 우리가 사용한 방법과 취재결과에 대해 위장잠입요원을 포함한 BBC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다. 제작진이 검찰조사 과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도 있다. 우리의 목적과 수단은 가장 엄밀한 검증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 출연자
Children and Young People as Contributors

1. 서론

어린이와 청소년은 BBC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의 모든 서비스에 걸쳐 상호작용 콘텐츠 및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통해 출연자로, 배우로, 진행자로 우리와 교류하고 있다.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도전적이고 교육적이면서 즐겁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신이 사는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어린이가 소비하기에 적합한 콘텐츠는『제작 가이드라인』전반, 특히 제5절 '피해와 불쾌감 유발'을 준수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인지 혹은 통상 어린이 출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콘텐츠에 출연하거나 우리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다룬다.

BBC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BBC 콘텐츠에 출연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를 항상 보호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 헌장(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보장된 발언권과 참여권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오프콤 방송규정>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18세 미만인 자의 육체적·정서적 복지와 존엄

성을 적절히 보호할 것을 방송사의 의무로 정해놓고 있다(<오프콤 방송규정>, 1.28). 이러한 의무 사항은 부모나 기타 부모를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 성인의 동의 여부와 관련이 없다. 방송규정은 또한 18세 미만인 자가 '프로그램 참여나 그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오프콤 방송규정>, 1.29). 우리는 또한 어린이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BBC『제작 가이드라인』에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어린이는 15세 미만을 말한다. 청소년은 15세, 16세, 17세이다[이 정의는 <오프콤 방송 규정>에서 어린이를 15세 미만으로 정의한 것에서 따온 것이다]. 16세 미만인 자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통상 부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령만이 유일한 고려사항은 아니다.

2. 원칙

2.1 우리는 콘텐츠 제작과 방송 기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체적·정서적 복지와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며, 이는 어린이·청소년 본인, 부모, 후견인, 기타 부모를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 성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익과 안전이 어떤 편집 요구사항보다 우선해야 한다.

2.2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이나 근심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는 편집상 명백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출연 동의는 어린이·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출연 및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제공해야 한다.

3. 의무적 상의

(의무적 상의란 BBC의 편집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이는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편집부와 상의

3.1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공간에서 사전 설계 이외에 어떤 식으로든 설계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3.2 대중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사전 설계 이외에 어떤 식으로든 설계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3.3 낯선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만나서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사적인 온라인 공간을 어린이 및 청소년에 제공하려는 경우 미래 미디어/테크놀로지 국장(Director Future Media and Technology) 및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기타 상의사항

3.4 제작과정에서 어떤 어린이나 청소년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심이 들거나 아동복지 이슈(BBC 직원에 대한 혐의도 포함)가 제기되면, 그 상황을 즉각 어린이보호정책(Child Protection Policy) 담당 부서 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3.5 온라인 아동유혹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은 즉각 어린이 BBC 상호작용서비스 운영관리팀(혹은 상업 서비스의 경우 관련 편집책임자)과 상의해야 하고, 이들은 그 사실을 적절한 관계 당국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3.6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이들은 정보정책실(IPC)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7 '부모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의 출연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그는 편집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4. 실천

18세 미만의 복지 보호

어린이 보호

4.1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다룰 때는 <BBC 어린이보호 정책>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들의 복지는 우리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의 관심사항과 안전이 어떠한 편집상 요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해 우리가 폭로하는 정보로 인해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신원을 콘텐츠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이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편집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재를 밝히지 않기로 방침이 정해지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퍼즐 맞추기 효과'(노출된 언어나 영상 정보 조각이 연결되어 해당 아동의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로 인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퍼즐 맞추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영역에 이미 알려진 정보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4.3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나이, 장애, 성별, 인종 혹은 민족적 기원, 종교적 신념 및 성정체성을 불문하고 유해나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작 과정에서 어떤 어린이나 청소년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심이 들거나 아동복지 이슈(BBC 직원에 대한 혐의도 포함)가 제기되면, 그 상황을 즉각 어린이보호정책 담당 부서 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온라인 보호

4.4 어린이의 온라인 보호는 BBC, 부모/후견인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의 공동 책임이다. 우리의 목표는 계속 변화하는 우리 기술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이 대면한 잠재적 위험이 무엇이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다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온라인 콘텐츠는 BBC 홈페이지(bbc.co.uk)에 올라가 있는 관련 조언(이를테면 안전한 검색에 관한 조언)과 링크되어야 한다. 안전정보는 눈에 잘 띄고, 쉽게 접근 가능하고, 명백해야 한다.

4.5 온라인 아동유혹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은 즉각 어린이 BBC 상호작용서비스 운영관리팀(혹은 상업 서비스의 경우 관련 편집책임자)과 상의해야 하고, 이들은 그 사실을 적절한 관계 당국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4.6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공간은 통상 그 형식이 미리 설계되어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다른 형태의 설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그것이 높은 수준의 어린이 보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4.7 대중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공간은 통상 그 형태가 미리 설계되어 있다. 다른 형태의 설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4.8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리 그 형태가 설계되어 있지 않은 채팅룸 링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4.9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사이트나 그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지고 그들의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의 설계자는 청소년 안전 보호국(ISA, Independent Safeguarding Authority)이 정한 점검 목록에 따라 적절한 경찰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 사이트에서 일하는 데 적절하도록 선발되고, 훈련받고, 감독받아야 한다. 설계자와 호스트를 관리하는 편집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근거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 설계자 및 호스트가 어린이와 청소년과 가상공간에서 접촉할 기회
- 사용자와 관계에서 설계자 및 호스트가 신뢰와 권위를 얻고 있는 정도
- 설계자 및 호스트가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4.10 신뢰할 만한 디지털 신원 확인 방법이 가능해지기 전에는 낯선 사람들이 상시 만나서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사적인 온라인 공간은 어

린이와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적인 온라인 공간은 어린이·청소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되는 제안을 하려고 할 때는 미래 미디어/테크놀로지 국장(Director Future Media and Technology) 및 편집부와 상의해야 한다.

개인정보

4.11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보정책실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그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 저장, 처리해야 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고, 그는 편집부 및 정보정책실과 상의할 수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사전 설명을 통한 출연 동의

4.12 우리 프로그램에 어린이나 청소년이 출연할 때, 가능하면 사전 설명을 하고 출연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그들의 프라이버시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공익이 없다면) 프로그램 참여 거부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에게 또는 필요한 경우 어린이/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는 어떤 사람에게 사전 설명 후 동의를 얻기 위해 통상 고려하는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어린이/청소년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프로그램에 출연함으로써 집단 따돌림 등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결과가 있는지 확인한다.
- 어린이/청소년의 출연 동의를 얻기 위해 유인책을 써서는 안 된다(그러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수준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4.13 법률에 따르면 16세 미만 어린이 연기자(그리고 여전히 풀타임 학교교육을 받는 일부 16세 포함)는 통상 지역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y)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 연기자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동안 부모, 법적 후견인, 혹은 허가받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부모의 동의

4.14 부모의 동의란 부모나 법적 후견인, 혹은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18세 이상의 사람(담임 선생님 같은)의 사전설명에 입각한 동의를 의미한다.

통상 16세 미만인 자를 인터뷰하거나 기타 BBC 프로그램에 출연시킬 때는 어린이와 청소년 자신의 동의 외에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민감하지 않은 주제, 즉 어린이가 자신이 가진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논란이 되지 않는 주제에 관해 어린이를 길거리 인터뷰하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가 어리고 취약할수록 그리고 주제가 민감할수록 부모의 동의가 더욱 필수적이다. 특히 어린이가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현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 통상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15 어린이가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어린이의 연령뿐만 아니라 발달 단계와 이해력의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 16세 혹은 17세의 청소년이라 해도 청소년이 처한 상황이나 프로그램 및 출연의 속성에 따라, 이를테면 콘텐츠가 예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거나 출연자가 취약하게 여겨질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경우 여전히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관해 편집부에 조언을 구할 수 있다.

4.16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가 별거 혹은 이혼 상태일 때는 통상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데, 이는 사례별로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진다. 동의를 구하지 못한 다른 쪽 부모가 어느 정도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관여하는지 고려해서,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이 가진 합리적인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관해 편집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4.17 '부모의 동의'를 거절당한 후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계속 출연시키려고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편집부의 자문도 구해야 한다. '부모의 동의'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은 통상 명백한 공익이나, 발언권을 포함하여 어

린이나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서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4.18 어린이에게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주제의 민감성과 어린이의 연령을 고려해서 적절한 '부모의 동의' 입증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단순히 어린이로 하여금 '부모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
- 어린이가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 박스를 클릭하게 하는 것
- 서명이 포함된 편지 등으로 '부모의 동의'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

적절한 증명 기준에 대한 조언은 편집부에 구할 수 있다.

4.19 어린이가 전화나 문자서비스 같은 유료 기술을 사용하여 BBC와 상호작용할 것을 요구할 때는 어린이가 우리에게 연락하기 전에 부모 또는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방송이나 온라인을 통해 명백하게 해야 한다.

출연의 영향

4.20 비록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 해도 어린이가 출연한 내용이 제작 진행 기간 및 방송 후에 가져올 영향과 예상 가능한 결과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방송 출연하도록 우리가 어린이에게 접근한 경우와 어린이가 우리에게 접근한 경우 모두 해당되며, 사용자 제작 콘텐츠도 포함된다.

어린이는 대개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어 하지만, 대다수는 방송 출연이 자신의 삶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판단력이 부족하다. 어린이들 사이의 반사회적이고,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예를 들어 불법 마약 사용, 학대, 식이장애, 약자 괴롭히기)을 다룰 때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한다.

통상 어린이와 작업할 때는 어린이를 감독할 책임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작이 이루어지지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는 경우, 그들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누군가(예를 들어 친척, 자족의 친구, 선생님 같은)와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4.21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하지만 어린이가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가십이나 이단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려고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을 아무 문제없이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4.22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 행위에 관련된 어린이나 청소년의 신원 공개를 고려할 때는 그들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연령,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그리고 신원 확인이 가져올 예상되는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잘못된 관행을 설명하는 자료로 이런 행위를 다룰 때는 편집상 명백히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통상 어린이의 신원을 밝히면 안 된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언제나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법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의문이 있을 경우 법무팀과 상의하라. 반사회적행동명령(ASBO)을 받았거나 법정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신원을 밝히는 문제는 법무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4.23 부모가 반사회적 활동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된 어린이를 프로그램에서 다루거나 신원을 밝히려는 결정은 해당 어린이의 복지가 침해받지 않고 편집상 명백히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어린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상황, 이를테면 알코올 중독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불법 마약 운반책 역할을 강요당할 수 있는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

정치와 공공정책, 여론조사
Politics, Public Policy and Polls

1. 서론

BBC 왕립칙허헌장과 협약에 제시되어 있는 BBC의 정치적 불편부당성 원칙은 BBC 정치 및 공공정책 취재, 보도의 중심 기준이다. 우리는 적절한 기간에 걸쳐 모든 주요한 주장 및 주요 정당에 적절한 발언 기회와 비중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현 정부의 활동이 뉴스의 주요 출처가 되기는 하지만 야당의 목소리와 의견도 일상적으로 방송되고 도전받아야 한다. 이 절의 가이드라인은 4절의 '불편부당성' 가이드라인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

여론조사, 서베이, 설문조사, 전화 및 온라인 조사는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 유용하고 생산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도할 때는 시청자가 그 조사 결과를-그리고 그 조사에 대한 우리의 보도를-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청자를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조사 방법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정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BBC의 입장을 암시할 수 있는 조사 연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본 절은 BBC를 위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여론조사, 서베이, 설문조사 결과를 콘텐츠에 포함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적절한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원칙

2.1 우리는 뉴스 및 기타 프로그램에서 정치나 공공정책 관련 사안을 적절한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2.2 방송이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외에는 시사나 공공정책의 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2.3 우리는 선거 캠페인을 해서는 안 되며 선거캠페인에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2.4 BBC 혹은 BBC를 위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단독 혹은 기타 단체와 공동으로 의뢰한 여론조사는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

2.5 여론조사, 서베이, 투표 및 기타 유사한 조사 결과는 BBC가 수행했든 다른 기관이 수행했든 관계없이 적절한 정확성을 갖고 보도해야 한다.

3. 의무적 상의

(의무적 상의란 BBC의 편집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이는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정치수석고문과의 상의

3.1 정치인을 초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보다는 예외적인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분야에 정치인을 초대하려고 할 때는 정치수석고문(Chief Adviser Politics)과 상의해야 한다.

3.2 사전협의 없이 당일 수집된 짧은 뉴스 인터뷰를 제외하고, 영국 주요 정당 지도자를 인터뷰하거나 프로필 기사를 내보내려고 할 때는 정치수석고문과 미리 상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당 측에서 제기한 인터뷰 제안도 받아들이기 전에 상의를 거쳐야 한다.

3.3 영국 내각 장관이 방송시간을 요구하거나 장관의 방송에 대해 [야당의] 반론 방송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3.4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나 투표 의사를 묻는 표본 여론조사를 의뢰하려고 할 때는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3.5 BBC의 어느 서비스에서든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란과 관련된 주제 혹은 기타 영역의 '논쟁적 주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려고 할 때는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3.6 주제를 막론하고 인터넷 여론조사를 의뢰하려고 할 때는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3.7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란과 관련된 주제 혹은 기타 영역의 '논쟁적 주제'에 관한 BBC 서베이를 의뢰하려고 할 때는 정치연구소장(Head of Political Research) 및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서베이가 영국 하원의원(MPs), 스코틀랜드 의원(MSPs), 민회 의원(AMs), 입법의회 의원(MLAs) 또는 유럽의회 의원(MEPs)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정치수석고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쟁과 관련된 주제 혹은 기타 영역의 '논쟁적 주제'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정치수석고문 및 관련 지역 월드서비스 책임자(World Service Head of Region)나 민족 권역 담당자(National Director)와 상의해야 한다.

기타 상의

3.9 전화, 텍스트 혹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려는 자는 상호작용기술 자문 및 계약팀 (ITACU, Interactivity Technical Advice and Contracts Unit)과 상의하고 적절한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4. 실천

영국 정당 관련 보도

4.1 영국은 상이한 민족 권역에 다양한 정치 문화를 갖고 있으며, 위임 구조 하에서는 영국 의회가 상대적인 정치적 힘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의 기관이 아니다. 특히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경우 적절한 정치적 불편부당성을 달성하는 것은 영국 전국 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정당들만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주요 정당에 대한 적절한 보도를 포함한다.

4.2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의 사용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테면 "2개의 주요 정당"이라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야당'이라는 일반적 묘사보다는 특정 정당 이름을 밝혀서 보도하는 것이 통상 바람직하지만 '공식 야당'이나 '야당 지도자'처럼 영국 의회에서 공식적이고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은 예외이다. '섀도우 장관'이나 '섀도우 내각'이란 표현은 영국 의회에서는 특별히 주요 야당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정치 관련 인터뷰 및 출연

4.3 정치 관련 인터뷰를 요청할 때는 프로그램 성격과 인터뷰가 요청되는 맥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인터뷰 준비는 공적인 검증

(public scrutiny)을 거쳐야 하며, 시청자가 프로그램에서 듣기를 기대하는 것이 합당한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4.4 비정치적 성격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정치인을 초대하는 경우, 그것이 정치 이외의 분야에서 그들의 전문성에 근거한 것이든 그들의 유명세에 근거한 것이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대편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할 정도로 그들을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출연이 소속 정당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점을 시청자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

4.5 정치인을 초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보다는 예외적인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분야에 정치인을 초대하려고 할 때는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정당지도자 인터뷰나 인물 소개
4.6 사전협의 없이 당일 수집된 짧은 뉴스 인터뷰를 제외하고, 영국 주요 정당 지도자를 인터뷰하거나 프로필 기사를 내보내려고 할 때는 정치수석고문과 미리 상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당 측에서 제기한 인터뷰 제안도 받아들이기 전에 상의를 거쳐야 한다. BBC 스코틀랜드, BBC 웨일즈나 BBC 북아일랜드의 경우 각 해당 민족 권역의 뉴스시사책임자(Head of News and Current Affairs)와 사전에 상의해야 한다.

또한 정치수석고문- 그리고 적절하다면 관련 뉴스시사책임자-은 정당지도자가 출연요청을 거부했는지 혹은 수락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는 다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이다.

- BBC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정당지도자들을 건강하고(robust)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다
-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정장 지도자에 대한 출연 요구가 항상 높은 상황에서 BBC 내부에서 출연 빈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 시간을 두고 볼 때 모든 정당지도자에게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 하원의원에 대한 출연료 지급

4.7 BBC는 통상 영국 하원의원 혹은 기타 정당 대표로 출연한 것이 분명한 자가 BBC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당의 일원으로서 발언한 내용이나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적절한 경우 제한적으로 현실적인 수고비 그리고/혹은 실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4.8 정치 이외 분야의 전문성이나 유명세에 근거해서 비정치적인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고, 소속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닌 경우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현역 정치인은 통상 BBC 뉴스에 출연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출연자가 어느 정도 현역 정치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는 각각의 경우 여러 요소, 이를테면 프로그램이나 기타 콘텐츠의 유형, 출연의 성격, 출연자의 정치 활동이나 그가

등장할 때의 공식 지위 등을 결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조언은 정치수석고문에게 구해야 한다.

의회방송

웨스트민스터 영국 의회 방송

4.9 BBC는 영국 하원 및 영국 상원, 그리고 양원의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의정 활동을 보도할 때 영국 의회가 정한 보도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연설 내용의 내부 편집 금지. 하나의 연설에 속한 두 부분을 사용할 때는, 분명한 휴지(break)를 넣어서 두 부분이 연속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영상이나 음향의 조작 금지.

4.10 의회 자료는 뉴스와 시사기반 프로그램 및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의회 자료를 가벼운 오락 프로그램, 픽션이나 드라마 콘텐츠 또는 정치 풍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회 자료를 재연이나 기타 사실기반 프로그램 내의 극적 장치 같은 혼합 장르 콘텐츠에서 사용하기 전에 정치수석고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의회 방송

4.11 BBC는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즈 의회, 북아일랜드 의회 및 유럽 의회의 의정 활동을 방송할 때 해당 보도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런던 광역 시의회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정치 관련 방송

정당, 선거, 국민투표 방송

4.12 BBC 왕립칙허장 부속 협약에 따라 우리는 정당 및 국민투표 관련 캠페인에 방송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정당 방송은 BBC 자체의 저널리즘과 완전히 별도이기 때문에 정당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견해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절한 불편부당성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을 정당별로 안배해야 한다.

4.13 정당 방송의 저작권은 정당에 있지만, 정당 동의 없이 발췌 사용할 수 있다.

4.14 정당은 자체 경비를 대서 방송내용을 제작하고 콘텐츠 내용에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당은 BBC와 오프콤이 정한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법(이를테면 명예훼손, 저작권, 인종 증오 선동 및 폭력 선동에 관한 법)과 유해와 불쾌감 유발에 관한 BBC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가 포함된다. 방송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Broadcasters Liaison Group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내각 활동 관련 방송

4.15 전쟁 결정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BBC는 영국 총리나 관련 고위직 장관에게 방송시간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주요 야당 지도자가 제기하는 반론 방송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BC는 방송사로서 적절한 법적 기준 및 기타 기준에 비추어 그러한 요청이 수용가능한지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영국 정부 장관의 방송 시간 요청이나 이에 야당의 반론 방송 요청은 즉시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선거방송

선거 기간 중 방송

4.16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BBC의 약속은 선거 캠페인을 보도할 때 집중적인 검증을 받는다. 선거 기간 중에는 정당들이 편집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프로그램 제작자와 기타 콘텐츠 제작자는 각종 민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자신들의 말이 곧 'BBC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 민원인에게는 편견에 대한 일반적 민원이나 주장은 항상 더 상급자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따라 민원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4.17 편집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방어할 때는 그 결정이 합리적이며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갖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뉴스 판단은 계속 뉴스 기반의 프로그램에서 편집 의사 결정을 요구한다.
- 선거 기간 중의 뉴스 판단은 모든 정당의 견해를 듣고, 정책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데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민주적 토론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 선거기간에는 주요 군소 정당도 일정 부분 네트워크 보도에서 다루어야 한다.
- 영국 전체를 상대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영국 4대 민족 권역의 다양한 정치 구조를 숙지하고, 각 민족 권역의 선거 보도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4.18 정당 간에 적절한 정확성이나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구현하는 방식은 프로그램 포맷, 제작물과 플랫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단일한 아이템, 단일한 프로그램, 연속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에서 또는 캠페인 기간 전체에 걸쳐 수행될 수 있다. 프로그램 제작자 및 콘텐츠 제작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달성할 책임이 있으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다른 BBC의 콘텐츠나 서비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영국의 선거 및 국민투표 캠페인 보도

4.19 BBC는 법적으로 매 선거마다 각 선거구나 선거지역 후보자의 참가와 관련해 행동강령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선거 위원회가 표명한 모든 견해에 유념할 것'이 요구된다.

텔레비전, 라디오, 온라인(게시판 포함)을 위한 선거 및 국민투표 가이드라인은 정치수석고문이 작성하고 BBC 트러스트가 승인해서 각 선거 전에 공표한다.

4.20 투표 당일 BBC는 기타 방송사와 공동으로 오전 6시부터 투표가 끝나는 시간까지 캠페인 보도를 중단한다. 이 시간 동안 보도는 투표소에 나타난 정치인 동정이나 날씨 등과 같은 비논쟁적적인 사실 설명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이슈가 되었거나 캠페인의 일부를 차지하는 주제 혹은 선거와 관련된 기타 논쟁적 문제는 투표 당일에는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BBC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도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 선거 관련 보도

4.21 BBC의 영국 선거 보도의 기반인 공정성 및 적절한 불편 부당성의 원칙은 해외 선거 보도에서도 동일해야 한다. 해외 선거를 보도할 때 BBC는 특정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 특히 선거 과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BBC 콘텐츠가 선거가 진행 중인 나라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는 추가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투표하려는 시청자에게 특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본래 영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만든 국제 프로그램 서비스의 재송출 시기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프로

그램이 선거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방송 송출을 연기해야 한다.

법적 쟁점과 해외 선거

4.22 영국의 선거법은 영국 외부의 선거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나라별로 선거 기간 동안 방송에 적용되는 특정 법률이 있을 수 있다. BBC 콘텐츠가 그 특정 국가에 방송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선거 관련 법적 요구사항이 BBC의 근본적 편집 원칙, 특히 공정성과 불편부당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방송사가 BBC 콘텐츠 혹은 서비스의 송출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BBC는 프로그램 편집 원칙을 고수한다. 이 점은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BBC 월드 서비스, BBC 월드 그리고 BBC 온라인에서 특히 중요하다.

온라인 여론조사, 서베이, 투표

4.23 어떤 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특히 정보를 요약 보도할 때는, 보고 듣는 것이 건실한 저널리즘에 기반하고 있고, 조사결과가 신뢰할만하고 유의미하며, 사용되는 언어가 일관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시청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여론조사'와 '서베이'에 관해 보도할 때에는 BBC 저널리즘의 기타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확성, 명확성, 신뢰성이 중요하다.

BBC가 '여론조사'나 '서베이'를 의뢰하고 거기에 BBC의 권위를 부여할 때는, 그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잘 판단하고 그리고 시청자가 우리의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론조사 의뢰

4.24 BBC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BBC의 이름으로 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언어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조사 방법론과 데이터 역시 가장 면밀한 공적 검증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25 우리가 의뢰하는 여론조사가 어떤 특정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BBC의 견해를 암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BBC 여론조사가 어떤 시사 논쟁에 대한 BBC의 개입을 암시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BBC가 투표의사 혹은 지지정당을 묻는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지정당이나 투표의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의뢰하려고 할 때는 미리 정치수석고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6 우리는 통상 다른 기관과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데, 이는 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 불편부당성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4.27 어린이와 청소년의 견해를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언제나 정치수석고문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4.28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쟁과 관련된 주제, 혹은 기타 분야의 '논쟁적 주제'에 대해 BBC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수행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인식에 특별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BBC의 관점이나 의도한 서사와 달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치수석고문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4.29 BBC의 어느 서비스에서든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란과 관련된 주제 혹은 기타 분야의 '논쟁적 주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려고 할 때는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설문지 작성 등에 대한 기술적 조언은 정치연구팀(Political Research Unit)에서 받을 수 있다.

여론조사 방법

4.30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1:1 대면조사나 전화조사로 이루어진다. 인터넷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회사들도 있다. 인터넷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주제든 인터넷 여론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4.31 BBC가 의뢰한 것이든 기타 기관이 의뢰한 것이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특히 영국 내 선거에서 투표 의사를 묻는 조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뉴스 특보나 뉴스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지 않아야 한다.
- 여론조사 자체가 헤드라인감인 경우나 그것을 이해하는 데 여론조사를 언급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를 헤드라인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 여론 조사 결과는 통상 추세 맥락 속에서 보도해야 하며 투표의사를 묻는 여론조사인 경우는 항상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추세는 일정 기간 동안의 모든 주요 여론조사 결과의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단일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 나타난 추세에 국한될 수도 있다. 확실한 설명 없이 추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다루어야 한다.
- 필요 이상으로 여론조사에 신뢰를 부여하는 언어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를테면 여론조사가 '암시'하거나 '제시'한다고 해야지, '입증'하거나 '보여준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통상 여론조사를 수행하거나 의뢰한 기관이나 언론사가 내 놓은 여론조사 결과 해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설문, 조사 결과, 샘플 크기 뿐 아니라 여론조사를 수행한 기관과 그것을 의뢰한 기관이나 언론사를 밝혀야 한다. 이 정보 역시 항상 텔레비전과 온라인 그래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우리는 설문 조사 기간을 보도하고 그 날짜를 텔레비전과 온라인 그래픽에 포함시켜야 하며, 설문 조사가 끝난 후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사건에 주목하게 해야 한다.

- 우리는 여론조사가 1:1 면접 조사인지 전화조사인지 혹은 인터넷 조사인지 밝혀야 한다.
- 우리는 투표의사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의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예상 오차범위를 보도해야 한다. 텔레비전과 온라인 그래픽은 항상 오차범위를 보여주어야 한다.

4.32 BBC는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방법론이나 결과에 의심이 있을 경우, 이를테면 신생 기관이나 해외의 낮은 수준 기업이 수행한 경우 그러한 의심을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방식에서 적절하게 반영하거나, 또는 해당 데이터가 BBC 프로그램에 포함될 만한 신뢰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의심이 드는 경우는 정치연구소장의 조언을 구한다.

4.33 여론조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된 경우에도, 조사 결과의 요소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테면 응답자 수가 너무 적은 하위 섹션의 조사 결과에서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4.34 우리는 신뢰성 있는 조사기관이 적절하게 수행한 여론조사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 결과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보이든 혹은 다른 미디어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우리 스토리의 중요함이나 스토리의 나머지 부분이 얼마나 여론조사의 정확성에 의존하고 있는지 항상 자문해야 한다. 또한 조사의 정확성이 추후에 문제될 경우를 대비해

보도 언어에 사용된 의심의 수준이나 보도의 방향이 조사 결과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있다고 느껴지는지 여부를 유의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기대한 대로 나오지 않거나, 새롭거나 독특한 내용을 제시할 경우, 우리는 신뢰할 만한 추세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과에 부당하게 큰 비중을 부여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

4.35 선거 시기 여론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에 BBC 트러스트의 협의를 거쳐 정치수석고문이 발표하며, 여기에는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포함된다.

여론조사는 선거 당일 투표가 종결될 때까지, 유럽 의회선거의 경우 유럽연합 전체에 걸쳐 모든 투표가 끝날 때까지 발표되어서는 안 된다.

서베이

4.36 여론조사와 달리 서베이는 통상 소규모 혹은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그것은 개인들 그룹(이를테면 선거구 의장들, 하원 의원들, 대학 부총장들)일 수도 있고 기관들의 그룹(이를테면 보건 관련 트러스트들, FRSE 100 기업들과 지역 당국)일 수도 있다.

BBC는 국회의원 그룹이나 보건 당국 그룹과 같은 소규모 특정 그룹을 대상의 서베이는 조심스럽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여론조사 결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BBC가 서베이를 의뢰했다는 것을 시청자에게 알릴 때는, 그 대표성에 대한 주장이나 가정을 정당화해주는 통계적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시청자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4.37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란과 관련된 주제 혹은 기타 분야의 '논쟁적 주제'에 대해 BBC 서베이를 의뢰하려고 할 때는 정치연구소장 및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하고, 영국 하원의원, 스코틀랜드 의원, 민회 의원, 입법의회 의원, 유럽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는 그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베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어느 그룹의 의견, 태도, 정책을 분석하는지 명확히 한정되어야 한다.
- 수용 가능한 최소 응답률 등을 포함한 수치적 매개변수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 적절하게 표현되고 일관되게 제시된 질문 등을 포함하여 방법론에 대해서 합의해야 한다.
- 서베이 결과를 보도하는 언어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서베이 결과를 보도하게 될 기타 BBC 창구(홍보부서 포함)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다른 시청자를 위해 언어를 바꾸는 과정에서 원래 조사의 의미가 변경되거나 주장이 과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38 우리는 서베이에 포함된 정보의 지위에 대해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서베이의 결과를 발표할 때는 통상 실제 응답자 수를 사용해야 하고, 백분율은 그것이 맥락화되었을 때에만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

4.39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란과 관련된 주제 혹은 기타 분야의 '논쟁적 주제'에 관해 BBC가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수행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편부당성에 대한 인식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가 BBC의 관점이나 의도한 서사와 달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이 내리기 전에 정치수석고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4.40 기타 기관이 의뢰하거나 수행한 서베이의 결과를 보도할 때는 적절한 의심을 표현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가 서베이 결과를 실제보다 더욱 믿을만한 결과인 것으로 믿도록 오도하는 방식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포커스 그룹과 패널

4.41 아무리 엄선되었다고 하더라도 BBC는 패널의 견해가 전체 인구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처럼 암시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전체 선거구의 정당 지지도를 추정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패널이나 포커스 그룹은 적절히 선정될 경우 어떤 견해에 대한 지지의 정도보다는 그러한 견해를 견지하는 이유를 조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란과 관련된 주제 혹은 기타 분야의 '논쟁적 주제'에 대한 포커스 그룹 조사를 의뢰하려고 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하며, 방법론은 정치연구팀(Political Research Unit)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투표, 문자투표 및 온라인 투표와 기타 모의 투표

4.42 전화투표, 문자투표, 온라인 투표를 포함하는 '모의 투표(straw poll)'은 어떠한 통계적 또는 수치적 가치가 없다. 이러한 방식은 시청자와 소통하는 효과적 형태일 수 있고, 토론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체 선정 기준에 의한 것으로 대표성이 없고 과학적 방식이 아님을 시청자들에게 명확히 밝힐 때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투표는 통상 심지어 해당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의 시청자를 대변한다고도 말할 수 없으며, 단지 참가한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뿐이다. 이는 응답자의 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된다.

모의 투표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로 지칭해서는 안 된다. '모의투표'라는 용어 자체가 널리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통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43 관련 프로그램의 맥락 내에서 모의투표 결과를 실제 수치로 제시하거나 또는 응답자의 규모에 적합하다면 백분율로 제시할 수 있지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모의투표 결과를 뉴스특보에서는 다루지 말아야 한다.
- 모의투표를 실시한 특정 콘텐츠 영역 밖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투표나 문자투표 결과는 관련된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혹은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요약 보도될 수 있지만, 뉴스나 기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기타 BBC 웹사이트나 보도 자료에서는 통상 보도해서는 안 된다.
- 동일한 주제에 대해 상이한 시간대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떤 추세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 모의투표는 정당의 지지도에 관한 진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44 BBC는 고도로 조직화된 압력단체에 취약한 논쟁적 이슈에 관한 모의투표를 사용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투표가 대표성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명백히 표명해도

압력단체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BBC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4.45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란과 관련된 주제 혹은 기타 분야의 '논쟁적 주제'에 대한 모의투표를 실시하려고 할 때는 정치수석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정치수석고문 및 관련 지역 월드 서비스 책임자나 민족 권역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4.46 전화투표, 문자투표, 혹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상호작용기술 자문 및 계약팀(ITACU, Interactivity Technical Advice and Contracts Unit)과 상의하고 적절한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길거리 인터뷰

4.47 길거리 인터뷰는 어떤 논쟁의 일부만 대변할 뿐 의견의 비중이나 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제나 분명히 밝혀야 해야 한다.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또는 산업적 논란과 관련된 주제 혹은 기타 분야의 '논쟁적 주제'에 대한 길거리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이 정확하게 대변되고 적절한 범위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편집되어야 한다.

전쟁, 테러 및 비상사태

War, Terror and Emergencies

1. 서론

BBC는 전쟁, 테러 행위나 테러행위 계획, 포위작전, 비상사태 등 분쟁 관련 보도 시 영국 및 전 세계 시청자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정확한 뉴스와 정보 서비스를 찾는다. 시청자는 또한 우리가 맥락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불편부당한 분석, 그리고 광범위한 견해와 여론을 제공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듯 정보와 의견이 갈등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 힘든 때에는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의 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보도로 인해 어떤 개인이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통상적인 윤리적 고려사항과 함께 (그리고 예외적으로 저널리스트의 경우) <테러리즘 법(Terrorism Act)>은 정보를 입수한 개인이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경찰에게 테러 관련 정보를 제보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보도의 어조는 그 신뢰성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생명의 위험, 사망,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둘러싼 문제를 보도할 때 시청자가

느낄 감정과 두려움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람에게는 직접 관련된 친지나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고통에 관한 기사는 대단히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사건의 실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보도 내용을 부당하게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불필요한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제작 가이드라인 웹사이트에 전쟁 보도에 대한 구체적 가이던스가 제시되어 있다.

전쟁, 테러나 비상사태 발생 시 우리는 사건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특히 편성된 프로그램(영화, 드라마, 코미디와 음악 프로그램 등)과 예고 방송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

2. 원칙

2.1 전쟁, 테러나 비상사태, 기타 유사한 사건의 보도는 제작 가이드라인 내 정확성과 불편부당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2.2 BBC는 전쟁, 테러, 비상사태, 기타 유사한 사건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아주 생생한 사진을 사용하려면 편집상 명백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3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사람의 죽음을 그의 친인척이 BBC의 콘텐츠를 통해 알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의무적 상의

(의무적 상의란 BBC의 편집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이는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편집정책/기준국장과의 의무적 상의

3.1 테러 행위를 자행한 기록이 있는 금지된 단체나 그룹이 실시하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편집정책/기준국장과도 상의해야 한다.

3.2 영국 혹은 해외에서 열리는 행사를 녹화 방송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에 영국 시민을 상대로 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3.3 국방자문 통보 위원회 비서관(Secretary to the Defence Advisory Notice Committee)이 접근해오는 경우는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3.4 BBC 직원 혹은 BBC 대상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테러리즘법 하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 및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3.5 테러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조직(조직의 개인회원 포함)을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시키기 위해 접촉하려고 하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기타 상의

3.6 폭력이나 위협의 기록이 있는 유사군사집단이나 기타 집단이 등장하는 합법적 행사에서 녹음/녹화된 자료를 방송하려고 할 경우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이들은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폭력적인 동물권리보호 캠페인 그룹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3.7 항공기 납치, 유괴, 인질극이나 포위작전 상황에 관련된 범인이 만든 녹음물/녹화물을 보도하려고 할 경우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3.8 항공기 납치, 유괴, 인질극이나 포위작전 상황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경찰이 완전한 뉴스 통제를 요구할 경우 상급 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고 상급 편집책임자는 편집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9 적대적 환경에서 고위험 활동 혹은 고위험 사건을 취재하려고 할 때는 뉴스 취재책임자(Head of Newsgathering) 및 BBC 안전관리팀(BBC Safety's High Risk Team)과 상의해야 한다.

11.4 실천

정확성과 불편부당성

4.1 전쟁 그리고 국가 및 국제 비상사태(테러, 재난 및 주요 사고 포함)의 초기 단계를 보도할 때, 특히 상충되는 주장이 있는 경우 제3자에서 나온 정보나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사상자 추정치는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상이한 출처에서 서로 다른 추정치를 내놓는다면 우리는 추정치 범위를 보도하거나 또는 가장 권위 있는 출처를 택해서 그곳의 추정치를 따른다.

우리는 통상 보도 내용이 검열을 받거나 모니터링을 받는지 혹은 정보를 보류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하고, 가능하다면 언제든 보도 운영의 준칙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4.2 시위, 소요 사태 및 유사 사건을 보도할 때는 참가자 수의 추정치를 적절한 의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며, 추정치에 대한 광범한 불일치를 보도하고 그 수치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사

건에 대한 포괄적이고 불편부당한 견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쪽에 있는 기자로서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을 갖기 어려운 경우, 그가 제공한 자료는 보다 폭넓은 방송 맥락의 일부로 활용되어야 한다.

4.3 영국 시민과 관련된 비상사태의 경우 BBC의 모든 서비스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해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한 반응이 요구되는 주요 사건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관련 당국과 공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집상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

4.4 분쟁 관련 보도 시에는 특별히 민감한 사항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군사작전 계획 보안 사항이 있으며 사상자의 호명은 가급적 가까운 친척이 알게 되기 전에는 피해야 하고, 근거 없는 루머는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은 특히 사용자가 우리에게 보내자마자 곧 방송되기를 기대하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수 있다.

- BBC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스팅을 추가하고 설계를 조정해서 그 갈등 사안에 대한 논평과 토론이 한정된 수의 공간에 집중되도록 할 수 있다.
- 필요하다면 사전 설계(pre-moderation)로 전환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제3자의 주장이나 진술의 지위를 사용자가 보다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자의 진술을 BBC 뉴스 사이트의 관련 기사로 연결해 사용자가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언어 사용

4.5 우리는 테러 행위를 신속, 정확, 충분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보도해야 한다. 테러리즘은 중대한 정치적 함축을 가진 어렵고 감정적인 주제이므로 가치 판단을 내포한 단어의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테러리스트라는 단어 자체도 적절한 귀인 없이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만약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BBC는 모든 서비스에 걸쳐 제공하는 보도 기사에 일관성 있게 그리고 객관성과 정확성이라는 BBC의 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테러리스트'라는 단어 자체는 시청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어난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그 행위의 전반적 결과를 시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폭파범', '공격자', '총기소지자', '납치범', '반란군', '과격분자' 등과 같이 범법자를 특정해서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언어를 우리 것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시청자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한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식으로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4.6 비슷한 이유로 명확한 사법적 절차 없이 '해방', '군법회의', '처형'과 같은 단어를 적절한 귀인 없이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피해자 신원 확인

4.7 사람들이 죽고 부상하거나 실종된 경우 가능하다면 BBC 서비스는 관련자의 가까운 친척이 이 사실을 BBC 보도를 통해 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BBC는 보도에서 이름이 거명되지 않을 때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가까운 친척이 불필요한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 사태를 파악했을 때 느끼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그리 나쁜 것이 아니다.

BBC는 개별 희생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신속히 관심 영역을 좁힐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비행기 추락의 경우 비행 노선, 비행기 편명, 출발지와 도착 예정지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보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위, 소요 사태와 폭동

4.8 시위, 소요사태, 폭동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취재는 BBC 뉴스보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덧붙여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

- 뉴스에서 소요 사태의 예상 전망을 미리 검토함으로서 소요사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따져본다.
- BBC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당장 보도를 중지해야 한다.
- 생방송 보도 때 폭력 수준이나 무질서 정도가 시각적으로 너무 심각하면 생방송을 딜레이를 시키거나, 또는 편집 보도용으로 자료를 편집하고 녹음/녹화해야 한다.

행사 취재(Staged Events)

4.9 테러 행위를 자행한 기록이 있는 금지 단체나 그룹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편집정책/기준국장과도 상의해야 한다.

4.10 영국 혹은 해외에서 열리는 행사를 녹화 방송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에 영국 시민을 상대로 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4.11 폭력이나 위협의 기록이 있는 유사군사집단이나 기타 집단이 등장하는 합법적 행사에서 녹음/녹화된 자료를 방송하려고 할 경우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그는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폭력적인 동물의 권리보호 캠페인 그룹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위협과 장난(전화 등)

4.12 만약 폭파 위협이나 기타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위험을 전화나 팩스,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혹은 메시지 게시판이나 녹음테이프 등을 통해 전달받은 경우 최우선 조치는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통상 폭파 위협을 가하는 집단이 사용하는 암호용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4.13 공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적영역의 세부 보안 사항이나 기타 민감한 정보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

4.14 유명인사에 대한 위협은 그것이 뚜렷한 결과(이를테면 공식행사 참석의 취소)를 낳지 않는 한 통상 보도하지 않는다.

4.15 편집상 명백하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신원 노출이 되면 공격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동물실험이나 군사시설 관련 일을 하는 기업이나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4.16 BBC는 통상 나중에 장난으로 밝혀지는 사건은 그것이 명백히 심각한 결과(예를 들어 교통대란)를 유발한 경우가 아니면 보도하지 않는다.

비행기 납치, 유괴, 인질극 및 포위작전

4.17 비행기 납치, 유괴, 인질극 및 포위작전 상황의 경우에도 우리가 방송하거나 공개하는 것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영국과 해외의 범법자들에게 노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맥락에 근거하여 요구사항을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행기 납치범, 유괴범이나 인질범이 직접 연락해오는 경우 그들에게 홍보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BBC는 사건 보도에서 편집의 중심을 잡고 다음과 같은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 범법자를 생방송 인터뷰하지 않는다.
- 범법자가 제공한 영상이나 오디오를 생방송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 범법자가 만든 녹음/녹화물은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한 후에 방송한다.
- 학교 포위나 비행기 납치 같은 민감한 성격의 스토리는 생방송을 딜레이 시킨다. 이 점은 사건의 결과가 예측불가능하고, 생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불쾌한 자료를 방송할 가능성이 있을 때 특히 중요하다.

4.18 비행기 납치, 유괴, 인질극이나 포위상황에 관한 뉴스를 보도할 때는 보도로 인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 및 기타 관계 당국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당국자 쪽에서 BBC에게

어떤 정보를 보류하거나 심지어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통상 합리적 요구는 들어주지만 진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방송해서는 안 된다.

경찰 등에서 완전한 보도 통제를 요구해올 경우 상급 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고, 그는 편집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대 테러리즘

국가기밀법

4.19 <국가기밀법(Official Secrets Act)>은 BBC가 안보와 첩보 문제에 관한 어떤 문제를 보도할 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분야에 속하거나 속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다루는 콘텐츠 제작자는 법무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국방자문지침

4.20 국방자문지침(Defence Advisory Notices)은 공표될 경우 국가안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국방 및 대 테러리스트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고도로 분류된 암호 및 난수, 공적영역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주요 군사시설 및 구조물 정보, 영국 국가정보원(UK Security and Intelligence Services)과 특수부대(Special Forces)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자료의 공표를 다룬다.

현재의 국방자문지침은 DA공지시스템(DA Notice System)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자발적인 것으로 법적인 강제가 없으며, 방송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책임은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다. 콘텐츠 제작자는 이러한 분야에 속하거나 속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다룰 때 초기 단계부터 상급 편집책임자에게 법률자문을 구해야 한다. 국방자문지침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테러리즘법

4.21 <테러리즘법>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경찰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

- 세계 어디에서든 테러리즘 행위 기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나 정보
- 테러 행위를 기획, 준비 혹은 선동한 영국 내 범인의 구속, 기소나 유죄 판결에 도움이 될 자료나 정보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BBC 직원이나 기타 사람이 <테러리즘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제작에 관여하게 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편집정책/기준국장 및 프로그램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테러리즘법>은 또한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묘사된 국내외 조직이 영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금지 조직의 최신 리스트는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조직(조직의 일원을 만나는 계획 포함) 혹은 테러 행위를 자행한 기록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에 접근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적대적 환경, 고위험 활동 및 사건

4.22 적대적 환경에서 고위험 활동 혹은 고위험 사건에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할 경우 뉴스 취재 책임자 및 BBC 고위험보안관리팀과 상의해야 한다.

'적대적 환경'이란 전쟁, 반란, 시민 소요, 테러리즘이나 극심한 치안 불안, 떼도적의 준동, 무법 상태 및 공공질서 혼란 등에 휩싸인 국가, 지역, 혹은 특정 구역을 의미한다. BBC는 적대적 환경 및 위험 환경 지역의 목록을 게이트웨이에 게시하고 있다.

'고위험 활동'이란 테러리스트나 중범죄 혹은 극단적 집단, 폭력 집단, 정치 집단 등에 대한 비밀 사찰 활동 혹은 녹음 및 녹화, 대치 활동을 지칭한다.

'고위험 사건'은 폭동, 시민 소요나 극심한 공공질서 혼란, 하이재킹이나 포위, 대치 같은 테러/무장 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 혹은 방사능 물질등과 관련된 사태 혹은 허리케인, 대형 홍수, 지진, 화산 폭발 같은 극심한 기후 사태 등을 지칭한다.

Ⅱ

BBC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요강

◆ 언어 ····· 187
◆ 드라마에서의 폭력 ····· 199
◆ 뉴스와 다큐멘터리에서의 폭력 ····· 205

언어

(최종수정, 2010년 10월)

제작 가이드라인 이슈

본 준수요강은 다음의 제작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제5절: 유해와 불쾌감 유발: 서론, 시청자 기대, 콘텐츠 정보 및 언어
제13절: 재사용과 수정: 유해와 불쾌감 유발 이슈

주요 내용 요약

- 언어는 변화하며, 공중의 언어에는 새로운 단어나 표현이 정기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불쾌한 표현으로 이미 확정된 용어들의 힘 역시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 BBC는 단어나 구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어떤 언어의 사용을 편집상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일련의 사항이 있다.

- 맥락은 언어의 수용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콘텐츠 제작자는 무엇이 말해졌고, 그 언어가 사용된 장소가 어디이고, 그것이 왜 사용되었으며,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에

유의해야 하며, 어조와 의도, 그리고 사용된 거친 언어의 비중 등을 고려해야 한다.

- 거친 언어에 대한 시청자 기대 또한 고려해야 한다. 특정한 채널이나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인물로부터 시청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시청자는 BBC1에 나오는 거친 언어에 덜 관용적인데, 이는 그것이 다른 채널에 비해 시청자 층이 넓기 때문이다.

- 속어, 사투리, 지역적 어휘나 문구 등은 시청자 층에 따라 그 의미나 그것이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불쾌감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 고전 콘텐츠를 방송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전 콘텐츠의 포맷을 변경하는 것은 안되지만, 재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일반 대중의 감수성에 맞지 않는 언어는 수정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거친 언어' 의 정의

거친 언어(strong language)란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언어를 의미한다. 거친 언어의 확정적인 리스트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어는 변화하며, 공중의 언어에는 새로운 단어나 표현이 정기적으로 추가된다. 또한 불쾌한 표현으로 이미 확정된 용어

의 힘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인종차별주의적 욕설,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경멸적 용어는 오늘날 시청자가 점차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BBC는 특정 언어나 문구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콘텐츠 제작자는 거친 언어는 편집상 정당화될 때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프로그램이 겨냥하는 시청자 층에 해당 언어가 수용 가능한지 여부는 주의깊게 판단되어야 한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해당 부서의 상급 편집책임자 혹은 편집부와 상의하라.

매우 거친 언어, 즉 가장 큰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언어에는 여성 성기를 가리키는 말, motherfucker, fuck가 포함된다(모두 의무적으로 프로그램 감수책임자(Output Controllers)와 상의해야 한다. Cocksucker[동성애자 비하 표현]나 nigger[흑인 비하 표현] 같은 언어 역시 시청자가 극도로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중간정도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에는 wanker, pussy, bastard, slag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이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혹은 온라인 콘텐츠에 사용된다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사용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편집상 명백하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약한 수준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에는 crap, knob, prat, tart 등의 속어가 포함된다. 이러한 용어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에 따라 드물게 그리고 단독으로 사용된다면 광범위한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종교와 관련된 단어나 이름(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이 특정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준을 따르는 경우 광범한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맥락

시청자의 기대와 함께, 맥락 역시 언어의 수용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이다. '무엇을, 어디서, 왜, 누가 그리고 어떻게'가 이 맥락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콘텐츠 제작자는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엇이 말해졌는가?

사용된 언어가 감수책임자와 의무적 상의를 요하는 가장 거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언어가 인종차별적이거나 성, 정신장애 혹은 장애와 관련된 경멸적 표현인가?

어디서 그 언어가 사용되었는가?

텔레비전의 경우라면 그러한 언어가 사용된 것이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인가 이후인가? 라디오와 온라인의 경우 제한시청시간대가 없지만 시청자의 기대가 대부분의 미디어 플랫폼 상에서 거친 언어에 대한 반응을 대체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약한 수준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는 BBC1에서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코미디 <우리 가족(My Family)>보다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는 소프 오프라(예를 들어 <이스트엔드 사람들(East-Enders)>)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그 언어가 사용되었는가?

그 언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내는가? 농담을 더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주는가? 극적인 장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가? 거친 언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청자는 거친 언어가 사용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좀 더 너그럽게 대하게 된다. "이것이 꼭 필요한가?"는 시청자와 콘텐츠 제작자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다.

누가 그 말을 사용하였는가?

우리 시청자는 또한 거친 언어를 누가 사용하는가에도 영향을 받

는다. 공중은 저널리스트나 진행자가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초대 손님이나 인터뷰 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운 편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시청자들에게 특별히 인기가 있는 진행자나 연기자 혹은 캐릭터가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드라마와 코미디, 그리고 특히 오락물에서 유명한 시리즈물이나 캐릭터나 연기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나 시청자에게 덜 "익숙한(heritage)" 경우에 비해 보통 더 많은 재량이 부여된다.

거친 언어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거친 언어, 모욕과 경멸적 표현의 영향력은 듣는 이가 누군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누군가를 향한 욕설은 같은 모욕적 표현을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했을 때 보다 그 영향이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어떻게 그 언어가 사용되었는가? 어조와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어조와 의도가 시청자에게 중요하다.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어조로 전달된 언어는 같은 언어가 농담조의 어조로 사용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순수하게 놀람이나 공포를 표현하기 위한 경우라면 같은 언어가 미리 대본에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수용하기 쉽다.

거친 언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가?

사용된 거친 언어의 분량은 우리 시청자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약한 수준 혹은 중간 정도 수준의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개의 단어는 그것이 시청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한 통상 제한시청시간대 30분 이전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을 경우 수용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의 한 짧은 꼭지 전체에 걸쳐 사용된다면 이는 시청자에게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고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유사하게, 가장 거친 언어가 때로 제한시청시간대 이후에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광범한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편집상의 목적이 없거나 단순히 충격을 주기 위해 사용된 경우라면 시청자가 금방 알아챈다. 예를 들어 2009년 <취향과 기준 그리고 BBC>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The Thick of It>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거친 언어는 편집상 정당하다고-즉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조종하는 주인공의 성격을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코미디 장치라고- 인정해서 그것이 방송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반대로 응답자들은 고든 램지의 <Kitchen Nightmares>에서 사용된 거친 언어의 상당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시청자 기대

시청자는 서로 다른 BBC의 플랫폼에 대해서 다양한 기대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텔레비전 시청자는 BBC1에 대해서는 거친 언어에 대해 덜 관대하다. BBC1이 다른 채널에 비해서 더 넓은 범위의 시청자가 보며, 자주 서로 다른 세대로 이루어진 한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청자 대부분은 오후 9시 텔레비전의 제한시청시간대가 되면 성인 콘텐츠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안다. 거친 언어-그리고 가장 거친 언어-가 제한시청시간대 이후에는 허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맥락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면(이를테면 <Comic Relief>나 <Children in Need>같은 자선 쇼) 시청자는 부적절하다고 느낄 것이다. 제한시청시간대 이후에 방송되는 콘텐츠라도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것이라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BBC1은 시청자 층이 넓기 때문에 오후 9시와 10시 사이에 거친 언어 사용의 금지 수준이 다른 BBC 텔레비전 채널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채널에 대한 이해와 기대 외에도 시청자는 몇몇 유명인이나 배우, 그리고 허구적 등장인물에 대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이해와 기대를 갖고 있다. 시청자가 특정 연기자나 등장인물에 대해 시청자가 통상 기대하는 것에 비해 더 거친 언어가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정보나 신문이나 잡지에 실

리는 프로그램 안내 등을 통해 역할이 바뀌었으며, 시청자가 통상 기대하는 것보다 더 거친 언어가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라디오에는 제한시청시간대가 없지만, 편집팀은 특정 시간대는 특정 종류의 콘텐츠가 적용되며, 거친 언어가 포함된 콘텐츠는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과 연결된 온라인 콘텐츠는 원래 시청자의 기대를 초월해서는 안 된다. 기타 온라인 콘텐츠에도 등급분류표시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변화하는 언어: 사용과 수용가능성

특정한 단어의 수용가능성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특히 차별로 고통 받는 소수자에 관한 언어는 점차 시청자에게 수용불가능한 것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faggot', 'poof', 'queer'와 같은 단어들이 서로를 지칭하는데 쓰일 수 있지만, 동일한 용어가 이성애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경우, 특히 공격적인 방식이나 분명하게 경멸적인 어조로 사용되는 경우 불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게이(gay)'라는 단어를 '쓰레기'라는 의미로 사용하거나 일반적으로 경멸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중 대다수에게 불쾌감을 준다.

BBC 이사회의 민원처리 위원회는 "게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의도하지 않은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이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콘텐츠 제작자들이 "gay라는 단어를 경멸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언어가 변화하면서 흑인 공동체의 일부가 'nigger'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cripple' 이라는 단어를 농담이나 반어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여전히 이 공동체 내에서 고통을 야기하고, 해당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할 경우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와 관련된 단어('mong' 혹은 'retard')도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속어

속어, 사투리, 지역적 어휘나 문구는 그 의미 또는 잠재적 불쾌감의 유발 정도가 시청자 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twat'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벼운(mild) 말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성 성기를 의미하는 속어인 'cunt'와 동의어기 때문에 가장 거친 언어 중 하나이다.

고전 콘텐츠

고전 콘텐츠의 경우 때로 현대의 시청자 층에게 수용 가능한 언어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날 대중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한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를 수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려운 결정을 요구한다.

다른 거친 언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맥락과 등장인물의 성격 그리고 편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BBC7의 경우는 편성의 많은 부분이 고전 코미디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코미디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단어들이 등장할 때 해당 채널의 시청자가 다른 시청자에 비해 놀랄 가능성이 더 적다. 또한 방영되는 영화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 프로그램이 처음 방송된 맥락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방송사 편집팀은 여전히 특정 대화가 수용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사안별로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 편집해야 한다.

정규 편성표 내에서 아카이브의 고전 프로그램을 편집 없이 직접 재방송할 때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청자는 보통 그러한 콘텐츠를 현대 기준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오늘날 경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삐 소리 처리 혹은 소리 죽이기

제작팀은 때로 거친 언어를 편집해서 프로그램에서 들어내기 보다는 삐 소리 처리(bleeping)나 소리를 죽이는 방법(dipping)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소리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발언자의 입모양을 통해 시청자가 그 단어를 알 수 있어서는 안된다. 오락 프로그램이나 사실기반 프로그램의 경우 첫 음절이나 마지막 음절을 포함함으로서 거친 언어가 있었음을 암시하고자 할 수도 있지만, 의도한 단어가 어떤 것인지 시청자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경우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추가적 읽을거리

이 준수요강은 2009년에 발간된 BBC 보고서『취향, 기준, 그리고 BBC: 태도와 도덕성, 가치 그리고 품행에 대한 영국 공중의 태도 *Taste, Standards and the BBC: Public attitudes to morality, values and behaviour in UK broadcasting*』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드라마에서의 폭력

(최종수정일 2010.10)

제작 가이드라인 이슈

본 준수요강은 다음의 제작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제5절: 유해와 불쾌감 유발: 시청자 기대, 콘텐츠 정보 및 폭력

요약

- 맥락은 드라마에서 폭력을 묘사함에 있어 핵심적이다. 시청자의 폭력에 대한 수용은 프로그램 시간대, 장르, 드라마의 질, 통합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력 같은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 시청자는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에 방송되는 드라마에도 때로 평상시보다 좀 더 거친 장면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덕적 틀 내에 놓여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 시청자는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에 방송되는 드라마에서는 대화에서든 태도에서든 혹은 짧은 폭력 장면에서든 폭력적 행위가

부주의하게 혹은 '정상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시청자는 제한시청시간대 이후에 방송되는 드라마에는 몇몇 폭력적인 장면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오후 9시 직후에 거친 장면이 포함된 드라마의 기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어린이에게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준이 서서히 달라지기를 원한다. 폭력적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서론

맥락은 드라마에서 폭력을 묘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우리 시청자는 특정한 폭력 행위의 적절성에 대해서 세심하고도 민감하게 판단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편성 시간: 제한시청시간대 기준은 시청자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시청자는 오후 9시 이후 바로 즉각적인 폭력적 내용물의 '기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일요일 오후의 편성에서는 폭력이 조금 더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기대이다.
- 장르 : 장르가 다른 경우 폭력의 용인 정도와 기대가 다르다.
- (프로그램의) 질 : 시청자는 프로그램의 질이 높을 때 폭력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게 수용한다.

- 통합성 : 시청자는 진행되는 이야기와 관련이 없거나 이야기에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폭력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프로그램의 내력: 사람들이 좋아하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프로그램과 연기자에게는 더 많은 폭력이 허용된다.

제한시청시간대 이전 드라마

시청자 기대

시청자는 제한시청시간대 이전 드라마에 때로 평소보다 좀 더 거친 장면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크리스마스나 신년에 방송되는 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부분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시청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거친 장면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틀 안에 있다는 것이다. 시청자는 '난데없이' 등장하는 폭력 장면이나, 줄거리나 캐릭터 차원에서 편집상 정당화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 폭력적 장면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덜 관대하다. 또한 시청자는 희생자의 생명에 가해진 폭력의 결과는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그러하다.

소프 오페라는 방송되는 순간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제작비가 저렴한 소프 오페라에서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 충격을 남기는 거친 장면은 거의 없지만, 그것이 처음 방송될 때, 특히 어린이와 함께 시청하고 있는 가족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폭력의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병원이나 경찰을 배경으로 특정한 구역을 다루는 드라마에서는 폭력이 더 허용되는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상당히 거칠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학 드라마는 그 속성상 우연적인 것이든 계획된 것이든 일정 정도의 폭력이 줄거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도 폭력에 대한 시청자의 관용은 한계가 있다. 폭력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장면이 길게 늘어지거나 거친 장면이 자주 등장하면 해당 시리즈물의 주제와 관계없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시청자는 판타지, 초현실주의 혹은 코미디 콘텐츠를 포함한 드라마 보다는 현실에 기반한 드라마에서의 폭력을 더 우려한다.

낮은 수준의 공격적 행위

시청자는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에 방송되는 드라마에서는 가끔 등장하는 폭력 장면보다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낮은 수준의 공격적 행위를 우려한다(예를 들어 소리 지르기, 손바닥으로 때리기, 밀치기와 위협 등). 많은 시청자는 대화에서든 태도에서든 혹은 짧은 폭력장면에서든 폭력적 행위가 부주의하게 혹은 '정상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언어적 공격, 소리 지르기나 괴롭히기 같은 것이 시청자, 특히 어린이 시청자에게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한시청시간대 이후 드라마

시청자 기대

제한시청시간대 이후 드라마의 경우 시청자는 몇몇 거칠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청자는 이러한 장면이 불필요하게-즉 이를테면 단순히 충격을 주기위해- 포함된 것이 아니라 플롯이나 등장인물의 성격묘사에 필요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느낀다.

프로그램의 질과 맥락, 그리고 익숙함(heritage) 또한 폭력적 장면의 수용에 중요하다.

- 강력하게 호소력이 있는 줄거리는 보통 시청자가 폭력을 수용하는데 일차적 기준이 된다. 시청자는 드라마가 제작 가치가 높으며 독창적이며 잘 짜인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는 경우 폭력에 대해 좀 더 관대하다.
- 잘 알려지고 신뢰받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장수 프로그램의 경우 신규 프로그램에 비해서 거친 장면에 대한 재량권이 좀 더 있다.
- 그러나 장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시청자는 여전히 매우 폭력적 이미지나 질질 끌거나 불필요한 장면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강도 높은(strong) 폭력은 드라마의 집중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름길이 아니라[즉 흥미를 끌기 위한 선정적 목적이 아니라-옮긴이] 훌륭한 줄거리나 캐릭터 발전과정의 일부이어야 한다.

청소년 시청자는 특히 양질의 미국 수입 콘텐츠를 좋아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한 폭력 수준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제한시청시간대 직후(Post-watershed Transition)

오후 9시 제한시청시간대 기준은 여전히 시청자에게 중요하다. 10대가 되어가거나 10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이를 둔 많은 부모는 제한시청시간대 이후에도 당연히 텔레비전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9시 직후 거친 장면의 기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모는 해당 프로그램이 어린들에게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준이 서서히 달라지기를 원하며, 이야기 구조가 잘 만들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성폭력 장면에 대해 특히 우려한다. 거친(strong) 콘텐츠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 읽을거리

이 준수요강은 2010년 BBC의 연구보고서인 『시청자와 폭력의 수용 가능성*Reviewing the Acceptability of Violence to Audiences*』에 근거하고 있다.

뉴스와 다큐멘터리에서의 폭력

(최종 수정 2010년 10월)

제작 가이드라인 이슈

본 준수요강은 다음의 제작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제5절: 유해와 불쾌감 유발: 서론, 시청자 기대, 콘텐츠 정보 및 언어
- 제7절 프라이버시: 죽음,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요약

- 가장 수위 높은 폭력 이미지는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하며, 시청자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는 등의 편집상 명백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뉴스 팀은 해당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관계없이 콘텐츠에 대해 일관된 편집 가치를 적용해야 한다. 모바일 폰의 영상 자료나 CCTV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시청자는 여전히 BBC가 자료 선택에 엄격한 편집 원칙을 적용할 것을 기대한다.

- 사망 순간을 방송하는 것이 편집상 정당화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예외적으로 폭력 수위가 높거나 불편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보도가 시작되기 전에 경고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위 높은 폭력 이미지는 뉴스 보도에 사용되느냐 다큐멘터리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시청자의 수용가능성 수준이 다르다. 뉴스가 보도되는 채널 그리고 다큐멘터리 브랜드의 친숙성 역시 시청자 기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 온라인 기사는 뉴스 아이템을 방송보다 더 길게 다룰 수 있지만, 폭력 콘텐츠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는 편집 원리는 방송에서와 동일하다는 점을 콘텐츠 제작자는 명심해야 한다.

서론

실제 삶에서의 폭력이나 그 여파를 텔레비전으로 보여주거나 온라인에서 보도할 때는 정확성의 요구와, 시청자를 폭력에 둔감해지게 하거나 시청자에게 정당화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간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청자는 자신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BBC 기자가 보도하는 명백하고 사실적인 뉴스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시청자는 또한 이목을 끄는 수위 높고 때로 폭력적인 이미지가 시청자를 뉴스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동시에 뉴스와 다큐멘터리에서 폭력적인 이미지의 사용은 시청자가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를 고려하는 세심한 판단을 요구한다. 그러한 기대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맥락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맥락에는 결과물의 속성, 편성, 이미지를 사용하는 편집상의 목적이 포함된다.

수위 높고 폭력적인 이미지의 일반적 수용가능성

가장 수위 높은 폭력 이미지는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하고,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등 편집상 분명하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청자는 수위 높은 이미지가 해당 주제에 필요하고 편집상의 정당성이 분명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텔레비전 뉴스가 기사의 강도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때로 기존의 경계를 밀어붙여서 보다 센(robust) 이미지를 보여주기로 하는 예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청자는 알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는 무의미하거나 선정주의적인 폭력 이미지의 사용은 즉각 알아차린다.

뉴스 팀은 그 출처와 무관하게 콘텐츠에 대해 일관적 편집 가치를 적용해야 한다. 모바일 폰이나 CCTV 영상 자료는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시청자는 BBC가 이러한 자료를 선택할 때 엄격한 편집 원칙을 적용할 것을 기대한다. 예를 들어 거리나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싸움을 찍은 모바일 폰 영상은 단지 그것이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텔레비전으로 보여주거나 온라인상에서 틀어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우리는 해당 이미지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 영상이 이용 가능해서 사용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시청자는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 보도의 경우 수위 높은 이미지에 좀 더 수용적이다. 그러나 총격전이나 방치, 학대와 같이 직접 인간이 야기한 비극을 보여주는 이미지에는 더 불편함을 느낀다.

사망 순간을 보도하는 것이 편집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많은 시청자가 여전히 그러한 이미지를 타부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뉴스 보도나 다큐멘터리에 사망 순간의 장면을 포함하려고 할 때는 가장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민감한 다른 영역에는 취약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대상, 특히 어린이와 동물에 대한 잔인한 폭력이 포함된다. 특히 소아성애에 관한 보도에서 시청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행된 범죄의 세부 내용이나 이미지는 제한되기를 바란다.

시청자 기대

채널과 편성

시청자는 뉴스 보도에서 수위 높은 이미지와 스토리의 강도와 잠재적 영향력에 관한 편집상의 결정을 내릴 때 서로 다른 시청자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제한시청시간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 시청자는 몇몇 수위 높은 자료 영상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어떤 보도 내용을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볼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예외적으로 수위 높고 불편한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 보도 전에 경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청자는 제한시청시간대 이전과 이후의 뉴스 보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자료를 기대한다. 특히 부모의 경우는 수위 높은 자료는 제한시청시간대 이후에 방송되어서 자신들이 어린이를 대신해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뉴스보도가 방송되는 채널 역시 시청자 기대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다. BBC1 뉴스 보도는 채널 편성에 통합되어 있는 일부로 간주되며,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는 비록 뉴스 보도에 수위 높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해당 채널이 광범한 시청자를 위한 가족 중심 채널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성인 시청자를 위한 새로운 채널을 내보낼 때는 동일한 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내보낼 때 가

장 수위 높은 폭력 이미지는 편성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distressing) 이미지를 인터뷰, 혹은 사실보도나 인물보도의 '배경 화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해당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중요성을 평가 절하할 위험이 있다.

장르에 대한 기대

수위 높은 폭력 이미지가 뉴스보도에서 사용되었느냐 다큐멘터리에서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시청자의 수용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수위 높은 이미지는 짧은 뉴스 보도에 포함된 경우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특히 장편물에서 클립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한다. 시청자가 폭력적 이미지에 대비하게 하는 데 필요한 단계인, 상황을 설정하고 장면의 맥락을 분명하게 해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길이가 긴 다큐멘터리는 폭력적 이미지를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생한 폭력묘사가 편집상 필수적임을 시청자가 이해하면 그것이 불쾌하고 끔찍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여전히 수위 높은 폭력 이미지에 대해 시청자가 민감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제한시청시간대 이전에 편성된 다큐멘터리는 해당 콘텐츠가 일반 시청자에게 두루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제한시청시간대 직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

램의 성격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가 적절하게 설정되기 전에 너무 빨리 수위 높은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연구결과는 또한 다큐멘터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시청자는 '실제'에 기반한 객관적 다큐멘터리의 폭력적 이미지, 특히 카메라 앞에서도 잔인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덜 관대하다.

프로그램 브랜드에 대한 기대

프로그램 브랜드의 친밀성은 이례적으로 수위 높은 주제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 및 수용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잘 알려진 시리즈(<파노라마> 같은)는 보통 이미 시청자와 신뢰를 구축했기 때문에 스토리 및 조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수용되지 않을 방식으로 폭력적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다.

공중의 이해와 관련해 세인의 관심이 높은 스토리를 다루는 일회적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도 폭력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쉽게 이해되고 적절하고 선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시되기만 하면, 시청자는 폭력적 이미지를 도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어조 역시 중요하다. 수위 높은 장면을 과장하는 대본이나 흥분한 전달 방식은 시청자에게 해당 내용 전체가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잘 알려진 진행자는 상대적으로 신인인 진행자에 비해 수위 높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 좀 더 많은 재량권이 허용된다.

온라인에 대한 시청자 기대

BBC 뉴스는 플랫폼이 다르더라도, 즉 방송이든 온라인이든 관계없이 일관된 편집 원칙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기사의 경우 방송에 비해 이야기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콘텐츠 제작자는 폭력적 콘텐츠를 판단하는 편집 원칙은 방송 내용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용자는 온라인 다른 곳에서 수위 높은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이미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BBC 브랜드는 신뢰받는 신중한 콘텐츠 제공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추가적 읽을거리

이 준수요강은 2010년 BBC 연구보고서 『시청자와 폭력의 수용 가능성*Reviewing the Acceptability of Violence to Audiences*』에 근거하고 있다.

Ⅲ

BBC 트러스트 자율 심의 사례

1. BBC 편집기준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1) 〈BBC News〉 웹사이트 기사 ····· 216
2) BBC 1 〈파노라마: 석탄이 돌아오다〉 ····· 221
3) BBC 3 〈2008년 우리를 가장 짜증나게 한 사람들〉 ····· 233

2. BBC 과학보도의 불편부당성과 정확성에 관한
BBC 트러스트 리뷰 ····· 251

1. BBC 편집기준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BBC의 자율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BBC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있을 시 민원인은 전자우편, 팩스, 일반 우편, 전화 등을 통해서 민원 사항을 BBC에 접수할 수 있다. 민원을 접수한 BBC는 해당 업무를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나 BBC 고객센터(Information Desk)에 이첩하여 답변하게 한다.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특별히 해당 프로그램이 BBC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고 생각될 경우 ECU(Editorial Complaints Unit, 방송민원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ECU에서도 해당 민원에 해결되지 않았다면, BBC 트러스트에 재심을 제기하게 된다. BBC 트러스트에서는 ESC(Editorial Standards Committee, 편집기준위원회)에서 해당 민원을 매달 개최되는 정기 회의에서 해당 민원을 검토하여 그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번역된 민원 사례는 모두 3차 민원이 제기되어 BBC 트러스트에서 보고서를 발간한 경우이다.

1) <BBC News> 웹사이트 기사

"1967년은 중동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How 1967 Defined the Middle East)"의 수정사항에 대한 평가
(『편집기준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Editorial Standards Findings: Appeals and other editorial issues to the Trust considered by the Editorial Standards Committee*』 2009년, 12월호에 수록)

이 사례는 편집가이드라인 3절 정확성 및 4절 불편부당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정한 모호한 표현들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오해가 발생할 염려, 다양한 주장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심의 사례이다. 특히 이 사례는 민원인이 BBC에 의한 자율심의 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재심의를 의뢰한 건으로 실제로 뉴스 기사가 수정되었는가를 심의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2009년 심의 사례이므로 해당 사례의 심의는 수정된 『제작 가이드라인』이 아닌 기존 『제작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민원인은 본 편집기준위원회가 2009년 3월 3일 내린 결정에 따라 BBC 뉴스(BBC News)가 "1967년이 중동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기사에서 수정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먼저 기사가 불편부당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1차 심의 결과를 충분히 수용하여 수정되었는지에 살펴보았다. 위원회는 1차 심의에서, 해당 기사가 다양한 주장들에 대해 동등한 시간

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존경받을만한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대안적 주장들이 있음을 알리는 명백한 진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음을 상기시켰다.

위원회는 기사의 수정사항이 대안적 주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데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수정된 기사의 첫 번째 문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7년 중동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중동을 바꾼 6일"이라는 라디오 시리즈를 제작한 바 있는 BBC 중동 전문 기자 제레미 보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전투 준비 완료(Spoiling for a Fight)"라는 헤드라인에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 역사가들은 1967년 전쟁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 중 한 갈래는 이스라엘의 다윗이 아랍의 골리앗을 이겼다고 보는 것은 신화이며, 중동에는 두 골리앗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정확성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이 수정내용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원래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 이스라엘 장성들의 경력 대부분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전쟁이라는 끝나지 않은 임무를 끝마치기 위한 훈련으로 이루어졌다.

2009년 3월 3일 ESC는 이 표현이 정확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는 독자의 입장에서 저자가 생각하는 끝나지 않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정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 이스라엘 장성들의 경력 대부분은 1948년의 이스라엘 독립 전쟁이라는 끝나지 않은 임무-동예루살렘의 탈환-를 끝마치기 위한 훈련으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이러한 추가 표현이 "끝나지 않은 임무"가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하였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은 수정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동일한 문구가 해당 기사의 사진 캡션으로 사용되었으며, 해당 캡션은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위원회는 BBC 뉴스에 해당 캡션을 즉각 수정하도록 요구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원회는 다음으로 원래의 기사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 승리의 메시아적 순간이 국경을 확장하려는 시오니즘의 내재적 본능과 결합되었고, 그 결과는 정착 운동이었다.

3월의 심의 결정 사항에서 위원회는 해당 표현이 정확성을 결하고 있고 그 내용이 분명하게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수정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리의 메시아적 순간이 국경을 확장하려는 시오니즘의 경향과 결합되었고, 그 결과는 정착 운동이었다.

위원회는 이 수정사항이 위원회의 원래 결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또한 수정된 기사가 수정된 기사라는 사실이 충분한 시간 동안 현저하게 공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위원회는 수정된 기사와 함께 1차 심의 결과를 공지한 것이 충분한 대응이었으며, 수정된 기사를 더 긴 시간동안 현저하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수정된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덧붙여진 진술, 즉 "[ESC는] 해당기사가 해당 기사가 불편부당성에 대한 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인정했다"는 진술은 불완전하다

고 지적하였다. 사실 ESC는 그 기사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하나의 민원 사항은 인정하고 다른 민원 사항은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BBC 뉴스>팀에 이 문장을 수정하도록 지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BBC 뉴스>가 사진 캡션을 수정하고, 위에 기술된 바대로 기사의 맨 마지막 문단을 수정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외 기사 수정 사항이나, 해당 수정 사항이 공표된 방식은 적절하고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민원 사항은 따라서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

결과: 부분적 인정

2) BBC 1 <파노라마: 석탄이 돌아오다*Panorama: Comeback Coal*>

(2008년 12월 1일 방송)

(『편집기준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Editorial Standards Findings: Appeals and other editorial issues to the Trust considered by the Editorial Standards Committee*』 2009년, 7월호에 수록)

이 사례는 온실 가스 문제 등 환경 보도 분야와 관련하여 정확성 문제를 심의한 것이다. 표현 및 영상 자료에 의한 시청자 오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다. 냉각탑과 온실가스 문제라는 해당 주제는 영국 사실기반 프로그램 보도 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온 것으로,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정도로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례이다. 2009년 심의 사례이므로 수정된 『제작 가이드라인』이 아닌 기존 『제작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 배경

<파노라마>의 해당 에피소드는 최근 노천 채굴의 증가를 다루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것이 온실 가스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고, 그 과정에서 수증기를 배출하는 냉각탑의 사진을 포함한 몽타주 화면을 방송하였다.

2. 시청자 민원 내용

단계 1

민원인은 2008년 12월 1일 해당 프로그램이 화력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 방출에 대해서 논하면서 수증기를 배출하는 냉각탑만을 거의 전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BBC에 보냈다. 민원인은 이 목적에 이러한 화면[냉각탑 화면]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했으며 냉각탑이 화력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굴뚝이라는 오해를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민원인은 BBC에 해당 이슈를 잘못 보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둘 것을 요청했다.

BBC 고객센터는 2008년 12월 12일 해당 민원인의 주장이 접수되었음을 공지하였다.

민원인은 동월 15일 다시 한 번 이는 "심각하게 잘못된 재현"으로 냉각탑이 공기오염에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신화를 심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원인은 또한 영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냉각탑이 연기나 유해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 왕립화학회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다.

민원인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이메일 교환 과정 이후, BBC 고객센터는 2009년 1월 22일 <파노라마>의 해당 에피소드를 제작한 프

로듀서의 답변을 첨부하였다. 프로듀서는 공중에게 냉각탑에서 나오는 증기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오도할 고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제작자는

> "[그러한 점을 보여주려고 할 때] 냉각탑이 발전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므로 그것을 빼고 보여주는 것은 어렵다"

고 지적하였다. 제작자는 또한 민원인이 해당 민원을 2단계 과정으로 넘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

단계 2

민원인은 2009년 1월 29일 ECU에 편지를 써서 <파노라마>의 해당 에피소드가 냉각탑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재현한 것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되풀이했다. 그는 왕립화학회의 결론도 다시 되풀이했다.

2009년 3월 2일 ECU는 민원인에게 그의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응답을 제공하였다. ECU는 가장 관계있는 주장은 냉각탑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화력발전의 직접적인 부산물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ECU는

> "시청자가 잘못된 인상은 실제로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시청자는 화력발전소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해당 시퀀스의 요점을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므로 그 결과가 심각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또한 ECU는 이산화탄소는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자가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ECU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시청자가 냉각탑(과 수증기)이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논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답변서에서 ECU는 해당 보도가 정확성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할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또한 답변서에서는 <파노라마>의 책임 프로듀서가 앞으로 유사한 화면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고려할 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겠다고 했음을 언급하였다.

민원인은 2009년 3월 28일 사안의 심각성이 충분이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 민원인은 해당 프로그램에서처럼 연상 작용을 통해 냉각탑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것은 제작 가이드라인을 '심각

한 방식'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원인은 전 세계에 있는 냉각탑의 대다수가 전력 생산과는 관계가 없으며, 전력 생산과 관련된 경우라도 모든 연료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민원인은 BBC 프로그램이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구온난화를 화면으로 보여줄 때 다른 방식을 찾아야만 한다고 결론 내렸다.

ECU는 2009년 3월 27일자 답변에서 <파노라마>의 해당 에피소드에서 문제된 관련 시퀀스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관련되어 제시되었다고 말했다. ECU는 프로그램 맥락상 시청자가 냉각탑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연결시키는 오도된 인상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견해를 반복하였다. ECU는 또한 <BBC 뉴스>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 이야기할 때 냉각탑을 사용하여 시청자를 오도할 가능성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요강을 제작진에게 배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단계 3: 편집기준위원회

2009년 4월 2일 민원인은 ESC에 편지를 써서 <파노라마> 프로그램의 냉각탑 이미지가 잘못 사용된 것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되풀이하였다.

3. 적용가능한 편집기준

제3절 정확성

정확성에 대한 BBC의 약속은 BBC의 명성의 기반이자 핵심적인 편집가치이다. BBC 제작물은 출처가 정확해야 하고, 믿을만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며, 철저히 검증되고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고 근거 없는 추론을 피해야 한다.

BBC에게 있어 정확성은 속보보다 더 중요하며, 그것은 통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 이상의 문제이다.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보를 저울질해보아야 한다. 논쟁적인 이슈인 경우 사실만이 아니라 관련된 의견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정확성을 달성하기 위해

- 가능한 한 1차적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한다.
- 사실을 확인하고 교차 확인한다.
- 디지털 자료나 문서 증거의 진실성을 입증한다.
- 가능하다면 언제든 출연자들이 제시한 주장과 진술을 입증해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시청자의 오도

알려진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로 조작된 자료를 제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시청자를 오도하는 어떠한 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료를 잘 분류할 필요가 있다.

4. 편집기준위원회 결정 사항

편집기준위원회에서는 민원이 BBC의 제작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관련된 편집기준에 대한 것인지 먼저 검토하였다. 제작 가이드라인은 BBC의 가치와 기준을 진술하고 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완전히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편집자문관의 보고서(Editorial Advisor's Report)와 그 보고서에 대해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이 포함된다(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민원은 정확성에 대한 제작 가이드라인을 살펴볼 것을 요구하는 이슈를 제기했으며 특히 시청자의 오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위원회는 정확성에 대한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BBC 프로그램은 출처가 정확해야 하고, 믿을만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며, 철저히 검증되고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언급

했다. BBC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고 근거 없는 추론을 피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BBC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창작된 자료를 사실로 제시하거나, 또는 알면서 시청자를 오도할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BBC가 사실을 확인하고 교차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민원인이 ESC에 보낸 민원 서한에 나와 있는, <파노라마>가 "발전소에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묘사하면서 냉각탑 이미지를 부정확하고 부적절하며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 했다고 하는 주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프로그램 상에서 냉각탑이 나오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화면 위로 흐르는 논평들도 확인하였다.

〈파노라마〉의 스크립트	
화면	논평 및 자막
수증기 구름이 냉각탑으로부터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장면	**내레이터(보이스오버): 이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바로 이산화탄소의 전지구적인 증가에 있어 80%정도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냉각탑이 증기를 토해내는 가운데 해가 지고 있는 장면	**석탄보다**
냉각탑과 굴뚝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장면을 디졸브 편집	**정부는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파노라마〉의 스크립트	
화면	**논평 및 자막**
냉각탑만 디졸브 샷으로 보여줌	**청정 석탄이다**
냉각탑과 굴뚝 화면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 그러나 그것만이 희망인가?**
냉각탑과 굴뚝의 슬로우모션 장면	에드 밀리밴드(자원과 기후 변화국 비서관)(보이스오버): 대변인, 정부는 기후 변화위원회의 추천안을 모두 받아들일 것입니다.
독일 발전소의 먼 거리 장면	2050년까지 80%수준까지 온실 가스를 줄이고 기후 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독일발전소의 냉각탑 장면	그리고 그 대상은 법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수증기	음악
배경으로 냉각탑이 보이는 드라이빙 쇼트	**내레이터(보이스오버) : 탄소 방출을 극적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이다. 어려운 문제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BBC 민원 과정의 1단계 민원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자가 응답한 내용에 주목하였다.

> "냉각탑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공중을 오도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실제 몇몇 샷들에 사용된 논평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점을 보여주려고 할 때 냉각탑이 발전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므로 그것을 빼고 보여주는 것은 어렵다"

위원회는 또한 민원인에 대한 ECU의 답변에 주목하였다.

> "화력발전소에서 냉각탑이 시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며 <파노라마>의 보통 시청자에게도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청자가 냉각탑(과 수증기)이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논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위원회는 <BBC 뉴스>가 냉각탑 화면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준수요강을 발행해서 뉴스룸의 과학전문 기자와 프로그램 편집자에게는 배포했으나 <파노라마> 팀에는 배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준수요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냉각탑 - 민원 최소화 계획**
>
> 냉각탑을 온실효과와 관련하여 사용할 때마다 민원을 접수하게 되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냉각탑은 통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유럽의 경우 몇몇 발전소는 냉각탑 내에 굴뚝이 있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복잡하다).
>
> 그러므로 증기를 배출하는 냉각탑을 보여줄 때 이산화탄소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도록 추가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지어 실제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굴뚝을 포함하는 와이

드 샷조차도 원고가 주의 깊게 작성되지 않으면 오해를 일으키는 장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냉각탑이 지나치게 두드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전소 시퀀스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굴뚝 샷으로 시작되면, 이어지는 샷에서 냉각탑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 내에서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냉각탑 샷 자체를 금하라는 권고가 아니다. 대신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샷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보도할 때에는, 프로듀서가 그것을 헤드라인이나 그래픽 시퀀스에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보도에서는 발전소의 공중 샷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전력발전소, 중앙난방, 집 등을 낮에 촬영할 때는 낮에 사용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결론을 제시할 때가 되자 이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가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자가 이를 묘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또한 제작팀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굴뚝 장면은 보여주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문제를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논평하면서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몽타주 장면에 사용된 일련의 화면에서 오염물질이 탑에서 방출되는 것 같은 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퀀스의 전체적인 효과가 시청자를 오도하는 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장면 앞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시청자를 오도하고자 하는 어떤 암시도 없었다는 점에 만족감을 표했다. 위원회는 냉각탑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연결되었든 아니든 간에, 냉각탑의 이미지가 온실 가스 배출과 관련된 코멘트와 연결된 것은 부정확한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과학전문기자와 편집자들에게 냉각탑 장면의 사용에 관한 분명한 준수요강이 배부되었다는 점에 주목했고, 냉각탑과 관련한 장면의 부정확한 사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실기반 프로그램 영역이 그 준수요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위원회 결론 : 이의 인정

3) BBC 3 <2008년 우리를 가장 짜증나게 한 사람들 *The Most Annoying People of 2008*>

(2008년 12월 29일 방송)

(『편집기준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Editorial Standards Findings: Appeals and other editorial issues to the Trust considered by the Editorial Standards Committee*』 2009년, 9월호에 수록)

이 사례는 편집가이드라인 「제5절: 유해와 불쾌감 유발」과 관련하여 특히 소수자의 묘사에 대한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자들의 발언 내용이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심의이다. 2009년 심의 사례이므로 해당 사례의 심의에는 수정된 편집가이드라인이 아닌 기존 편집가이드라인이 사용되었다.

1. 배경

BBC3의 해당 프로그램은 2부로 구성된 오락 프로그램 시리즈로서 2008년 가장 짜증나는 사람 100명을 뽑는 가벼운 오락 프로그램이었다. 이 시리즈는 BBC 웹사이트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열 받게 했던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무례하고 불손한 방식으로 돌아보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프로그램 2부에서 43위를 차지한 린제이 로한과 사만다 론슨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순위에 포함된 이유는 자신들의 성적 관계에 대해서 언론을 "갖고 논(tease)" 방식 때문이었다. 이 꼭지의 출연자 중에 디제이 스투니와 론 제레미가 있었고, 이들은 이 커플의 여성 동성애적 관계에 대해 논평하고 여성 동성애에 대한 자신들의 개인적 태도를 드러냈다.

2. 방송내용

(43위: 배경음악 Goodbye Sam, Hello Samantha)

논평: 다음 순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로스엔젤레스의 디제이 샘 론슨입니다. 그녀는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인 마크의 동생이죠. 그녀는 올해 할리우드의 최악의 비밀을 끌어냈습니다.
캡션: 헐리우드의 최악의 비밀이 폭로되다(그리고 이건 린제이 로한의 일이다)
논평: ...바로 그녀가 한때 남자 사냥꾼이던 린제이 로한과 연인관계라는 겁니다.

하이디 파커(스타 매거진 편집국장)
짜증스러운 건 그들이 자신들이 정말 연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언론을 너무 가지고 놀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연인이라는 건 정말 명백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들은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에 빠져 있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좀 짜증스럽기도 하죠.

(배경음악: 'I kissed a girl')

논평: 그들이 커플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나서 두 사람은 언론의 주목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캡션: 릴로[린제이 로한의 애칭]: 내 동성애 연인 로한 디제이가 자신의 여자친구임을 인정.

논평: 그리고 몇몇 남성들에게는 샘이 린즈와 같이 잤다는 것 자체가 약간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론 제레미(포르노배우): 잘 아시겠지만 그건 양날의 검이에요. 남자들은 그녀와 사귀고 싶어 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그녀는 지금 레즈비언이야. 왜냐. 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스푸니
(5 라이브뉴스 뉴스아나운서)
못생긴 매력 없는 여자들(munters/mingers)은 같이 다니라고 하세요. 그건 괜찮아요. 아무도 그런 여자를 원하지 않으

니까요. 그렇지만 그녀들은 정말 화끈하고 멋져요. 제 말 아시겠죠. 할리우드의 슈퍼스타들은 남자를 만나야 해요. 뭐 나같은 남자는 아니구요. 다른 남자들 말이에요.

하이디 파커: 샘은 린제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었고, 선셋대로(Sunset Boulevard)에서 미친 짓을 안 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샘이 디제이로서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를 고용하면 린제이도 따라왔기 때문이죠. 린제이는 샘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핫한 소녀죠. 그래서 둘은 좋은 팀이에요.

미란다 소이어(언론인): 제 말은 린제이 로한은 여러 해 동안 술에 빠져서 살았고 바닥을 향해가고 있었어요. 정말 불행하고 끔찍해 보였지요. 하지만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세요. 그녀는 정말 행복해보여요.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샘 론슨은, 전 귀엽다고 말해야겠어요. 귀엽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녀는 뭐랄까 모든 여성이 모든 여성이 사귀고 싶을 그런 레즈비언이에요. 멋져요.

폴 플린(<그라찌아(Grazia)> 칼럼니스트): 레즈비언 공동체는 그녀에 대해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해서는 핫하고 쿨한 레즈비언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배경음악 'Push Push in the Bush')
폴 폴린: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외모와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두 사람을 보기만 해도 당신이 침대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될 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론 제레미: 길에서 저를 만난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물어봐요. "어떤 게 최고인가요- 여자 둘? 여자 셋? 여자 넷? 여자 열?" 저는 둘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둘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더욱 좋죠. 쉬면서 샌드위치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그들은 계속 하고 또 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멋져요. 그 두 사람은 외모가 정말 좋아요. 가운데 한번 끼고 싶네요. 농담이 아니에요. 서로 하고, 나와 하고, 또 서로 하고, 또 나와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 펑 소리를 내며) 우리가 빵 터지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펑 터뜨리는 게 예의를 지키는 거죠. 쓰리썸에서는 한쪽만 편애하면 안돼요.

3. 민원

단계 1

민원인은 BBC 고객센터에 2008년 12월 29일 편지를 보내서 해당

프로그램이 레즈비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프로그램에서 사만다와 린제이 간의 관계에 대해 남성중심적이고 동성애혐오적인 이야기들이 오가서 저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2009년 1월 2일 BBC 고객센터는 해당 프로그램은 불쾌감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고객센터는 해당 프로그램의 포맷이 출연자들이 "등장하는 유명인에 대한 관심이나 분노를, 악의적인 의도는 없는 가벼운 농담"으로 표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BBC 고객센터는 그 프로그램에서 표현된 관점이 BBC의 관점과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언급하였다.

민원인은 2009년 1월 6일 ECU에 답장을 썼다. 민원인은 해당 프로그램의 '불쾌한 부분(offensive section)'에 가벼운 농담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해당 프로그램은 해당 두 사람(사만다 론슨과 린제이 로한)에 대해 무엇이 짜증나고 불편한가를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포르노스타인 론 제레미에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그가 여자들끼리 관계를 갖는 것을 보는 것을 얼마나 즐기는가를 시청자들에게 말하게 하였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은 그러한 발언이 "모든 레즈비언과 함께" 두 여성을 "매우 악의적이고 역겨운 방식으로 극도로 성애화"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또한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에 출연한 디제이 스푸니가 'munters'나 'mingers'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예쁜 레즈비언들이 여자들과 데이트하면... 자신이 그녀들과 사귈 수 없기 때문에" 불쾌하다고 발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였다. 민원인은 BBC 제작 가이드라인이 인물묘사(portrayal)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BBC는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불리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격적이고 고정관념적인 가정을 피해야한다"

민원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대신 민원인은 BBC가 "레즈비언에 대한 불쾌하고 해로운 신화를 가장 근거 없는 방식으로 조롱하고, 성애화하고 영속화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였다.

ECU는 2009년 1월 9일 답변서에서 민원인에게 BBC의 공식적인 불만처리 절차에 따라 좀더 상세한 답변을 받기 위해 해당 민원을 프로그램 제작팀에게 해당 민원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해당 시리즈의 프로듀서는 2009년 2월 9일 답변서에서 <2008년 가장 짜증나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은 지난 12달의 사건을 가벼운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프로듀서는 두 유명인사가 2008년 동안 "과도하게" 미디어에서 다루어진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으며 단지 그들의 성적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인하면서 동시에 공중의 눈에 띄도록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디는 또한 인터뷰한 사람들을 선정한 방식도 설명하였다. 피디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다양한 시각과 성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었다. 피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디제이 스푸니와 론 제레미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은 결코 악의는 없었다. 론은 그들이 레즈비언인 것은 자신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 스푸니의 논평은, 우리가 느끼기로는 이성애자인 여성이 게이 남성을 두고 '아깝다'라고 말하는 것과 대체로 비슷한 것이었다.

또한 피디는 해당 섹션에 출연한 다른 논평자들인 소이어와 하이디 파커가 로한의 관계가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했고, 또 다른 논평가인 폴 플린도 그들이 레즈비언에 대한 기존 인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디는 또한 자신도 여성으로서 "남성중심적이거나 동성애혐오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떤 것을 방송한다는 생각에 대해 매우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단계 2

2009년 2월 13일 민원인은 ECU에 연락해서 시리즈 담당 피디의 답변은 숙고의 흔적을 보여주긴 하지만 자신이 [2009년 1월 6일자] 편지에서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 즉 "해당 프로그램에서 레즈비언에 대한 쓸데없고 고정관념적인 토론"이 BBC 자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ECU가 자신의 민원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ECU는 2009년 3월 25일 민원에 답변하였다. ESC의 결론은 해당 민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ECU는 해당 프로그램의 이 섹션 출연자의 선정 범위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ECU는 출연자들이 로한-론슨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에 주목했다. ECU는 또한 프로그램이 린제이 로한이 론슨과의 관계 이전에는 전적으로 이성애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고 남성들이 이 갑작스런 변화에 어떻게 '화가 났는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ECU는 론 제레미가 한 말은 린제이 로한의 성정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거부하는 남성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ECU는 또한 그의 논평은 이성애자 남성이 흔히 하는 "그래 맞아 그녀는 지금 레즈비언이지 그렇지만 그것 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야"라는 말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CU는 제레미가 면전에서 여성에게 거부당한 남성이 흔히 취하는 태도를 풍자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래서 그가 "레즈비언에 대한 고정관념적 태도를 영속화하기 보다는, 사실 특정 형태의 남성의 행동을 지적하며 그 행동을 조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디제이 스푸니의 발언 역시, ECU는 그 의도가 해학적인 것으로, "이성애자들이 매력적인데 게이인 사람을 만날 때 흔히 취하는 태도-'아깝다'라는 태도-를 조롱하고 있다"고 보았다. ECU는 "할리우드의 슈퍼스타들은 남자를 만나야 해요. 뭐 나같은 남자는 아니구요. 다른 남자들 말이에요"라고 한 그의 마지막 말이 이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ECU는 이 말이 그의 개인적 견해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배적인 태도를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ESC은 또한 그룹 섹스에 대한 론 제레미의 논평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ECU 프로그램 제작진은 그것은 순전히 코미디로서의 가치 때문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ECU는 "해당 논평은 일반적인 것으로, 여성들 간의 섹스에 대해 지나가면서 한 언급에 불과했다"고 서술했다. ECU는 해당 논평이 "레즈비언 여성에 대한 특별한-유해한 것이든 그 반대이든- 고정관념"을 설정하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

단계 3 BBC 트러스트 편집기준위원회(ESC)

민원인은 2009년 4월 21일 편집기준위원회에 편지를 써서 해당 민원에 대한 ECU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4. 적용가능한 편집 기준

제5절 유해와 불쾌감 유발

서론

BBC는 인간의 제반 경험과 자연 세계의 현실을 포함하여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BBC는 각각의 서비스에 적절한 방식으로 혁신적이고 도발적인 콘텐츠를 방송할 권리와 취약층을 보호하고 부당한 불쾌감 유발을 방지할 책임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시청자 중 일부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방송하거나 출판할 경우 항상 명백한 편집상 목적이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사는 불쾌한 언어, 모욕, 성폭력과 차별적 취급과 같은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시청자의 기대에 민감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하고 해당 콘텐츠가 분명하게 공지되어야 한다.

유해와 불쾌감 유발에 대한 편집 원칙

- 시청자가 해당 콘텐츠가 스스로나 어린이에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발적인 콘텐츠는 공지와 라벨링이 명확해야 한다.
- 모든 서비스에 있어 시청자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

시청자 기대

어린이를 포함한 시청자에 대한 콘텐츠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는 특정한 시간대의 경우 가능한 시청자의 기대와 관련되어야 하고 또한 서비스의 속성 및 콘텐츠의 속성과 관련되어야 한다.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 학교 시간과 주말 및 휴일을 고려할 때, 예상 어린이 시청자수와 연령층을 포함해서 시청자의 구성이 어떠할 것인가? (영국은 지역별로 학교 휴일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탤런트, 편성시간(slot), 제목, 장르나 서비스가 이미 시청자 기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해당 콘텐츠에 의해 그 기대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가?
- 시청자를 오도하거나 또는 곤란하고 도발적인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유해나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 곤란하거나 도발적인 내용이 있음이 명백히 공지되었는가?

묘사

BBC는 완전하고 공정하게 영국 내 사람과 문화를 서비스 내에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콘텐츠는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편견과 불

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지만 이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장애, 연령, 성적 정체성이나 기타 등의 관점에서 묘사하는 것은 명백한 편집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공격적이거나 고정관념적인 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편집기준위원회 결정 사항

위원회는 민원인의 주장을 BBC 제작 가이드라인이 제안한 관련 편집 기준에 의해 판단하였다. 제작 가이드라인은 BBC의 가치와 기준을 진술한 것이다.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위해서, 편집자문(Editorial Adviser)의 보고서와 프로그램 제작팀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다음의 유해와 불쾌감 유발에 대한 BBC 제작 가이드라인 중 다음 두 가지 항목을 검토하였다.

- 시청자 기대
- 묘사

시청자 기대

위원회는 BBC가 방송사의 혁신적이고 도발적인 콘텐츠를 서비스에 적절한 수준으로 방송할 권리와 취약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또한 BBC가 일부 시청자들에게 불쾌할 수 있는 도발적인 콘텐츠를 방송할 때에는 분명한 편집상 목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역시 주목하였다. BBC는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청자 기대에 민감해야 한다. 그리고 도발적인 콘텐츠는 시청자가 그들과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내용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분명한 안내표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민원인이 린제이 로한과 사만다 론슨의 관계에 대한 논평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을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BBC 고객센터에 보낸 최초의 민원을 확인하였다.

> "위 프로그램이 보여준 사만다와 로한의 관계에 대한 남성 중심적이고 동성애혐오적인 토론에 심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레즈비언은 남성에 의해 성애화되지 않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는데, 귀사의 프로그램은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사만다 론슨과 린제이 로한에 대한 꼭지 전부를 레즈비언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확인해 주는 데 할애하기고 결정한 것입니까?"

위원회는 민원인의 불만사항이 론 제레미와 디제이 스푸니를 인터뷰한 세 개의 클립에 대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시리즈를 제작한 피디와 ECU의 응답도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담당 피디가 해당 프로그램은 '가벼운' 웃음거리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점, 그리고 두 명의 출연자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고 생각이 짧은 발언이었으며 론 제레미가 남성보다 여성을 선호하는 레즈비언에 대해 '과시적 발언'을 했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또한 ECU가 해당 발언은 풍자적인 것이고 이성애자들에 의해 채택되는 흔한 태도라고 답변한 것 역시 확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자의 답변인 론 제레미의 그룹 섹스에 대한 마지막 답변이 단순히 웃기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ECU가 확인한 점 역시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하이디 파커나 미란다 소이어와 같은 인터뷰 대상자는 해당 연인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 발언을 했다는 것 역시 주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전에 진행된 공지도 확인하였다. 해당 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이제까지는 다소 괜찮은 수준으로 짜증나는 사람들을 보여드렸지만 이제 2부에서는 <2008년 가장 짜증나는 사람들>을 공개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일부 거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BBC가 론 제레미와 디제이 스푸니의 특정한 발언과 관련해서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풍자와 조롱이 분명한 편집상의 목적이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론 제레미의 그룹 섹스에 대한 묘사 및 특히 해당 유명인 커플에 대한 발언에 주목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길에서 저를 만난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물어봐요. "어떤 게 최고인가요- 여자 둘? 여자 셋? 여자 넷? 여자 열?" 저는 둘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둘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더욱 좋죠. 쉬면서 샌드위치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그들은 계속 하고 또 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멋져요. 그 두 사람은 외모가 정말 좋아요. 가운데 한번 끼고 싶네요. 농담이 아니에요. 서로 하고, 나와 하고, 또 서로 하고, 또 나와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 펑 소리를 내며) 우리가 빵 터지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펑 터뜨리는 게 예의를 지키는 거죠. 쓰리썸에서는 한쪽만 편애하면 안돼요.

위원회는 그의 발언은 이 해당 기사에 코미디적인 요소를 덧붙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디제이 스푸니와 론 제레미의 발언이 제작진의 주장대로 가벼운 웃음거리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유명인 커플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포함해서 아이템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린제이 로한과 사만다 론슨에 대한 디제이 스푸니와 론 제레미의 발언이 무례하고 공격적인 언사였다고 보았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맥락이 '불경'스럽고 유명인의 가벼운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라고 해도 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BBC의 편집 기준과 가치에 익숙한 시청자의 기대를 벗어났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시청자의 70%가 25세부터 54세 사이의 성년

시청자(약47만 5000명)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BBC3의 시청자가 일반적으로 다른 BBC 채널에 비해 젊은 층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이와 같은 발언은 BBC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느꼈다. 위원회는 공지(signposting)가 있긴 했지만 그것이 이들 특정 발언에 대해 시청자를 적절히 준비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콘텐츠가 어렵고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편집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방송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고, 따라서 BBC 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물묘사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오늘날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편견과 불리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불쾌하거나 고정관념적인 가정은 피해야 하며 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묘사는 편집상 명백히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위원회는 시리즈 담당 피디가 언급한 린제이 로한과 사만다 론슨의 관계를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이유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피디가 한 말을 주목했다.

> 샘 론슨과 린제이 로한은 2008년 동안 "과도하게" 미디어에서 다루어진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그들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단지 그들의 성적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인하면서 동시에 공중의 눈에 띄도록 연애를 해왔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아이템 전체는 해당 프로그램의 장르에 있어서는 편집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해당 아이템 내의 일부 시각은 취약한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적 가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여기에는 레즈비언을 'munters'나 'mingers'와 연결시킨 디제이 스푸니의 발언과 레즈비언 관계를 선호하는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에 대한 론 제레미의 언급-"그래요 그녀는 지금 레즈비언이죠. 왜냐 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이것이 "이성애자의 일반적 태도를 풍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고정관념적 시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발언이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편집상 정당화되지 않는 고정관념적 가정을 만들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근거해서 볼 때 해당 프로그램은 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

결과: 민원 인정
결정사항: 위원회는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다시 방송될 때는 디제이 스푸니와 론 제레미가 등장한 세 개의 클립을 제외하고 편집할 것을 BBC 비전에 서면으로 요청한다.

2. BBC 과학보도의 불편부당성과 정확성에 관한 BBC 트러스트 리뷰

BBC Trust review of impartiality and accuracy of the BBC's coverage of science

이 글은 스티브 존스(Steve Jones) 교수가 제출한 보고서 「BBC 과학보도의 불편부당성과 정확성의 검토」에 대한 BBC 트러스트의 논평과 결론을 담고 있다. 존스의 보고서는 기후 변화 부분에 대한 모호함을 보완해서 2011년 8월 8일 업데이트되었다.

총설

과학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직접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다. 기후 변화로부터 DNA 기술에 따른 의학의 진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 발전과 관련된 논쟁이 우리의 공공담론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과학과 관련된 윤리적, 정책적, 그리고 재정적 질문이 매우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 과학보도는 종종 편집상의 민감한 이슈의 핵심을 건드린다. 그러므로 BBC의 시청자가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 보도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BBC 트러스트는 2010년 BBC 과학 보도의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을 검토해보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에 관한 관점을 마련하기 위해 임페리얼 공대(Imperial College London)의 '과학커뮤니케이션 그룹'에 내용분석을 의뢰하고, 런던대학 유전학 명예교수인 스티브 존스에게 독립적인 연구 보고서를 위탁했다. 이 보고서는 이제 막 완성되어 트러스트의 확인을 거쳤다. 이 보고서는 수많은 중요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 중 가장 환영할 만한 것은 과학보도 분야에서 BBC 뉴스가 일반적으로 질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보도는 광범한 BBC 서비스에 걸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현재 번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향상되고 있는 장르라는 평가를 받았다. 스티브 존스는 또한 BBC의 과학보도가 그 정확성과 명확성에 있어 모범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와 내용 분석은 BBC 과학보도의 몇 가지 약점 역시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BBC 부서전반에 걸쳐 과학 프로그램 제작자들 간에 상호접촉과 협력이 부족하고 협소한 범위의 외부정보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과학 보도에서 '적절한 불편부당성' 가이드라인의 적절한 적용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 존스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존스 교수가 BBC가 잘하고 있는 점을 많이 찾아내긴 했지만, 해당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선사항에 BBC 이사회가 귀를 기

울여 과학보도를 개선해 나갈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고, 그 조치들의 효율성을 감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특히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트러스트는 2010년 새로 도입된 '적절한 불편부당성' 가이드라인이 과학 보도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자는 과학보도에서 잘 알려진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시청자가 그러한 구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트러스트는 또한 BBC가 존스 교수가 인정하고 있는 조직 내부의 상당한 과학 전문인력(scientific expertise)을 최대화해서 과학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BBC 모든 서비스에 걸쳐 과학 콘텐츠를 향상시킴으로써 결국 시청자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BBC는 내부 전문인력에 의존하는 것 외에도 외부 전문가들에게 더 많이 의존함으로써 과학 공동체와의 기존 연계를 강화하고, BBC의 전 부서가 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BBC가 접촉하는 정보원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이사회에 대한 BBC 트러스트의 요구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나와 있으며, 이들 변화의 효과를 모니터하기 위한 BBC 트러스트의 계획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트러스트는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 주시할 것이다.

맥락

BBC 트러스트는 BBC 이사회를 감독함에 있어 시청료를 내는 시청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시청료를 내는 시청자가 BBC에게

최고 수준의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을 기대하는 것은 정당하며 트러스트는 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트러스트의 핵심적 임무는 편집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BBC의 콘텐츠는 BBC의 독립성과 공중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불편부당해야 하며, 트러스트는 BBC가 잠재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를 '적절한 불편부당성' 기준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것은 BBC 왕립칙허장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트는 불편부당성을 검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07년에 트러스트가 설립된 이후 세 번째로 수행한 불편부당성 검토보고서이다. 앞 선 두 편의 보고서에서는 경제 및 주권위임국가[devolved nations; 1997년 국민투표 이후 독자적인 의회를 갖게 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를 말함-옮긴이]에 대한 보도를 검토했다. 이들 보고서는 전문성을 지닌 주저자(lead author)가 콘텐츠에 대해 내린 독립적인 평가를 담고 있으며, 그러한 평가는 트러스트가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특별히 위탁해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는 시청료를 내는 시청자를 위해 BBC 보도 내용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보고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온라인에 걸쳐 BBC의 과학 보도의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공공정책이나 논쟁적인 주제와 관련된 과학보도를 대상으로 했다. 보고서는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과학, 일반 시리즈, 자연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BBC 웹사이트의 뉴스와 그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는 광범한 프로그램에 걸쳐 있는 사실기반 콘텐츠를 다룬다. 이 프로젝트에서 과학이란 단순히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기술, 의학, 그리고 과학자의 작업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보도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존스 교수의 보고서에 잘 나와 있다. 이 보고서에는 과학 공동체 내의 뛰어난 전문가로서 존스 교수의 시각이 다른 과학자들이나 프로그램 제작자, 관련 부처 장관 및 국회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BBC 시청자 위원회에 요청해서 받은 의견서나 그들과 행한 인터뷰 및 임페리얼 공대에서 수행한 내용분석의 주요 부분과 결합되어 있다. 내용 분석은 2009년과 2010년 여름 동안 격주로 4주간의 BBC 과학보도의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을 검토했다. 존스 교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그와 인터뷰한 사람들의 명단과 내용 분석 전문은 존스 보고서에 부록으로 나와 있다.

결과

연구 결과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존스 교수는 BBC 과학 보도가 만들어지고 방송되는 경제적, 사회적 맥락을 정리하였다. 영국은 (비록 세계 인구의 1%에 불과하지만) 세계 과학 연구의 10%를 생산하며, 미국과 일본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세계 과학 연구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이다. 영국 GDP의 1/3이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에 의해 생산된다. 영국 공중은 과학과 과학 정책 및 과학의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함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미디어

에서 얻고 있다. 존스 교수에 따르면, 영국에서의 과학의 중요성, 과학에 대한 공중의 관심, 그리고 '과학적으로 교양 있는 사회(scientifically literate society)'를 만들어가야 할 BBC의 역할, 이 모든 것이 BBC 과학 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2010년 '과학의 해'로 성공을 거둔 BBC는 이제 BBC가 계속 번영해나갈 수 있기 위해 향상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인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존스 교수는 BBC의 과학 콘텐츠가 대체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영국 내는 물론 해외 방송사의 과학 콘텐츠에 비해 앞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많은 과학 단체들이 BBC의 과학콘텐츠가 정확하고, 다양한 계층에 소구하며, 광범한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이를테면 <Horizon>같은 과학 전문 시리즈에서 <Woman's Hour>에 나오는 개별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칭찬한다. 그러나 존스 교수는 향상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려되는 몇 가지 영역을 지적하고, 그 영역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존스 교수가 기술한 대로) 때때로 과학보도와 관련해 불편부당성에 관한『제작 가이드라인』을 '과도하게 경직되게' 적용한 경우가 있다. 그 결과 어떤 스토리는 '비-논쟁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고, '소수 의견에 대한 부당한 주목'을 피하지도 못했다. 존스 교수는 MMR 백신의 안

전성 주장에 대한 과거 보도와 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 및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 변화에 대한 최근 보도를 예로 들고 있다. 존스 교수는 '목소리의 평등'을 달성하는 문제는 불편부당성과 관련해 "적절한 비중"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2010년 판 『제작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는 또한 '적절한 불편부당성'에 좀 더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 BBC의 부서 전반에 걸쳐 과학 프로그램 제작자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스는 부서 공동 과학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모든 BBC 뉴스를 감수하는 과학편집위원(Science Editor)을 임명할 것을 추천한다.

3. 과학 콘텐츠 스토리의 출처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선도적이기 보다는 반응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히 뉴스보도에서 두드러진다. 존스 교수는 광범한 범위의 다양한 과학 출판물에서 자료를 뽑아낸 외부의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더 잘 이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는 더 나아가 BBC가 과학 공동체와 더 많이 접촉할 것을 권고한다.

임페리얼 공대에서 수행한 내용 분석 역시 수많은 중요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자들은 분석한 BBC 뉴스 보도에서 어떤 유의미한 사실적 부정확성을 찾아내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또한 뉴스

와 비뉴스, 전문가 프로그램과 비전문가 프로그램 모두에서 광범한 BBC 콘텐츠에 걸쳐 과학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 콘텐츠에서 출연자가 과학적 주장에 대한 '신중한 논평'을 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한 신중한 논평이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 과학 담당 통신원(science correspondent)이 작성한 뉴스 보도였다. 또한 뉴스 스토리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에 관해한 뉴스 아이템의 4분의 3은 해당 연구를 수행한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의 내용이었다. 보도 자료가 배포되었다고 해서 BBC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도 자료가 제공된 뉴스의 상당수의 스토리들이 이것이 고려되고 탐구되어야 할 이슈임을 암시한다. 내용 분석에 따르면 연구에 관해 방송된 뉴스 아이템의 3분의 2 정도가 출판물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중 3분의 1만이 출처를 표기하고 있었고, 이 경우 대부분 그 출처는 『네이처(Nature)』, 『랜싯(The Lancet)』, 『영국 의학저널(The British Medical Journal)』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덧붙어 존스 교수는 내용 분석에서 나오는 기타 이슈에도 주목하게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포함된다.

1. 영국에서 남성 과학자와 여성 과학자의 실제 비율에 비해 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과학 콘텐츠에 과학자로 출연하는 남성 과학자의 수가 많다.
2. 네트워크 뉴스 콘텐츠에서는 영국의 남동부에서 나온 과학 뉴스가 지배적이다.
3. 사회적 맥락에서 과학을 살펴보는 콘텐츠가 부족하다(여기

에서 존스 교수는 <질문 시간 Question Time>에 등장하는 과학자가 드물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4. 과학의 세계에서의 실제 비중과 비교할 때, 천문학, 인류학, 지구과학, 생태학과 진화론이 (특히 텔레비전에서) 과도하게 다루어지며, 방송 뉴스에서는 의학 관련 스토리들이 과도하게 다루어진다.
5. 라디오 1, 2, 3와 BBC 3에는 과학 콘텐츠가 부족하다(물론 앞에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BBC 전체로 볼 때 과학 콘텐츠의 범위는 넓으며, 라디오4와 BBC4 같은 방송사는 이점에서 탁월하다).

전체적으로 보아 존스 교수는 BBC 과학 보도가 건강한 상황에 있으나, 개선되어야 할 몇몇 중요한 편집상 또는 조직상의 결함이 있다고 결론 내리며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한 해결책들을 제공하고 있다.

존스 교수의 보고서에 대한 BBC 이사회의 답변

BBC 이사회는 BBC 과학 보도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환영한다. 또한 이사회는 '지속적인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몇몇 유보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존스 교수의 보고서가 이사회의 이러한 노력에 있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사회는 존스 교수가 제시한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이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BBC 뉴스>에 과학전문편집위원을 임명한다. 과학전문편집위원의 역할은 방송과 BBC의 다른 영역들과 연결시켜주고, 뉴스 보도에 대해 자문하고, <BBC 뉴스>의 인터뷰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며, 서로 다른 영역의 과학 분야를 다룰 때 그 영역이 과학 연구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맞추어 그 비중을 평가하는 것이다.

- 범 BBC 과학 포럼을 구성한다. 과학포럼의 목적은 인터뷰 대상자의 인력풀을 향상시키고 방송에서 남성과 여성의 균형을 맞추고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 정보원을 재검토한다. 그 목적은 정보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때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 과학 공동체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것은 BBC 과학 프로그램(BBC Science)의 작업을 기반으로 한다.

'적절한 불편부당성'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있어서의 경직성에 대한 존스 교수의 지적에 대해 이사회는 과학 이야기가 취급되는 방식은 그 이야기의 성격과 맥락에 달려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과학 공동체 내부의 논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고, 반면에 비전문가의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 정당화 될 때가 있다. 불편부당성 내에서의 '적절한 비중'이라는 새로운 제작 가이드라인의 잠재적 효과에 덧붙여,

이사회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그 하나는 과학에서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저널리즘대학(College of Journalism) 온라인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2011/12년에 과학자들과 두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해서 현재의 과학적 이슈 및 그 이슈의 미디어 보도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한 영국 남동부 이외의 지역에서의 과학 관련 네트워크 뉴스 보도와 관련해서 <BBC 뉴스> 과학부서가 남동부 이외 지역(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를 의미-옮긴이)의 과학연구를 올바르게 재현하기 위해 그 지역과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이사회는 BBC가 샐포드 로 이전하고 트러스트에서 「지역 관련 보도에서의 불편부당성 검토보고서(Nations Impartiality Review)」를 내 놓은 이후 지역들이 미디어에 보도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과학 보도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사회는 본 트러스트 리뷰가 발간된 후 1년 동안 과학전문편집위원과 편집이사회가 과학보도를 분기별로 이들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하고, 편집기준위원회는 시행된 변화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트러스트의 결론

트러스트는 존스 교수와 그의 보고서 작업에 도움을 준 사람들, 그리고 임페리얼 공대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그룹의 노고에 감사드

린다. 트러스트는 이들 연구를 통해 나온 광범한 연구결과들을 받아들인다. 트러스트는 또한 보고서에 대해 숙고하고 의견을 내준 BBC 위원회에 감사드린다.

트러스트는 BBC 과학 보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결론이 명확히 제시된 것을 환영한다. 트러스트는 시청료를 내는 시청자들의 이해관계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중은 BBC에 대해 가장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BBC는 공중에게 과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결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트러스트는 존스 교수와 내용 분석팀이 지적한 과학 보도의 결점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과학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BBC 부서들 간의 접촉이 없고, 외부 정보원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절한 불편부당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존스 교수가 핵심으로 지적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트러스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존스 교수가 제안하고 위원회가 동의하고 첨부한 권고사항을 존중한다.

부서간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BBC 뉴스>에 과학 전문편집위원을 임명함으로써 과학 보도의 권위와 다양성을 강화하고, 범-BBC

과학 포럼을 설립하는 것을 트러스트는 환영한다(그 외의 조치들도 마찬가지다). 과학전문 편집위원이 뉴스 보도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위원회가 제안한 과학 포럼은 <BBC 뉴스>와 방송사 나머지 조직간 연계를 강화하고 서로의 전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시청자가 가능한 한 최상의 권위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과학 콘텐츠 제작에 관여하는 비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내 과학 전문인력에 당연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러스트는 또한 존스 교수의 권고사항에 기반해서 이사회가 내 놓은 제안들, 즉 BBC의 정보원의 범위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자들과 BBC간 연계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엔진의 사용을 검토하고, 과학 컨퍼런스의 참여를 확인해야 한다는 제안을 환영한다. 트러스트는 과학 공동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최근 'BBC 비전'의 전문가 패널이 과학부서의 직원들과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프로젝트는 과학 분야에서 보도 가능한 이야기거리, 과학 분야에서의 최신 경향과 관심사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자의 인식을 증가시킬 것이고 따라서 BBC의 보도도 좋아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학자들도 이러한 행사에서 만나게 되는 동료들과 BBC로부터 혜택을 입을 것이다. 트러스트는 위원회가 의지를 보인 바와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또한 과학자들과 함께 저널리즘 대학의 세미나를 진행한다는 계획에도 동의한다. 전자자료의 사용과 컨퍼런스 참가와 관련해서 트러스트는 위원회가 제시한 변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현

재 BBC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생각할 때 프로그램 제작자는 자신의 시간을 주의 깊게 우선순위를 정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보도의 '적절한 불편부당성' 문제로 돌아가자면, 트러스트는 '의견과 증거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존스 교수의 지적에 동의한다. 그리고 비록 존스 교수가 몇 가지 약점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BBC가 과학 보도 영역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인정한 점에 주목한다. 또한 '적절한 불편부당성' 가이드라인은 방송 내용의 속성이나 맥락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사회의 판단 역시 지지한다. 가이드라인은 적절하고 유연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잘 알려진 사실과 의견간의 구분만이 아니라 개별 소관과 시청자 같은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 잘 알려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때 프로그램 제작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과학적 지식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시청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잘 알려진 사실과 의견간의 '잘못된 균형'(존스 교수의 표현)은 피해야 한다. 이것이 주요 의견들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과학적 연구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존스 교수가 언급하듯이 '때로 전문가도 잘못을 저지르며' 튼튼한 연구라면 이러한 검증을 견뎌낼 것이다. 트러스트는 논쟁의 다양한 영역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에 주목

하며, 이 영역에 대한 이사회의 부가적인 제안들을 환영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편집에 대한 판단력과 자신감이 고양되고, 특히 상급 편집책임자가 자신이 감독하는 직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편집상의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해 토론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트러스트는 이사회가 과학 보도의 불편부당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에 주목한다. 1년 내에 이사회가 수행하려기로 계획되어 있는 편집기준위원회 검토보고서의 결과는 트러스트와 공유되어야 한다. 트러스트는 이 보고서가 BBC 과학보도의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을 평가할 때 본 트러스트 리뷰에 나온 연구결과들을 벤치마크로 사용할 것을 기대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BBC 과학 보도 관련 불편부당성에 대한 제작 가이드라인 내의 새로운 '적절한 비중' 조항의 효과
- 과학전문편집위원이 <BBC 뉴스>의 과학 보도 저널리즘과 콘텐츠의 질에 미친 영향
- 과학전문편집위원과 범-BBC 과학 포럼이 BBC 부서간의 연계, 사내 과학 전문 인력에 대한 접근 및 BBC 전체 과학 보도의 기준에 미친 영향
- 이사회가 제안한 저널리즘 대학의 세미나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과 그 효과 및 (트러스트가 원하는 바) 교육 과정을 들은 후의 면대면 후속 조치

- BBC 비전의 사이언스 패널 이벤트가 지식 수집 및 프로그램 결과물에 미친 영향과 이사회가 이들 이벤트를 어떻게 이용했는가에 대한 정보
- 영국 남동부 이외 지역에서의 과학자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적절한 경우 이를 콘텐츠에 포함시키기 위한 계획
- 이사회가 전자적 도구의 사용과 과학 컨퍼런스 결과를 리뷰하면서 내린 결론, 그리고 변화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 효과
- BBC의 콘텐츠에서 영국 내 남성 과학자와 여성 과학자 비율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계획과 그 효과

트러스트는 이 보고서를 2012년에 발간할 예정이다.

BBC Trust, 2011년 7월

BBC 제작 가이드라인 및 심의사례

역자_ 김 수 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해외방송통신조사자료 2011-3호

BBC 제작 가이드라인 및 심의사례

발행일 : 2011년 12월
발행인 : 박만
편집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행처 :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번지 방송회관
TEL. 02-3219-5114
인터넷. http://www.kocsc.or.kr
인쇄처 : (주)화성커뮤니케이션
Tel 02-761-0823

이 자료집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